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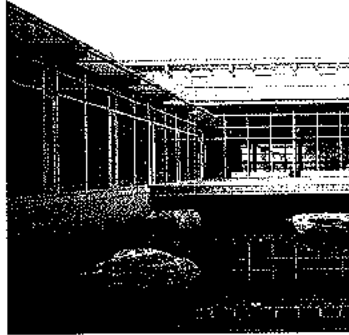
건축사

2000 **10** vol.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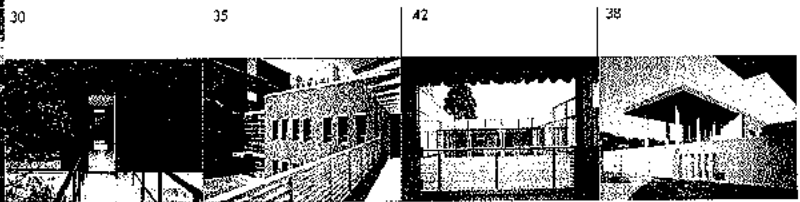
- 칼럼 우리는 교도소에 가야만 하나
- 전시회 2000한국건축문화대상
- 기고 리모델링 · 리폼으로 눈을 돌리자
- 리포트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관기



차례 2000 10 378호



게스트하우스((주)솔로건축사사무소작)



발행인: 이의구
 편집인: 서천식
 편집분과위원장: 위원장 / 장양순
 위 원 / 김정희, 김홍수, 유원재, 조현균, 최동규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 hsjung@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유상태 / 천풍전산인쇄
 광고: (주)이두컴 (02)566-3984

Publisher: Lee Eui-Koo
 Editor: Seo Cheon-Shik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Kim Heung-
 Soo, Yoo Won-Jai,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You Sang-Tae (Cheon Poong Printing Co.)

칼럼	우리는 교도소에 가야만 하나	장양순	10
전시회 / 2000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13
	대상 - 게스트하우스		23
	본상 - 웰컴시티		28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32
	영동군 보건소		36
	서미갤러리		40
	미제루		44
	동아미디어센터		46
	입선 -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외		48
	계획건축물부문 / 은상, 동상, 입선		68
기고	리모델링 · 리폼으로 눈을 돌리자	이종호	82
	건축사 처벌 강화와 씨랜드 사건	박순종	84
리포트	제4차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참관기		85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9) 참관기(1)		88
건축만평		유원재	94
건축마당	협회소식		95
	건축계소식		98
	현상설계		103
	통계(2000년도 8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06
	회원현황		108

Column

Going to the Penitentiary, Is it an Obligation?	Chang Yang-Soon	10
---	-----------------	----

Exhibition /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0

Prize Works - Professional Part		13
---------------------------------	--	----

Grand Prize	Guest House	23
-------------	-------------	----

Superior Prize	Welcomm City	28
----------------	--------------	----

Seongdong Welfare Center for Elderly	32
--------------------------------------	----

Young-Dong Health Care Center	36
-------------------------------	----

Seomi Gallery	40
---------------	----

Mijeru	44
--------	----

Dong-a Media Center	46
---------------------	----

Winning Prize	The 600th Anniversary Bldg. SungKyunkwan Univ. etc.	48
---------------	---	----

Prize Works - The Submitted Part		68
----------------------------------	--	----

Feature

Discovering a New Field : Remodeling and Reform	Lee Jong-Ho	84
---	-------------	----

The Sea Land Incident and the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on Architects	Park Soon-Jong	82
---	----------------	----

Report

After Visiting The 4th Korea China Japan Resistered Architects Organizations Meeting		85
--	--	----

After Visiting The 9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88
---	--	----

Cartoon	Yoo Won-Jai	94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95
-----------	--	----

Archi-Net		98
-----------	--	----

Competition		103
-------------	--	-----

Statistics		106
------------	--	-----

Members		108
---------	--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임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681-5711~4
- 강남구건축사회/(02)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02)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02)3425-3425 · 강서구건축사회/(02)404-7168 · 관악구건축사회/(02)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02)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02)864-5828 · 노원구건축사회/(02)3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02)333-6213 · 동작구건축사회/(02)815-3026 · 아포구건축사회/(02)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02)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02)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02)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02)333-9158 · 양천구건축사회/(02)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02)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02)717-6697 · 은평구건축사회/(02)368-1486 · 종로구건축사회/(02)737-3030 · 중구건축사회/(02)5748 · 중랑구건축사회/(02)37-3900 · 도봉구건축사회/(02)990-8720 · 성동구건축사회/(02)292-5555 · 금천구건축사회/(02)856-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3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363-83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1)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664-4121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9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8163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1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6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북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8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4)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4)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삼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2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0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6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5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2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3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5-5501

우리는 교도소에 가야만 하나 Going to the Penitentiary, Is it an Obligation?

장양순 / 동명건축사사무소, 본지 편찬위원장
by Chang Yang-Soon

그동안 올림픽 메달 따는 소식에 그나마 가까이 했던 텔레비전과 신문을 요즈음은 주마간산 격으로 지나칠 뿐이다. 부실기업의 해외매각 실패, 연속되는 주가의 하락 그리고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 등 모든 경제상태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건축계는 IMF이후 소생의 기미도 없는데 우리 나라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8건설의 부도설, 2차 구조 조정 대상 기업 중 퇴출 대상 기업의 절반이 건설업체라는 보도 그리고 1만개 이상의 건설업체가 연말까지 부도가 나리라는 소문 등 타 업계에 비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건축사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의 허가건수를 보면 96년도에 6천명의 회원이 7만9천여건으로 1인당 13건을 수주한데 반하여 작년보다 훨씬 나아진 금년의 경우 7천7백여회원이 3만1천여건으로 1인당 겨우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설계비의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없어진데다가 수주량 감소를 기화로 질을 따지지 않는 건축주들의 횡포 그리고 노는 것보다는 적자가 덜하리라는 건축사들의 생존본능이 겹쳐 설계비는 한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건설성이, 미국은 건축사협회에서 설계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꼼짝 못하게 묶여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주 총액은 4년 전의 30%라는 수주건수와 관계없이 형편없게 줄어든 실정이다.

지금 대다수 건축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처럼 로우 스쿨을 연기시킬 힘도 없고, 의사들처럼 국민을 볼모로 권리를 쟁취할 수도 없기에 전문직업인으로서 희의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요즈음 우리에게선 설상가상으로 교도소행을 예행 연습해야하는 사태가 예고되어 있다.

건교부는 건축법 77조 벌칙적용을 개정하여 공무원 의제에서 법제 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을 132조 및 227조를 적용한다고 입법 예고 하였다. 쉽게 말해 현장조사 검사 업무 및 확인 업무에서 이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공무원에 준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입법의 취지는, 이렇게 중형(重刑)을 적용함으로써 씨랜드 화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씨랜드 사고는 총체적으로 썩어 빠진 이 사회가 만든 사고이다. 그렇다고 설계나 감리 그리고 조사업무를 책임진 건축사가 이유야 어떻든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전문인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이런 사고의 방지를 위해 벌칙만을 강화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첫째 현실성이 결여된 수수료의 문제이다. 법령은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대행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규칙 제 10조 관련 건축사가 수수료를 보면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의 경우 2천 원부터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1만 5천원 이하이다. 물론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허가건수 대부분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보면 거의 모든 건축물의 검사업무가 천여원 또는 1만원 이하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필자는 지방에 소재한 설계를 하면서 1200원인가 하는 금액을 인장 지참하고 조사검사 업무비로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고 고소를 금지 못한 적이 있다. 금액도 금액이려니와 주려면 온라인 송금이라도 할 일이지, 그곳까지 가려면 인건비는 고사하고 여비만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을 포기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또한 최근 같이 있는 건축사 한 분이 부산 소재 건축설계를 주주한 바 허가서류의 현장조사서는 본인 이외의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비행기로 동행하여 조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넓은 공장 부지를 눈 하나로 완벽하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겠나?

부동산 중개사의 경우 무책임한 부동산 중개를 막기 위해 부동산의 등기 권리관계부터 구조, 전기, 수도 등 건물 유지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수수료를 그에 걸맞게 인상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또 다시 50% 인가 상향 조정하였다고 들었다. 조정전으로만 계산하여도 시가 1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매매 수수료는 3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이 되는데, 대지가를 무시해도 이 정도면 100제곱미터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건축물의 현장 조사 검사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수수료는 최대 7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건축사가 조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씨랜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려면 대지의 경우 고저측량과 매설물 탐지도 해야하고, 사용검사의 경우 각종 장비가 건축물에 따라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외주비나 장비사용료는 물론 여비 교통비 및 건축사와 보조원의 인건비도 계산이 안된 비용을 지급하며 책임을 지라 한다면, 이는 감옥에 가기 싫으면 네돈 내서 조사업무를 착실히 행하라는 공갈 협박과 다름이 없다.

둘째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가 있는 법령을 보면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법에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전기사업법 및 동 공사업법, 도시가스 공사업법, 산업 표준화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만 이들이 들어 있다. 즉 건축사와 유사한 전문 자격사들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은 공무원 의제에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수십조의 국민혈세를 부어 넣고도 회생도 매각도 안되는 대우그룹의 회계 감사를 맡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회계법인도 잘해야 회사의 인가 취소 외에 공인회계사가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또한 가짜 회발유를 만들어 귀중한 차량을 못쓰게 만드는 이들은 잡아 놓고도 처벌 규정이 없어 내보낸다는 뉴스도 접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특별검사원제를 도입한 후 위법건축물이 감소했다는 낭보가 있다. 우리 건축사들은 불법 위법 건축물은 물론 씨랜드와 같은 사고의 재연을 원치 않는다. 또한 부당한 자기 회생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책임에 응분한 수수료의 지급을 원할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77조의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 건축법 80조 2호에 의한 벌칙적용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 2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당해 건축사를 행정처분하고, 조사 검사 업무의 대행자에게 인건비 및 여비 그리고 조사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료와 기타 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 제23조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 법이 강화될수록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인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뒷받침이 없는 법의 강화는 범죄자 양산과 국가와 국민, 사회의 계층간에 원망과 불신만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건교부가 국민과 건축사들의 중간에서 서로가 이익이 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2000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0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역사의 그릇'인 오늘의 건축물을 발굴하여 이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건축물과 그 주인공을 찾아 격려함은 물론 일반인과 신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부문별 참가 대상을 넓힘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사회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정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이 시대의 진정한 건축문화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2000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심사결과가 발표돼 10월 25일 대한건축사협회 강당에서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10월 31일까지 1층 아키텍트 갤러리에서 수상작 전시회가 열린다.

올해는 (주)솔토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이 시공한 (주)공문교육연구원 Guest House가 국내 준공건축물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00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Guest House 외에 본상 6점, 입선작 19점 등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작품 26점과 신인·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 부문 수상작품 13점 등 총 39점이 입상했다. 준공건축물부문은 총 62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이 중 1차 사진접심사와 2차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입상작 26점이 선정됐다. 계획건축물부문은 건축전공학생(대학원생 포함), 건축사사무소 종사자(건축사 제외) 등 아마추어 건축가들이 「한국의 토포닉」이라는 주제로 총 26작품이 응모하여 금상 해당작 없이 은상 2점과 동상 2점 그리고 입선 9점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에서는 Guest House의 설계자인 (주)솔토건축사사무소가 대통령상을, 시공자·건축주인 삼성물산(주)건설부문과 (주)공문교육연구원이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등 본상 수상작품 6점의 설계자 및 시공자가 건설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준공건축물부문 본상 수상작품의 건축주, 입선작 설계자 및 시공자, 계획건축물 부문 입상자에게는 각각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서울경제신문 사장상이 수여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건축·건설관련 5개단체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으며, 심사의 공정성, 정부시상 확대 등 해를 거듭하면서 내용적인 면에서 발전을 보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시상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시상내용

대상(1점)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비 고
대상(1점)	트로 피 비와건축팀	트로 피 동 판	트로 피 동 판	- 건축사: 대동건설 - 시공자: 건축주: 유영건설
본상(6점)	트로 피 비와건축팀	삼 패 동 판	삼 패 동 판	- 건축사: 시공자 - 건설고용유영건설 - 건축주: 대동건설비와건설
유선작(10점)	송 패	-	-	- 건축사 - 대한건축사협회 - 시공자 - 서울강원건설 - 건축문화발전 - 공이 큰 개년 또는 - 인제에 수여
공로상	트로 피	-	-	-

수상작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順)

■ 대상

• GUEST HOUSE/(주)솔토건축사사무소/삼성물산(주) 건설부문/(주)공문교육연구원

■ 본상

•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주)가와중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금송종합건설(주)
• 웰컴시티/(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제 송효상/삼협종합건설(주)/(주)웰커뮤 니케이션즈
• 동아미디어센터/(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주)대우/동아일보사
• 미제루/(주)인·토종합건축사사무소 방철린/범산창원 김정범/김정복
• 영동군 보건소/(주)경영위천건축사사무소 김승희/(주)선임종합건설
• 서미갤러리/(주)테제건축사사무소 유태용/홍승원/홍승원

■ 입선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주)일건 건축사사무소 황일인/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분당 월드타운 하우스/(주)한울국제건축사사무소 최병천/일드건설(주)
• 교보생명보험(주) 강릉사옥/(주)티.에스.케이 건축사사무소/동부건설(주)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변용/코오롱건설(주)

• 양산 신도시 주택공사 아파트/(주)토문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두호/고려 개발(주)
•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주)아키텐종합 건축사사무소 김우성/(주)대우 건설부 문/금호산업(주) 건설사업부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및 교회/(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현대 건설(주)
• 당항포 전사관/이·상건축사사무소 박병철/신우종합건설(주)
• 천성제/토마건축사사무소 민규암/화인 의장건설
• 메탈릭/건축사사무소 (주)아르키움 김인철/유창공사 정근제
• 한양종합기술연구원/(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영풍·명 박명화/일지건설(주)
• 평성정/(주)예공 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주택 이철희, 최선암
• 성균관대학교 종합강의동 C동/(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김영섭/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인사 가나아트센터/(주)테트라건축사사무소 임상관+Wilmutte & Associates/희촌종합건설(주)
• 비전힐스 골프클럽하우스/(주)맥건축 건축사사무소 과재환/(주)동인건설
• 서울특별시 제2남골당 추모의집/(주)두호건축사사무소 장용호/(유)대광
• 데아콤 사옥/(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아성관/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시퀀스/(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동규/(주)세진주택 조용희
• 카이 대덕연구소/(주)건축사사무소 모람 김홍수/예림엔지니어링(주)
■ 공로상
• 대한주택보증(주)
• 오운동/(주)한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응모대상

- 응모작품: 99년 5월부터 2000년 8월사이 준공된 국내 건축물
- 응모자격: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응모방법

- 작품개요, 작품설명, 건축물사진(8"×10" 사이즈 10매내외),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간이소개서 첨부)
- 공동설계작품의 경우 설계자(건축사)명 외는 1인으로 제한함. (설계자간 합의하에 대표자1인 명시, 입상시 대표자 시상)
- 법인 또는 사무소 명의로 출품 가능

작품접수

- 기간: 2000. 8. 28(월)~29(화)
-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심사위원

- 원정수(안하대학교 명예교수)
- 김병현((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 대표)
- 동정근(안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김낙중(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윤석우((주)종합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여홍구(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황상모(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심사일시

- 1차(사진접심사): 2000. 9. 15
- 2차(현장심사): 2000. 9. 18 ~ 22

수상작발표 및 시상·전시

- 수상작 발표: 2000. 10. 25. (입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수상작 전시회: 2000. 10. 25. ~ 31.
- 시상식: 2000. 10. 25.



대상 / GUEST HOUSE



본상 /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본상 / 웰컴시티



본상 / 동아미디어센터



본상 / 롯데호텔

심사평

원정수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심사과정과 작품명

심사방법과 과정은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과거의 표결방식을 지양하고 공개토론으로 평가선정하기로 하고, 주거부문, 비주거부문으로 구분하여 접수된 작품게일에서 고르게 배분하여 시상하였던 관례를 깨고, 계열 구분 없이 우수작품 순위를 결정토록 하였다.

우선 1차로 접수된 출품사진 및 도면자료를 심사하여 23점을 선정하고 작부토론을 한 결과 현장답사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심심사에서 입선작을 재조정, 확정하기로 하고 현장답사 심사를 하였다.

현장답사 후보작품을 대상으로 수도권, 지방 멀리 부산까지 연 3일간 심사위원 전원인 강행군 답사하고 최종심사를 공개토론으로 우수작품 7점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격렬한 비평토론을 장시간 벌이면서 Guest House와 웰컴시티 두 작품으로 압축되었고, 두 개 작품성향이 극단적이고 대조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평행되는 차원에서 최종 결론은 건축가의 진지한 열의, 사공간내용의 충실한 전문성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 건축주와의 상 위일체의 결실에 대상이 주어졌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경관을 파괴한다는 여론과 부실한 시공에 의한 조잡한 건축으로 사치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를 잠재울 수 있고 건축가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사례를 찾고 싶었던 시점에서 본 대상작품은 바로 시사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심사위원들은 공감했다.

웰컴시티는 건축가의 철학적 의지가 가장 강하게 작품으로 표출되었다. 한국건축문화는 국제적 위상에서 대변할 한국건축가로 조명되어야할 작품으로 보았고, 동아미디어센터는 열악한 입지환경과 미디어의 첨단 이미지가 잘 소화되었다. 표현적 첨단성과 건축적 내실과의 격차, 독창적 창의성에 관한 토론논란이 많았다. 강화의 주택 미제루는 한국 농촌 자연환경과 건축의 조화를 제시한 작품으로 관심을 모았다.

성동구 노인회관, 영동군 보건소 두 곳 모두 공공건물로서 시공간에서 감리대역과 공사부실의 문제 작품이었으나 기존 주변환경을 새로운 환경으로 탈

바꿈시키는 조형과 공간창출이 돋보인다. 한국인의 의식구조개혁의 새로운 시도인 남골당 건축은 정치적 차원에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낸 것이었으나 영적, 추상적 공간을 사업적 기능과 생존자의 쾌락적 환경으로 해석되어진 점에 유감을 남겼다.

작품의 경향과 총평

주거건축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게된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주택사업투자로 건설하고 있는 기업경쟁의 산물이 심사대상이며, 이는 평면공간, 입면조형이 거의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새로운 창작의지를 살펴보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본 행사의 제정적 후원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가장 크다고 한다. 각별히 공동주택의 저가개발의 현실적 애로를 명자하나 양산 아파트의 경우 배치공간, 주차공간, 현관진입 등 거주자 위주의 해석이 신선하였지만 조정환경은 그림도안 효과위주의 도로 및 테라스 조성 무성의한 식재 등으로 만들어진 단지내 분위기를 여수선하게 격하시킨 점은 전반적으로 시정되어야 함 경향이다.

단독주택 작품은 본 상을 받을 만큼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며 경쟁도 치열했다. 그러나 현장의 주위환경과 관련자에서 평가할 때 자연과 마을의 흐름과 단절되고 고립적 마당, 공간을 구성하는 흐름이 크게 눈에 띄었다.

비주거건축 또는 주거공간의 주제를 벗어난 재료의 특성에 집착 또는 다양한 구성언어 등의 연출에 치중하여 지엽적인 각론에 몰두하여 도해 되어진 작품 경향을 여러 번 볼 수 있었다.

다만 미래의 기대주로 평가되는 건축가의 자력은 어느 때보다 풍작이었다. 심사위원은 현장을 답사하며 작품으로 보여주는 작가들의 뛰어난 창작능력과 세련되어가는 전문적 세밀한 기교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김동과 감탄을 느끼며 도리어 배움의 기회라고 느껴 심사의 많은 보람을 가졌다.

출품자의 명의 문제

제출요강에는 출품자 대표 1인으로 되어있었으나 이번 심사 진행과정에서 거론된 것은 국제협력 또는 외국인 명의 작품인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 협력이 이루어지는 현황에서 2000년도 한국건축문화의 척도를 밝히는 행위는 작가의 명예가 세계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심사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외국 건축관계가 있는 작품은 명의를



현상심사평경

추후 보완하기로 하고 심사했다. 차기 응모요강에는 재고를 바라는 사항이다.

응모작품 제출자료 보완

대부분 출품자료는 심사대상작품의 건물에 한정된 사진 및 도면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 답사 심사를 하면서 주변환경 조건과 피려되어 독선적 주장으로 일관하는 작품시례를 볼 때 다음 응모 출품자료에는 반드시 주변환경과 동사에 볼 수 있는 사진 및 주변 지도자료를 첨부하여야 심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시상종목에 관해서

우수한 작품위주로 입선작품을 선정하고 그리고 입상 작품은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된다.

본 심사를 하여 본 결과 작품의 성공적 결실을 거두는데는 미흡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며 열의가 돋아나는 건축사 또는 현실적 난관을 타개한 시공자 또는 건축주 특히 헌신적 사명감으로 파격적인 공로로 건축이 실현되게 한 건축주 직책 공직자 등이 있었다.

앞으로 이들의 희생으로 건축문화발전의 공헌이 기대되므로 특별, 개인 표창 등의 시상제도 보완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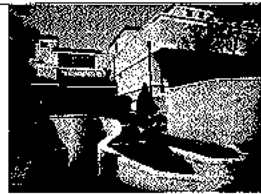
분상 / 영동군 보건소



분상 / 시미갤러리



입선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입선 / 분당 월드타운 하우스



입선 / 교보생명보험(주) 강릉사옥

김병현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지난 한해에도 IMF 이후의 건설경기 불황에 따라 수준급의 건축을 얼마나 냈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시작한 심사였다. 상업건축과 공동주거건축 분야가 어려운 경제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이 분명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관련 제출 작품으로 9개가 있었지만 그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전국에 걸친 주택시장의 불경기와 이로 인한 사업주의 위축된 사업 의욕은 우리가 지상에만 제기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주택 현실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앞으로의 대응이란 과제에 아무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느끼게 한다. 그러나 단독주택 출품작은 그 탁월한 내용과 건축가의 의지, 치밀한 완성도 등이 돋보이는 것들이 많아 괜찮은 수확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민규암의 침상재, 우경국의 평심정과 방철린의 미제루가 관심을 끌었다. 침상재는 작은 규모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대담하고 역동적인 내외부 공간, 세심하고 무게 있는 구법과 디테일이 주목을 받았고, 평심정은 작가가 추구하는 내외부 공간의 영역성 설정과 여러 재료의 물성을 만드는 공간의 질 또한 높게 평가 받았다. 미제루는 절제되고 소박한 건축 방법이 사골 마을에 인접한 이 장소에 매우 적절하고 정감 있어 보인다. 중심공간으로 된 안마당 공간의 질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 주택이 시도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 공간 구조를 재현하는 데서 출발한 외부 세계와의 관계 설정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상업 건축물에서는 별 수확이 없었던 반면 비상업용 업무시설에서는 여러 작품이 눈을 끌었다. 그 중에서도 도심 고층사무소건축으로 데이콤포사옥과 동아미디어센터가 수상대상으로 관심을 모았다. 데이콤포사옥은 일상적인 도시형 사무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엄격한 기하학의 틀 안에서 만들어 낸 독창적인 외피구성으로 강압에 신선한 가로 풍경을 만들고 있어 보인다. 동아미디어센터는 간결하면서도 유연한 외형, 유리외투의 투명성을 최대한 살린 세련된 외피 디자인으로 도심 고층건축의 조형적, 기술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건물에서 좀더 독창적인 건축 언어나 디테일 등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가지게 한다. 도심내 소규모 건물로 유태웅의 서미갤러리가 우리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지역

적,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회동에 위치한 이 갤러리 겸 주택을 완성하는데는 오랫동안 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건물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인내와 끈질긴 노력이 낳은 건축물은 우리에게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만남이라는 과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여 2층으로 피난은 하였지만 상징적으로 보존된 한옥의 일부, 전벽돌이란 전통재료와 유리, 콘크리트판과 금속어한 다양한 현대건축재료와 잘 배합되어 만들고 있는 안마당과 내부공간은 매우 성공적이다. 교육시설, 연구시설을 포함한 공공건물 중에서 성격은 비슷하지만 최상영의 성동구 노인종합복지관과 김승희의 영동보건소가 높게 평가 받았다. 두 건물 모두가 도시 내 공공건물의 건축공간과 외부공간, 도시와의 관계 설정이 뛰어나다. 건물의 성격상 일반적인 공공건물 외관과는 달리 주거의 안정으로서의 공공건물이 되어야 함도 잘 보여주고 있다. 건축공간의 스케일, 공간구조, 건축형식과 재료 선정에까지 세심한 사고와 배려가 그대로 보인다. 특히 영동보건소는 의료시설을 완숙하게 소화하고 있고, 이 작가가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독자적인 건축 형식의 발전도 주목받을 만하다. 솔로건축의 게스트하우스는 작가가 실제로 건설에 참여하여 건축과 건설이 결합하여 만든 하나의 완성된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조형과 절제된 건축 어휘를 서구식 욕구조라는 우리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구조와 건설방법으로 철저히 소화하고 있고, 이 방법의 건축과 건설을 집요하게 추구한 건축은 매우 신선하면서 힘찬 영감을 느끼게 한다. 모든 공간의 구성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가의 열정과 세심한 배려는 가히 감동적이다. 건설방법을 깊이 추구하면서도 여기에 지나치지 보니 정산적 공허를 보여 주는 우리 주변의 건축과는 좋은 대조를 보여 준다. 송효삼의 월림시티사옥은 이미 널리 지상에서 발표되어 잘 알려진 근년의 문제작이다. 장충동에 위치한 이 대지의 특수한 컨텍스트에 이 작가는 자신의 건축과, 도시관을 서슴치 않고 꺼내어 보였다. 일상적인 문제의 해결사로의 건축가가 아니고 우리 자신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건축과 도시와의 관계, 여러 이유로 도착되어 발견되어 온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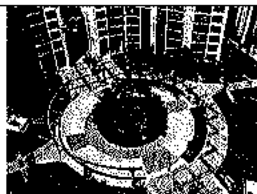
공간구조의 근원적인 체계에 매우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이 건물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우리의 태도와 사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콘크리트 포디움 위에 4개의 복층 철상자는 서구식 효율주의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새로운 것이 옳은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작가의 비평적 호소이기도 하다. 이번 심사를 끝내면서 느낀점은 심사 과정에서 선정된 수상작이나 그 대상작의 대부분이 지난 몇 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일들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만들어 낸 것들이다. 이들은 어려웠기 때문에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한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어려운 문제를 고뇌와 인내로 극복한 작품들로 보인다. 그러기에 건설의 질, 디테일 등 모두가 높은 수준을 보여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다.

동정근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인간과 그 사회를 위한 좋은 생활환경의 창조라는 건축의 역할은 양적인 증속에 급급하면서 물질문화에 쫓겨 가는 창조성 부재의 현대도시에서 잊어버린 꿈과 감성을 깨우는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2000년도 새로운 밀레니엄을 여는 시점에서 한국 건축문화대상은 종합 문화로서 건축의 위상이 새롭게 확립되길 기대하며 심사에 임하였다. 심사는 거론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제기되고 논의되었다. 심사 중 논의되었던 사항 중에서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사항을 다음과 같다. 건축문화 대상은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포괄적인 건축행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것, 건축에 대한 명쾌한 개념과 완성까지의 일관성, 주변의 맥락에 대한 고려와 공공성에 대한 배려, 거품경제의 산물인 비 합목적적인 건축에 대한 제고, 우리 건축문화의 독자성 혹은 주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고려한 시사성과 미래지향에 대한 기여도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외국 건축가와 공동설계한 경우 그 사실을 밝혀 심사대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심사는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심사평은 지면관계상 심사중 논의되었던 사항별로 본문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건축작품은 건축을 향한 모든 선험적 지식을 바탕



입선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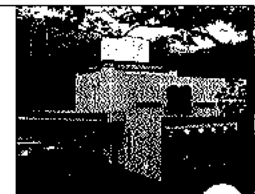
입선 / 양산 신도시 주택공사 아파트



입선 /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입선 / 당항포 전시장



입선

으로 노력과 의지,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의 기술 및 지도능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축행위가 원활하게 수행될 때 좋은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현장답사를 통하여 모든 분야가 이제는 높은 수준에 있다는 현실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공청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에서 공사비 내에서의 적절한 재료나 공법 선택의 미숙함 그리고 감리를 벌도 발주하여 미완의 조정 등 건축가의 의지를 마지막 단계까지 표현하지 못하는 몇 작품들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상공모로 수행된 많은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계획된 거품디자인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거품경제의 산물이기도 한 건축에서의 거품은 함묵적성을 벗어나 건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공공건축에서 완성도는 낮으나 지역 분위기와 소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동구 노인복지회관이나 영동군 보건소는 건축가의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입상 작품들은 건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주변의 맥락에 대한 새로운 질서 부여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배려 등이 세심하게 반영된 작품들이다. 특히 생태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작가의 건축적 의지를 실현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도시환경의 맥락을 수용하면서 내부공간을 순환하는 건축적 길의 표현이 돋보이는 웰컴시티는 앞으로 건축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

2000년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건축계에서도 미래를 향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깊은 의식의 환경문제, 도시문제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기술과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해법을 뛰어넘는 건축계의 의지를 새로운 세기에 기대해 본다.

김낙중 / 한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심사에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금년도 건축문화대상의 심사에 대하여, 우선 그 방법 및 심사진들의 열의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만큼 본다' 라는 말이 있다. 선정된 작품이 최상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 또는 최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단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심사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는 대답할 수 있다. 모든 심사는 다수결이 아닌 길고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이루어졌

다. 건축을 보는 관점도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열연 찬반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나갔다.

이 과정에서 좌장적인 원정수선생님의 노력이 돋보였다.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일반적 지명도가 높은 건축가의 작품보다 조용한 자기작업에 몰두해온 무명(?)신인들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많이 선정되었다. 이는 많은 토론을 통하여 지명도 높은 건축가들의 아우라가 걸러지면서 작품 그 자체의 가치가 부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건축적인 의도가 뚜렷이 보이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다보니, 완성도는 높으나 상업적 프로그램에 충실할 수 밖에 없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탈락하게 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상작 중 성동노인복지회관은 주변여건의 문제 없기가 비교적 까다로웠을텐데 배치계획에서의 동선 및 마당의 처리, 스케일과 재료의 선택이 적확했다는 호평을 받았으나, 시공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건축가가 감리에서 배제된 결과로 보여진다.

서미갤러리는 주택과 화랑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 기능을 잘 소화했으며, 다소 직설적이지만 한옥보전지구에서의 전통과 현대를 병치시키는 한가지 방법을 제시한 작품이었다. 세련된 디테일과 높은 시공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동 보건소는 자칫 딱딱하고 도식적이 되기 쉬운 보건소 건축에 기능적이며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어 냈으며, 특히 배치에서 대지의 장악력이 돋보였다. 이곳에서도 지역의 소규모 공공건물이 흔히 보여주는 낮은 시공도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웰컴시옥에서는 가로에 대한 저층부의 폐쇄적인 제스처, 다소 도전적인 외벽재료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상층부 매스의 채나눔이 도시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 작가의 세련된 공간 연출, 분절되어 명료한 디테일과 재료의 물성, 높은 시공의 완성도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제루는 저렴한 공사비에 맞는 재료와 공법, 전원 주택이 갖는 자연과의 교감, 전통 요소의 점록 등에서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고흥군을 종에서는 독창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데아름 사옥과의 경쟁 끝에 동아일보 미디어센터가 선정되었다.

대상을 받은 게스트 하우스는 건축의 기원적 형태인 여러 할 수 있는 목조를 이용한 구축적(tectonic)표

현이 인상적이었으며, 배치 계획과 재료사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대의 폐선에 치우치는 현재의 우리 건축상황에서 지역을 초월한 전통적 재료와 구법을 통해 구현된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생각된다. 금번심사를 하면서 대두된 또 하나의 문제는 외국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된 건물이 사실설계 및 대관인허가인을 담당한 국내 건축가의 명의로 수상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을 문화예술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분명히 외국건축가의 이름을 밝히어 신청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국제적 신뢰의 문제이기 이전에 윤리적인 문제이다. 금년에는 이러한 작품들은 실사를 통하여 배제되었지만, 주최측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공모요강에 명시해야 추후로 예견되는 잡음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우 / (주)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우리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구현,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등의 개최목적들을 가지고 매년 행하여지고 있는 우리 건축계의 큰 행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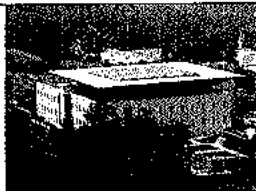
흔히 건축은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였듯이 '2000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작품들에는 최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등의 모든 시대적 상황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에 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품작은 모두 62작품이며 그중 26작품이 입선되었으며, 그중 대상 1작품, 본상 6작품, 나머지 19작품이 입선작이 되었다. 1차 심사회의에서 심사기준이 거론되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제시하여 주는 작품이 "2000 BEST"가 될 것인가? 또 거품이 제거되고, 요즈음의 현실설계 당선된 유형에서 벗어나는 현실성의 추구라든가 또 값비싼 건축, 호화로운 건축에 현혹의 건물이 대략 집약되어, 건축적 완성도, 사회적 기여도(공공성, 환경성), 장소성, 시공성(설계도의 구현) 등을 주요심사기준으로 하였으며, 또 모든 것을 토론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출품된 작품들의 내용이나 성향을 보면 위촉된 건축



입선 / 비전힐스 골프클럽하우스



입선 / 서울특별시 제2남공당 추모의집



입선 / 인사 가나아트센터



입선 / 시퀀스



입선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및 교회

경기 탓인지, 예년과 달리 대형 프로젝트들은 별로 없고, 중소형 프로젝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테마들이 다양하며, 강한 작품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들로 되어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상당한 수준급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공동주택들이 종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복합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결코 작가들의 수준 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다. 사회복지 시설들이 몇 개 눈에 띈다. 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 납골당들이 그것이며, 이들에서는 설계자의 강한 의욕들이 많이 느껴진다. 다만 우리의 모순된 감리제도 때문에 시공중 설계자가 참여할 수가 없어 설계의도의 미완성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단독 주택들은 주위환경과의 조화, 소박한 삶의 표현, 강한 작가의 의지, 사공예의 적극참여 등으로 대부분이 수작으로서 완성도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동미디어센터는 하이테크(High Tech)적 이미지를 주는 광화문 일대에서의 Visual Target을 이루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외장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다.

이제루는 주위환경에 순응한 배치와 접근하면서의 실루엣이 겸손하고 순박한 전통적인 우리의 마을을 접하는 느낌이며, 서미갤러리는 기획동이라는 특수한 장소성에 법규적제를 잘 극복한 예로서 소위 한국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웰컴시티는 도시의 가로에 얽한 중소형 빌딩의 하나의 설계기법으로서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곳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다. 포디움 부분(Space Body)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였지만, 만약 현재와 다르게 처리한다면 현재의 구성(Composition)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상부(Plastic Body)와의 조화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내부기능이나 편리상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것들이 도시인들에게 제공되는 시각적 빈터 내지 실질적인 빈터의 역할을 넘나들자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대신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Guest House는 교원그룹 도고연수원내에 목조건물로 기존연수원과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묘하게 서로의 조화를 구가하고 있다. 또 지형에 순응한 형태, 순수한

육구조를 실현시킨 의미, 깔끔한 평면처리 등이 전혀 거부감이 없다.

설계자의 디테일 처리 등의 의도들이 잘 시공되어있다. 이러한 소박한 의미에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와 내부와의 약간의 이질감, 너무 깔끔한 마감처리 등이 잠점이면서도 단점이라고 생각되어 아쉬운 감이 있다. 그리고 데이콤사옥이 스트리트월(Street Wall)로 구성되어있는 테핵란로의 표정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심의 대열에 오르지 못한 것이 또한 아쉬운 한 부분이다.

본상에 오른 7작품중 대부분이 중소형 프로젝트들이다. 작가를 또한 중견작가들과 젊은작가들이 골고루 섞여있다. 비록 본상이나 입상이 아니된 작품들 중에도 젊은작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 건축계는 이들 젊은 작가들 내지 유망파작가들의 파도가 상당히 거세질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여흥구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00년 한국건축문화대상심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 심사대상에 오른 작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느낌은 모든 작품들이 조형성이나 마감처리 등이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매스구성(massing)이나 조경, 건축물 내외공간의 명료함(clarity), 건축물로 만들어진 외부공간(중정·마당)의 모양(shape)과 형태(form) 그리고 시각적 명쾌함 등이 돋보였다 할 수 있다.

이번 심사대상에 오른 작품은 대부분 나무(木材), 철강재(steel), 노출콘크리트(exposed concrete), 유리(glass)를 주 소재로 택하고 있었으며 일부 작품의 경우 특수마감재를 사용하였다. 주 소재나 마감재의 선택이 상당히 통일성 있고 연속성 있게 사용되어 건축물의 매스(mass)나 형태(form)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도 좋아 보였다.

심사대상작품 중 본인의 관심을 끌었던 작품은 서미갤러리였다. 한옥보존지구에 화랑건물이 비집고 들어 어떻게 전통가옥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관심이었으나 한옥자구의 개발에 새로운 해답을 명확하게 보여준 작품이었다. 우선 주변환경과의 시각적 공간적 연속성이 훼손됨이 없이 잘 유지되도록 지혜롭게 계획된 작품으로 도로변에서의 느낌은

기존의 한옥들을 압도하지도 훼손하지도 않고 있었다. 특히 중정을 포함한 내부공간은 한옥의 중정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었으며, 2층에서 보이는 남산의 모습과 푸른 하늘은 상당히 한국적 정취였다. 또한 영등군 보건소는 공간의 배열이 기능적 이면서 군더더기 없으면서 기존 보건소의 답답함을 느낄 수 없는 작품이었다. 특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자연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한 환경친화적 배려가 높은 작품이었다.

이번 작품을 통해 몇 가지 느낌을 추가한다면 첫째, 조형성은 뛰어나지만 건물이용자나 기능에 대한 배려보다는 지나치게 외도적이고 장식적이며 특이한 공간연출에 집착한 작품이 많았다. 많은 작품들이 "왜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대지나 대지의 주변환경이 갖고있는 조건을 소홀히 다룬 작품들이 많았다.

셋째, 작품성이 강조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형보존 및 에너지 절약 등 환경적 고려와 생태 보존을 위한 계획절근이 충분하지 못한 작품도 아직도 많았다. 넷째,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나 서구의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착각을 주는 작품도 적지 않았다.

이번 심사대상 건축물중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영등군보건소, 양산신도시주택공사아파트(15평 내외의 임대주택단지), 서울특별시 제2남골당 추모집 등의 사회적 공익성이 높은 작품들이 좀더 많은 설계 조건과 시공여건 속에서도 입상 내지 입선할 수 있었음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끝으로 웰컴시티와 동미디어 센터는 한두 가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세한 기본을 주는 도심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입선 / 데이콤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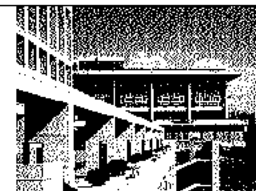
입선 / 향양정합기술연구원



입선 / 메탈릭



입선 / 평상정



입선 / 상교관대학교 종합강의동 C동



입선 / 카이 대덕

응모대상

- 응모작품: 임의 선정한 실제의 대지와 용도에 주제를 적용한 창작작품으로 이전 국·내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작품
- 응모자격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면허소지자 제외)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응모방법

- 파일(가로90cm×세로120cm) 1매 및 작품 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가로×세로 규격이 75cm×90cm 또는 90cm×75cm, 높이 75cm이하) 1점 제출
- 공동작품은 출품인원을 3인이하로 제한함
- 작품주제: 한국의 텍토닉

※ 주제설명:

이 시대의 에스캐핀토는 영어가 아니라 '과학기술'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자동차나 TV조작법은 전달될 수 있다.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의한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과 소외, 국가간 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 등 부작용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루소식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9세기 근대적 건축재료와 기술이 발전하고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기면서 건축과 기술은 한편으로는 의존적이면서 다른편으로는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 근대건축은 기계문명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면서 기계미학을 자신들의 주요 건축언어로 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결국 체계의 견고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의 양면성을 간파한 나머지 형태적으로밖에는 근대성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유토피아 지향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건축은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기계를 직유법적으로 건축 형태언어에 도입하는 하이테크 건축은 물론이고, 매우 형태자율적인 해체주의 건축구조체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최선의 컴퓨터 공학과 기계공학을 도입한다. 건축은 기술을

통하여 현실화되지만 그렇다고 기술이 건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건축과 기술의 관계를 애매하게 하였고, 지금도 미천가지이다. 요컨대 건축과 기술 문제에 대한 근대 이후의 질문은 아직도 확실한 답이 내려지지 않은 채 기술을 건축의 중요한 메타프로 삼는 측과 기술을 건축의 종속적인 것으로 삼는 측의 대립만이 존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하이테크나 해체주의의 첨단기술은 여러 측면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이미 보편언어가 된 기술을 한쪽편에 밀어두고 건축만을 말하는 것 또한 우리 건축이 세계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에서 건축과 기술의 적절한 관계는 무엇인가?

※ 설계내용

임의의 건축물 혹은 구조물을 설계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길 것.

- 1) 구조, 재료, 환경, 건설공법, 설계기법 등의 기술적 분야에 있어 한가지 이상의 현실적인 내용을 담을 것.
- 2) 이러한 기술을 채용함으로써 인해 건축적인 질, 즉 형태미, 공간감, 거주성 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를 표현할 것.
- 3) 기술적 내용이 형태적 요소로만 쓰이거나 건축에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피하고 건축적 내용과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4) 도시내의 건축(구조)물임을 감안하여 도시의 장소성과 쾌적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것.
- 5) 시대적 및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적정기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할 것.

※ 대지

현존하고 있는 도시내의 대지를 작가가 임의 선정(신축)하거나 혹은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중개축)을 대상으로 할 것

※ 표현방법

가급적 평, 입, 단면도 및 투시도 등의 전통적인 평면식 표현방식을 지양하고 3차원적 표현방식으로 공간, 구축 방식, 건축적 및 기술적 효과를 표현하도록 할 것.

작품접수

- 기간: 2000. 8. 31(목)09:00~18:00

심사위원

- 김영웅(대한건축사협회이사, (주)진원건축대표)
- 장양순(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대표)
- 최동규((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함인선((주)인우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형우(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김성우(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이강업(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시상내용

- 금상 (1점):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은상 (2점): 상금 각 200만원 및 상장
- 동상 (3점):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선 (다수): 상금 각 30만원 및 상장
- ※ 동상이상 수상자중 대학재학생에 한해 영어 인터뷰심사를 거쳐 2인을 선발,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 학생잼버리 대회 피견 특전 부여

수상작 명단(작품명/설계자)

■ 금상

(해당작 없음)

■ 은상

- Another Layer.../한양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 최기호,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3년 최혜련
- 백제유적사관계획안/명지대학교 건축학부 4년 문성훈

■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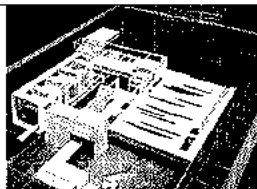
- 한국정치사 갤러리/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김관준·윤종호,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하경우
- Printing, Publishing center/명지대학교 건축학부 4년 김지훈

■ 입선

- 노량진수상시장 계획안/건축사사무소 진이 정승영
- 가회동 축가의 공간/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4년 김영옥·엄지숙
- 길과 연음/국립밀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최명훈·전효찬·조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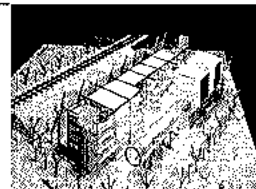
계획부문 은상 / Another Layer



계획부문 은상 / 백제유적사관계획안



계획부문 동상 / 한국정치사 갤러리



계획부문 동상 / Printing and Publishing Center in Mapo

- Essence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계획대학원 장용태
- Sculpting, Painting and making shelter in city-wall /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서동수 · 박주영, 동의대학교 건축학부 3년 류현미
- Re-write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2년 박진아
- 전통건축연구소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박종철, 정세영, 이소영
- Architecture-Eco symbolique /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김용진
- Architecture in baukunst / 이오콘설턴트 건축사사무소 양승봉,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조제훈 · 박경란

심사평

김형우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2000 한국건축문화대상의 계획 건축물 부문의 작품주제인 한국의 텍토닉(Tectonic)은 텍토닉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광의성과 한국이라는 현실에서 적용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관계로 매우 어려운 주제의 해석에 따라 응모자의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한다.

근대건축은 새로운 재료의 물질적인 진실로부터 사유를 통합하지 못하고 현학적인 비 물질화로 예술영역에서 처지하는 고유성을 상실함으로써, 이념이나 미학적인 개념의 표현 도구로 관념화되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근 건축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로서, 건축을 물리적인 실체로 인식하려는 구축(構築:Tektonik, Tectonic)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증폭되었다.

Masco Frascari는 구축의 의미체계와 관련하여 2가지 단계를 순수한 구축적 의미(Constructing detail/ meaning)로서 재료 및 구조의 진실성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Constructing meaning)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축은 물질을 기반으로 그것의 구축행위를 통해 형성되며, 구축의 의미는 물질과 물리적 실재인 결과물로서 건축에서 존재하며, 구축의 형식의 구조적 합리성과 유용성, 재료의 적응성의 발전과 관습적 기술의 진전

을 통해 다듬어진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구축의 형식 속에 물질에 대한 태도, 기술에 대한 인식, 전통적 전형에 대한 해석 등에 합입된 건축가의 정신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논의와 탐구는 정신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체득되는 감각을 정신과 일체화시킨다. 최근의 텍토닉에 대한 많은 논의는 건축의 실재에 내재된 고유한 가치보다는 건축 외적인 요소인 예술, 철학, 이념, 미디어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건축의 그 개념적인 사유에 종속되어 건축의 본질적인 실체로부터 유리되어 현실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됨으로서, 건축의 전통적 가치와 물리적 실존성에 대한 부정에서 배제되는 무력감은 실제적이며 구축적인 건축 작업을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개념'으로 담론화 시킴으로서 현대 건축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자각을 환기하였다. 이러한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건축이 사그나 이념의 산물이라는 관념론적인 관점을 지양하고, 건축이 사회 및 문화현상을 포함한 인간의 삶을 수용하는 물리적 구축체라는 실재론적 관점에서 물리적 실체로서 건축을 구성하는 주 요소인 재료와 구축의 형식을 건축의 주된 논의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전의 계획건축부문의 주제로서 "한국의 텍토닉"이 지니는 비평적 인식과 관심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의 상황에서 건축과 기술의 적절한 관계로서

- (1) 구조, 재료, 환경, 건설공법, 설계기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
- (2) 기술적 고려가 건축적인 잠인 형태미, 공간감, 거주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며,
- (3) 기술적 내용이 형태나 건축에 종속적인 사용을 피하고 건축적 내용과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 (4) 건축이 세워지는 도시의 장소성과 맥락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 (5) 우리의 시대에 적용 가능하며, 적절한 기술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표현하여 설계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다.

지난해에 본 건축전이 개최되지 않았던 관계로 응모자가 충분하게 본 건축 주제를 단기간에 해석하여 준비하는 것은 미흡하였다.

심사위원회는 계획건축물부문의 건축주제와 심사

관련 것을 논의하였으며, 출품작이 26작품이므로 심사위원들이 충분하고, 상세하게 응모작의 주제와 해석과 기술의 적응성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심사의 과정은 1차로 심사위원 7인의 과반수인 4인 이상으로부터 부표(副票)를 받은 10작품을 탈락시켰으며, 2차로 4표를 받은 작품 중 3작품을 탈락시켜 입상권에 오른 과반수의 작품인 13작품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키로 하였다. 5작품을 수상권에 추천키로 하여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득표를 한 4개의 작품을 선정할 후, 먼저 동상으로 추천한 2작품을 결정하였고, 작품의 주제 반영, 표현 등에 대해 많은 토론을 가졌다. 심사위원들은 주제를 충분하게 반영하면서도 심사위원들로부터 각자의 심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여 표결보다는 합의를 끌어내도록 하였다.

뛰어난 표현력과 설득력이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데는 주저하였다. 은상이상에 오른 두 작품의 커다란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택주제의 충실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2작품을 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대상수상작은 이번 "한국 건축문화 대상전"에서 선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은상에는 Another Layer(한양대 대학원, 송남대)와 백제 유적사관 계획안(명지대)을 동상에는 한국 정치사 갤러리(인하대 대학원, 학부) printing, publishing center(명지대)입선에는 노랑진 수상시장 계획안 외에 8작품을 선정하였다.

은상에 선정된 Another Layer는 2개의 Passage Route를 Twisting하여 보행자의 통로와 상업공간과 휴게공간을 혼으로 설정하여, 구조체가 공간 설정과 일치하면서도 유연하게 보행자의 진입과 관통이 유기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였다. 홍익대 입구에서 당인리 발전소로 이르는 구 철길줄 대상으로 설계하였으나, 주변의 맥락적인 관점과 제반의 건축적인 해결에는 미흡하였다.

백제 유적사관 계획안은 최근 용출토성 주변의 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백제 유적이 노출되어 건설에 물의를 빚고 있는 시사성이 있는 계획안으로 유적지 상부에 거대구조의 박물관을 건립하면서도 띄워진 구조체 내에 전시관람 통로를 만들고 틈을 이용하여 채광 등을 해결한 것은 매우 우수한 구조적 설정이었으나, 본 전시주제에 적합한 출품작인가에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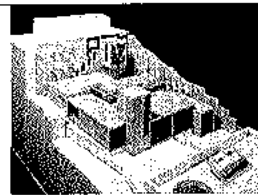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 노랑진수신시장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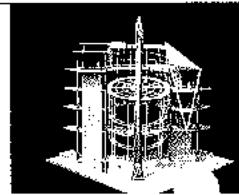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 가회동 측각의 공간



계획부문 입선 / 길과 연을



계획부문 입선 / Architecture in baukunst



계획부문 입선 / Architecture-Eco symbolique

동상에 선정된 한국정차사 갤러리는 가회동 윤보선 씨가 주변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이 지역이 물지각 한 다기구조 주변 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역사적인 장소성에 부합되는 건축물의 제안을 참신하고 그 표현력도 뛰어났으나, 구조적 관점과 공간과의 통합성 어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Printing Publishing Center는 마포의 철길 주변에 세워진 건축물로서 출판, 인쇄, 정보 및 전시를 High Tech한 건축디자인으로 해결한 평범한 건축적 제안이었다. 텍토닉한 관점보다는 기술에 차우쳐진 계획인이었다.

입선에 오른 대부분의 작품들이 본 전시회를 위해 준비되었다기보다는 작품의 진행중 본 전시 주제에 어느 정도 맞춰 출품한 것에는, 전시 개최의 일정과 공모 주제의 홍보에 대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심사위원회는 건의를 드린다.

한국건축문화대상전의 본연의 특징들이 뚜렷하게 부각되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전시회의 준비에 애쓰신 실무 진행위원과 심사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에게 제심 감사드리며, 한국건축문화대상전의 발전을 기원한다.

참인선 / (주)인우건축사사무소

건축적 이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단순한 도구의 개념으로서의 기술(Technology)과 건축의 방식과 재료의 실재성이 건축 표현의 핵심적 요소가 되게하려는 텍토닉(Tectonics)과는 엄연한 구별이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종종 양자를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건축 공간과 형태를 가능케하거나 심지어는 창조해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발달한 컴퓨터 기술은 매우 지능적이고 비정형적인 건축형태를 설계-시공하는 것을 가능케할 뿐더러 작가가 예기치 못한 공간 및 형태를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근대건축의 특징적 공간인 큐비 스페이스의 발생기제를 여러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었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근대적 건축 재료인 철과 철근 콘크리트라는 강한 재료와 공법에 의해 직교형 입체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약한 재료인 돌이나 목재 등으로 구축된 건축에서는 구조적 논리가 건축의 내용을 규정한다면 강한 재료는 구조의 논리로부터 건축을 해방시킨다. 이로써 건축은 무한한 자유를

얻은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은 더욱 추상화되고 비실재화되는 길을 걸었다. 말하자면 당초부터 텍토닉했던 건축은 이제 건축의 영역과 기술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기술은 건축의 수단 내지는 도구로 바뀐 것이다.

근래에 텍토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이러한 근대건축의 모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많은 논의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날로 분부하게 발달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인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이테크 건축이라는 한편에서는 기술을 메타포로 사용하여 기계적 이미지를 건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해체주의를 표방하는 일군의 작가들은 분명 첨단 기술은 자신들의 건축 생산의 도구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성'이 나타난다고 보다는 '생성'이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듯이 보인다. 이미 이 이것은 건축과 기술과의 당사간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개입하고 있는 체제 혹은 발주자측과의 이해관계가 주요 변수가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로 '텍토닉'을 정함에 있어 굳이 '한국적'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까닭도 이러한 연유이다. 즉 건축과 기술의 재통합을 지향한다는 의미로서의 '텍토닉'이 주제가 되었다면 당초부터 체제 지향적일 수 밖에 없는 기술의 속성상 지금, 이곳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모전의 출품작들의 면면은 바로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건축에 통합되지 못한채 테크놀로지과 건축의 내용이 병렬되어있는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띄었으며, 설사 상당히 통합에 접근하고 있는 작품에서조차 '한국적'이라는 과제를 충분히 소화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결국 이 주제가 아직은 가상 건축계에서조차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징표라 할 수 있겠다.

동상 이상의 수상작에 국한하여 평을 하자면 금상을 수상할만한 작품을 찾지 못한 결과가 말해주듯이 주제의식의 명확성, 작품의 완성도 등에서 흠족할만한 작품은 보이지 않았다.

Another Layer는 일괄재개발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overhanging structure를 도입

하려 한 시도, 구조물의 특성 상, 기둥을 최소화해야 했으므로 이 문제를 pre-torsional 공법을 사용하여 해결하려한 기술적 시도 등은 높이 평가할만 했으나 선형공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약점과 주변 도시 공간 구조와의 연관문제 등을 해결함에 있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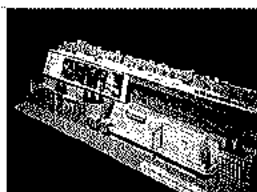
백제 유적사관 계획안은 매우 사의적인 주제이고 건축적인 완성도도 상당히 돋보이며, 특히 발굴터를 경험하는 방식을 떠있는 슬라브라는 장치를 사용하기로 한 점 등이 점수를 얻었으나 거꾸로 이 떠있게 하는 구조방안은 주제에 부합하는 요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흠족사항이 되었다.

동상으로 선정된 한국 정차사 갤러리와 printing, publishing center 역시 주제 의식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술적 요소가 건축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나름대로 차별성있는 주제와 건축 구성을 이루어낸 점 등이 평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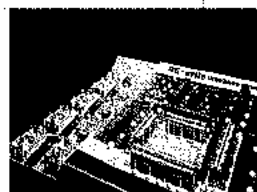
다소 생소하고 난해한 주제이며 준비기간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품작의 양적 질적 수준은 주최측 및 심사위원들의 기대에 썩 부합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한 건축사회의 의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훌륭한 여러 예비 건축가들의 열의와 노력이 향후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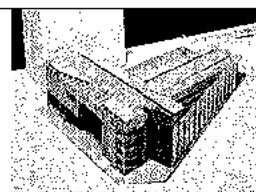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 Essence



계획부문 입선 / Sculpting, Painting and making shelter in city-wall



계획부문 입선 / Re-write



계획부문 입선 / 전통건축연구소

교원그룹연수원

게스트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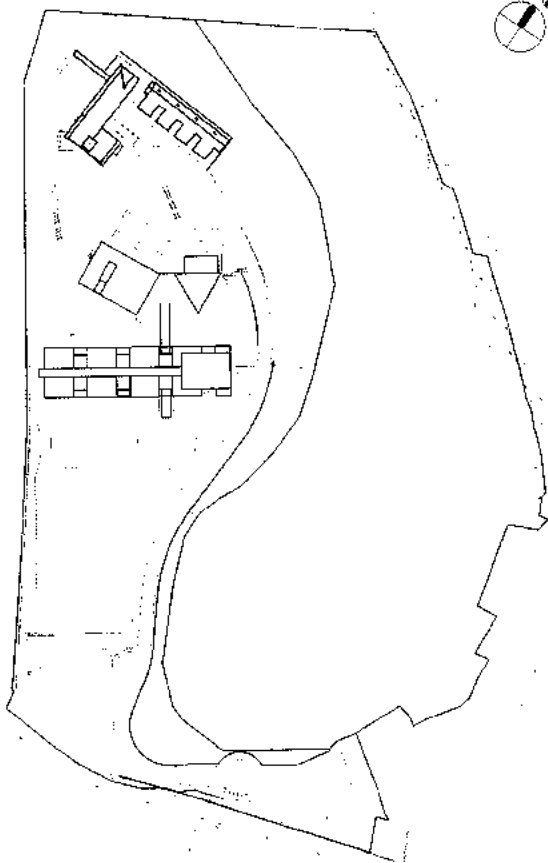
Guest House Kyowon Group Training Center

설계자 / (주)솔로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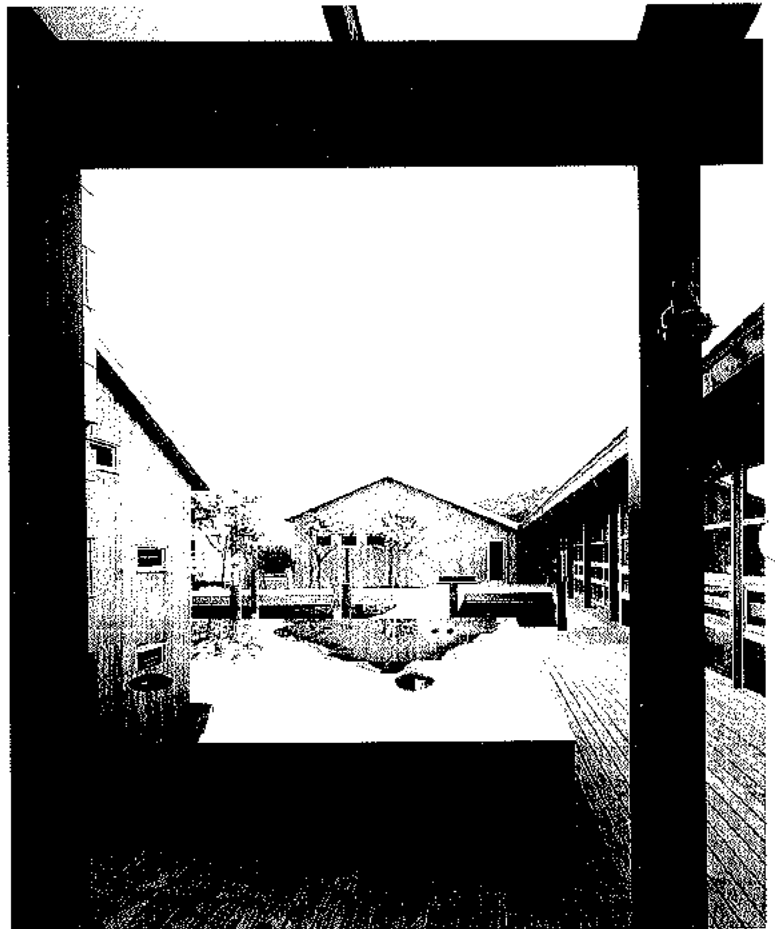
시공자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건축주 / (주)공문교육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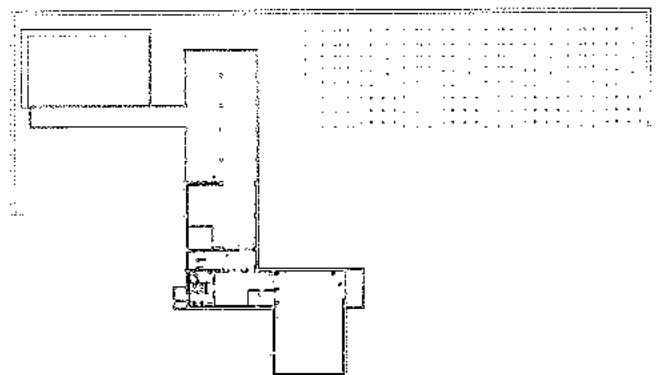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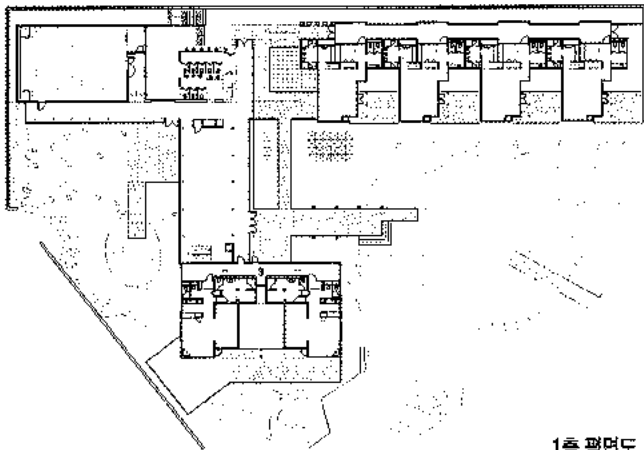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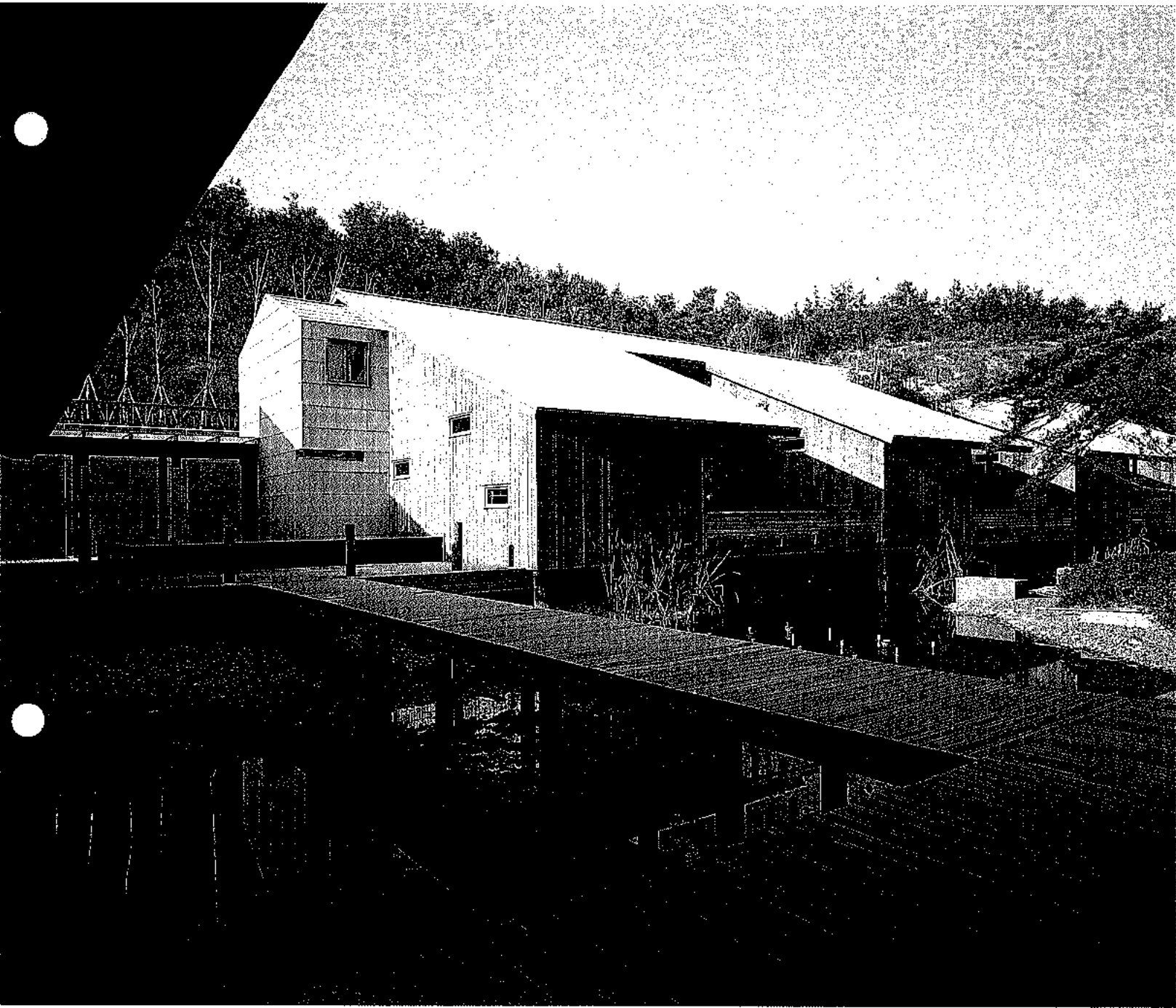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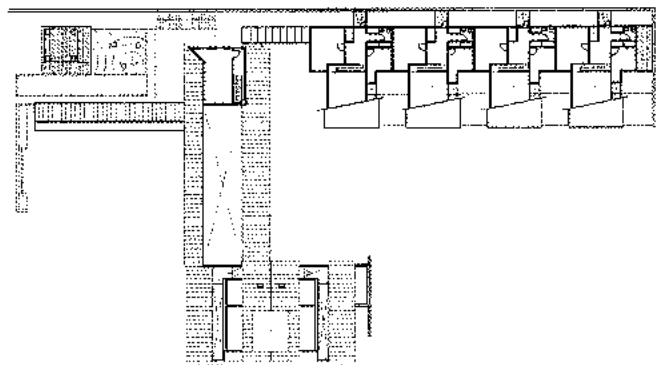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산 73-1 외 9필지
지역지구	준도시지역
대지면적	76,849.0㎡
건축면적	1,233.0㎡
연면적	1,838.1㎡
조경면적	25,775.3㎡
건폐율	3.16%
용적률	3.96%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목구조 + 일부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Cedar, Zinc, 노출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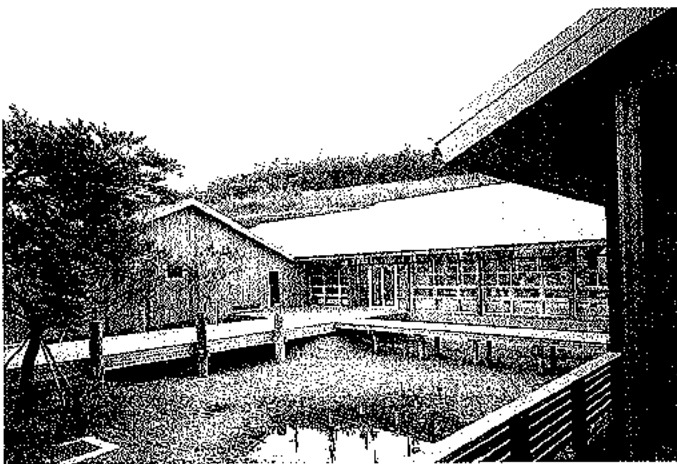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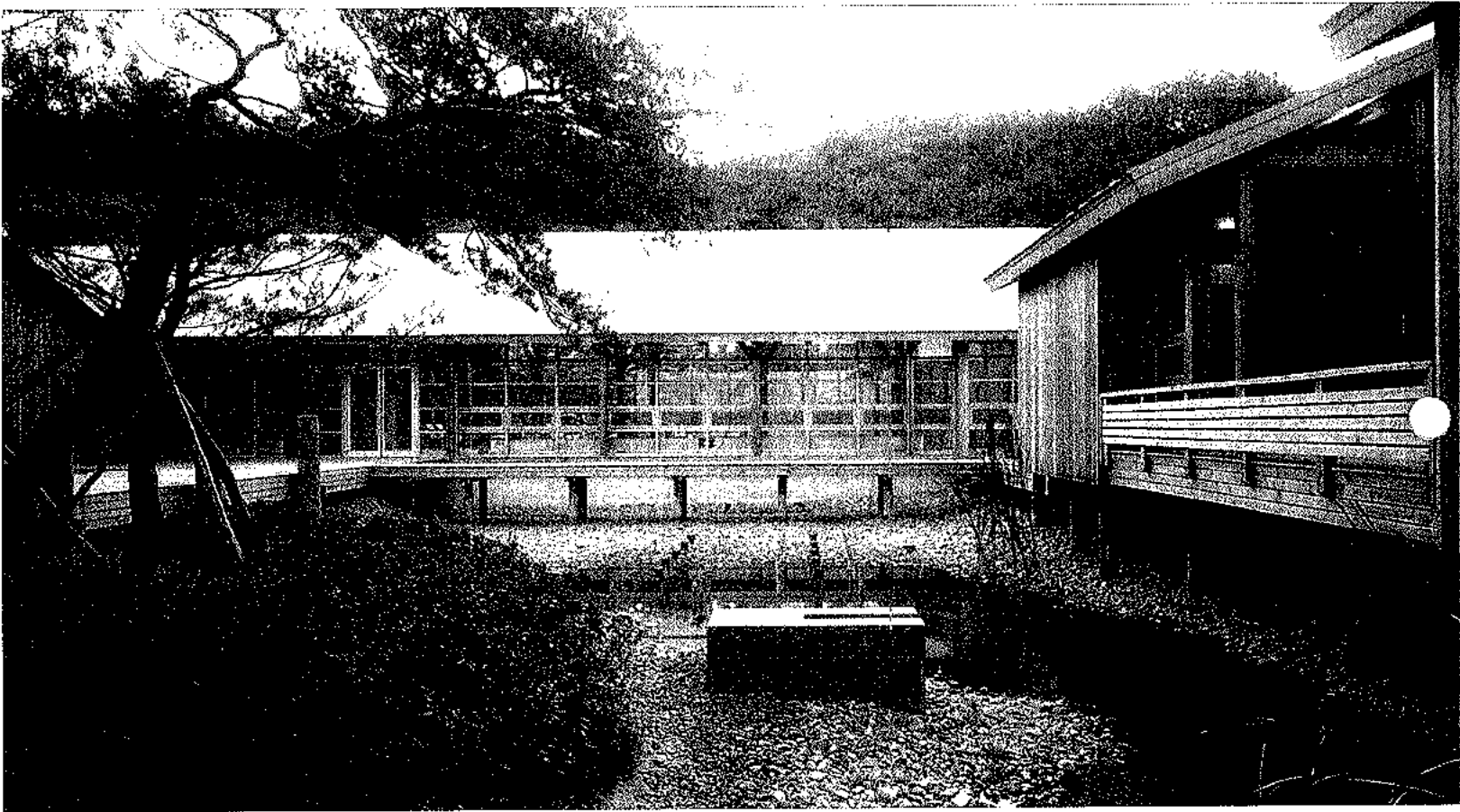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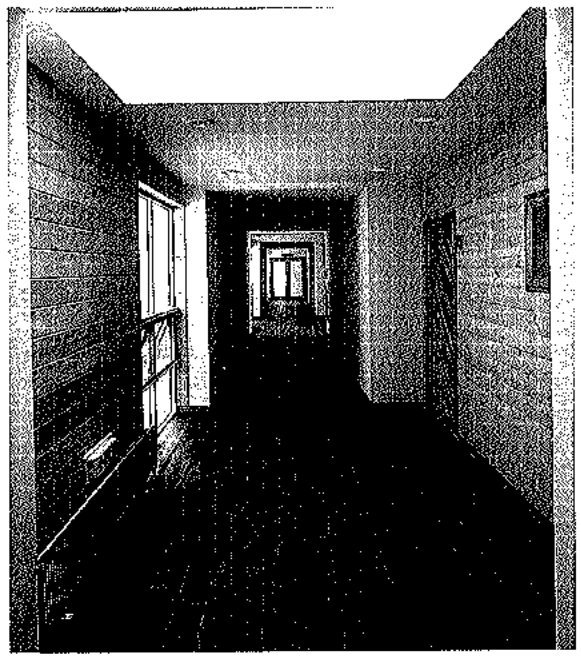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프로그램

Guest House는 연수원 부지내 시설로서 다목적 기능을 갖는다. 본래는 5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휴양시설 만으로는 부담스러운 규모였다. 연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의 연수기능도 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을 별도로 두게 두었다. 연수용도로 쓰일 때 각 기능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만, 휴양시즌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Guest House는 각 단위의 분할과 통합이 중요한 과제였다.



나무

나무라는 보편적인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온 환경에 그 특유의 따뜻함과 특성을 불러넣으면서 자연환경과 연결고리가 되었다. 이 같은 교류력은 맥락에 따라 여러가지 함축성을 지니게 된다. Guest House에서는 인위적 환경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교류하는데 매개적 역할을 담당한다. 건축에서 나무의 진화적 과정을 볼 때, 환경에 대한 관심과 과학기술의 성과와 결합하면서 현대건축에서 주요 재료의 위치를 회복하고 있다.

나무의 정원

라운지가 있는 위치는 초기 계획안에서는 목재 Deck 위에 좋은 수형의 활엽수를 군식할 계획이었으나 서로 다른 기능들을 통합하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공업화 목재인 Glulam을 철물로 결합시켜 나무의 형상(Tree Structure)으로 만들어, 초기 개념에 따라 추상화된 나무의 정원을 만들었다. 외부공간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전후면을 모두 투명유리 커튼월로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지형에 따라 배치된 장축을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효과도 기대하였다.

수상가옥

전통건축의 루(樓)는 목재기둥과 난간 등의 간단한 장치를 통해 주택의 일상적 장소를 신선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Guest House 숙소는 주택과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일상을 떠나는 휴양객들에게 특별한 기대감을 갖게하는 곳이다. 별도의 휴양지도 아닌 연수원 부지 내에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상징적으로도 영역을 구분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원수원과 7m 높이차이를 두고 수공간과 목제 건식기초 방식으로 물위의 수상가옥을 계획하였다.

웰콤시티 Welcomm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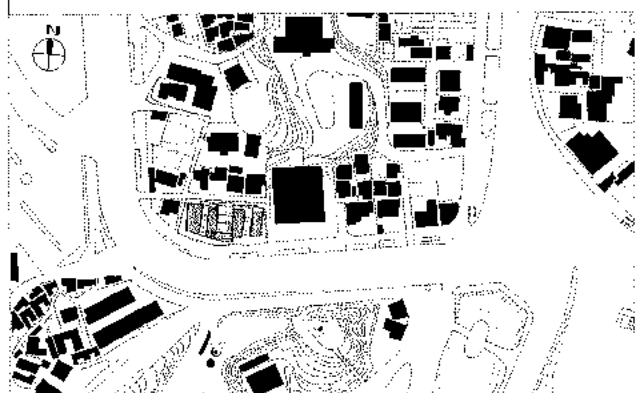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승효상

시공자 / 삼협종합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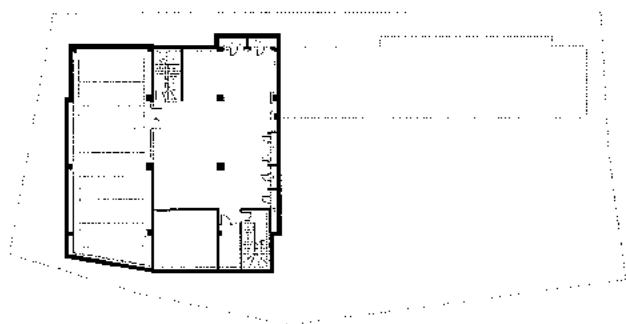
건축주 / (주)웰커뮤니케이션즈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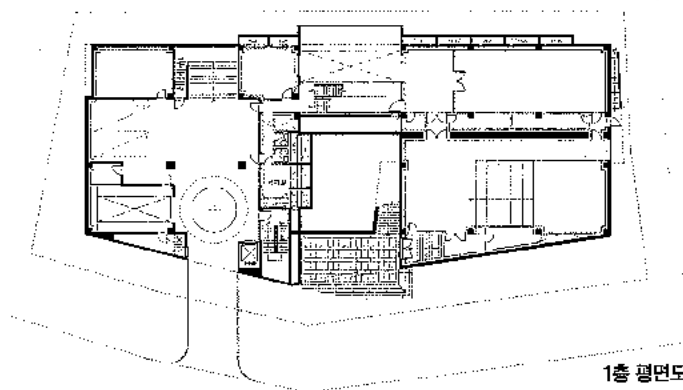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90-10, 12, 13, 15, 17, 18, 20, 191-2, 3, 1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2종미관지구
대지면적	1,253.6㎡
건축면적	745.2㎡
연면적	3,417.1㎡
건폐율	59.4%
용적률	208.0%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마감	노출콘크리트 + THK2.3금속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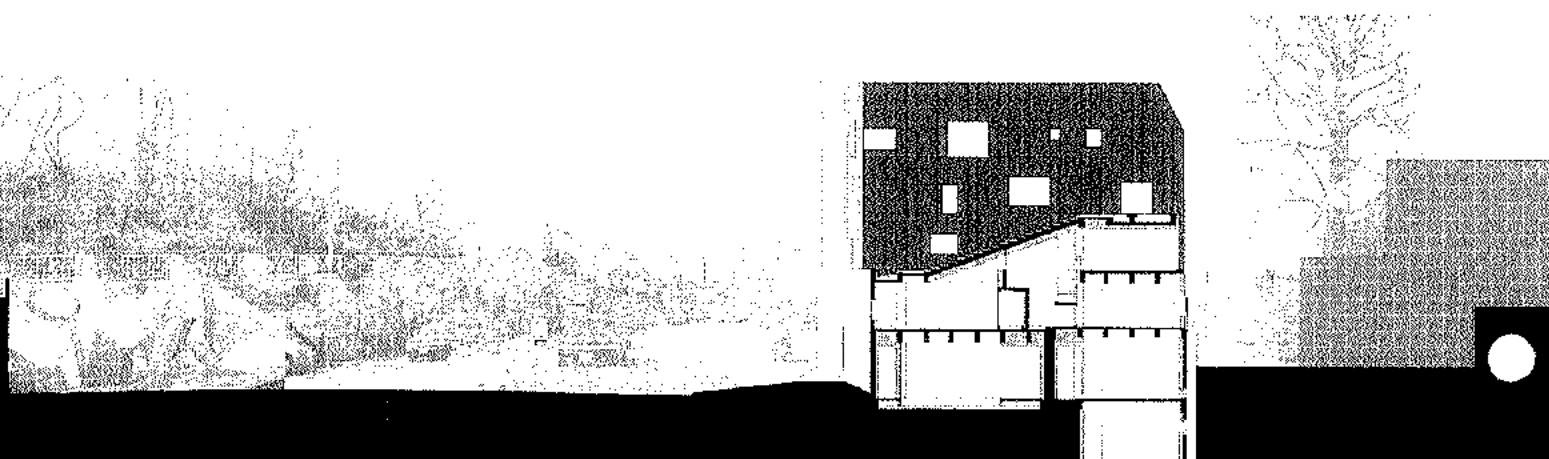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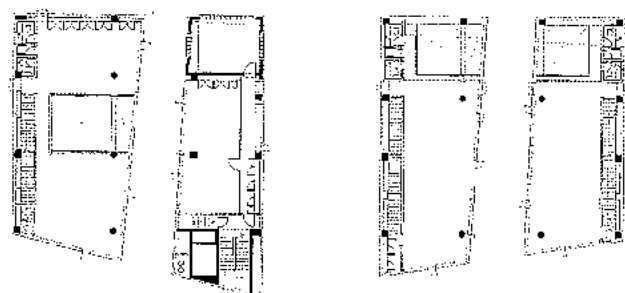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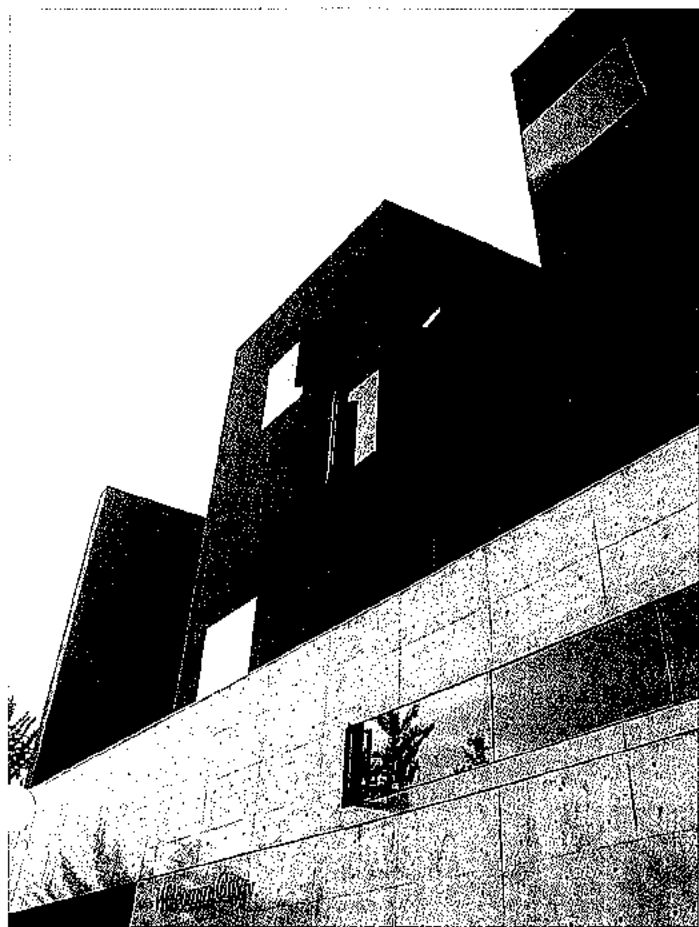


지하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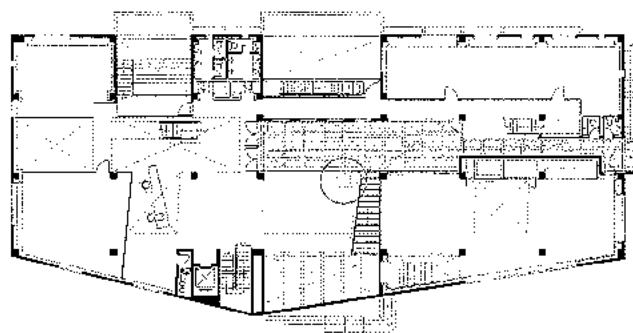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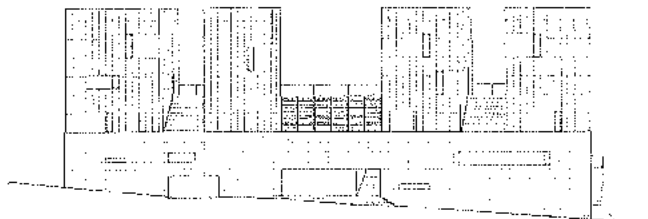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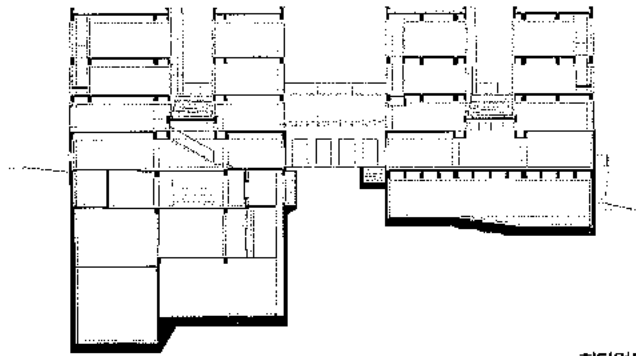
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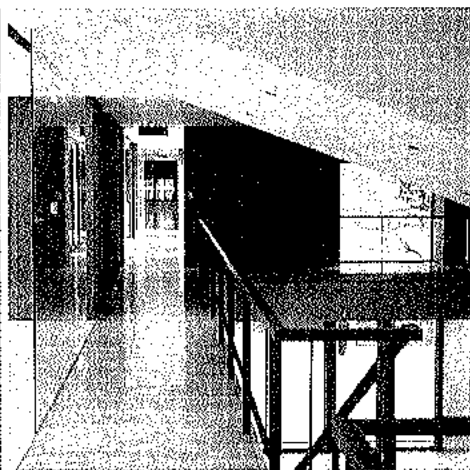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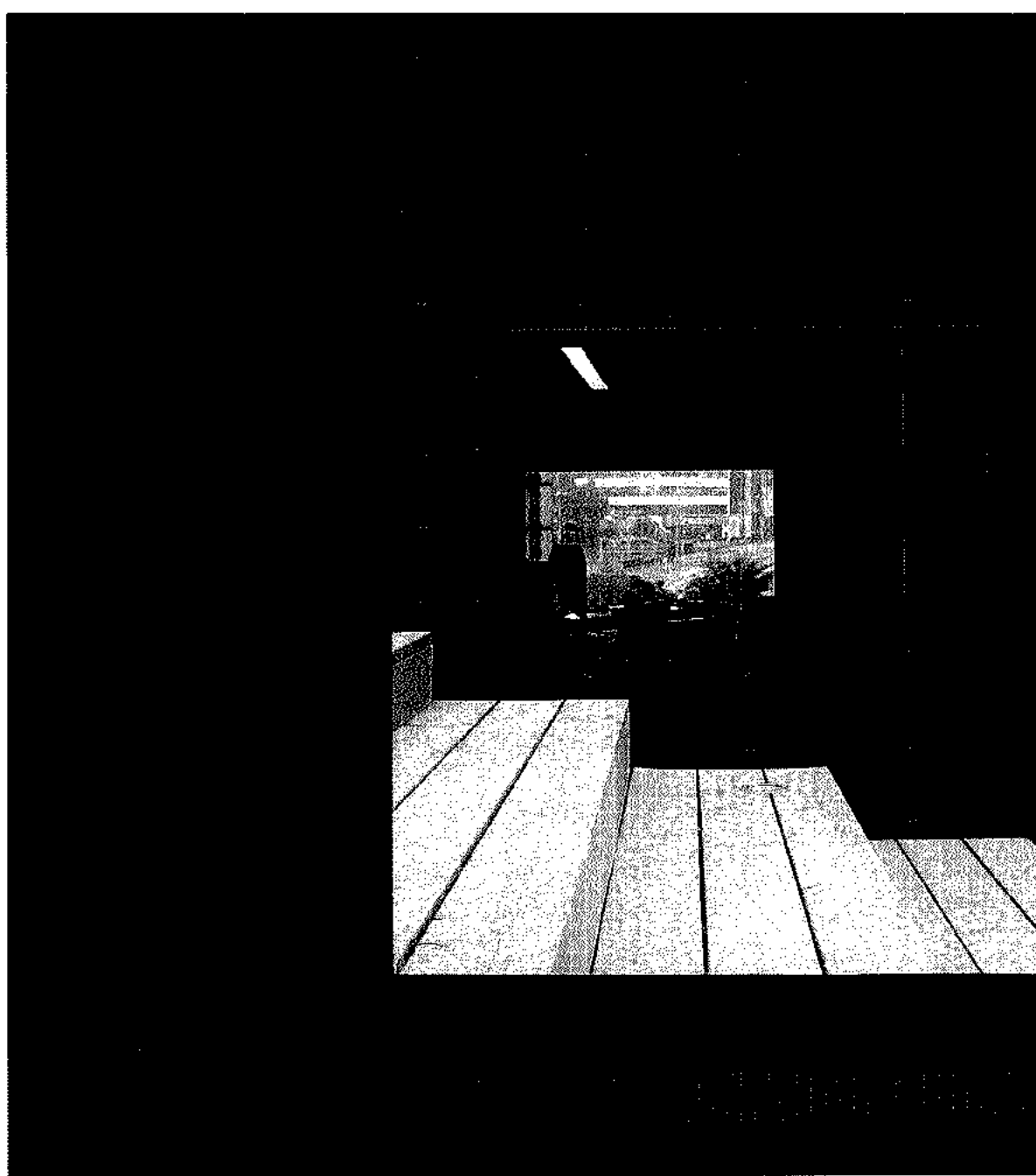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황단면도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Seongdong Welfare Center for Elder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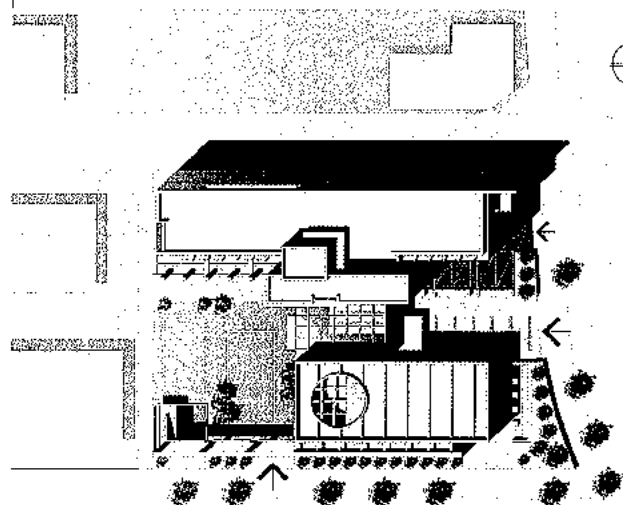
설계자 /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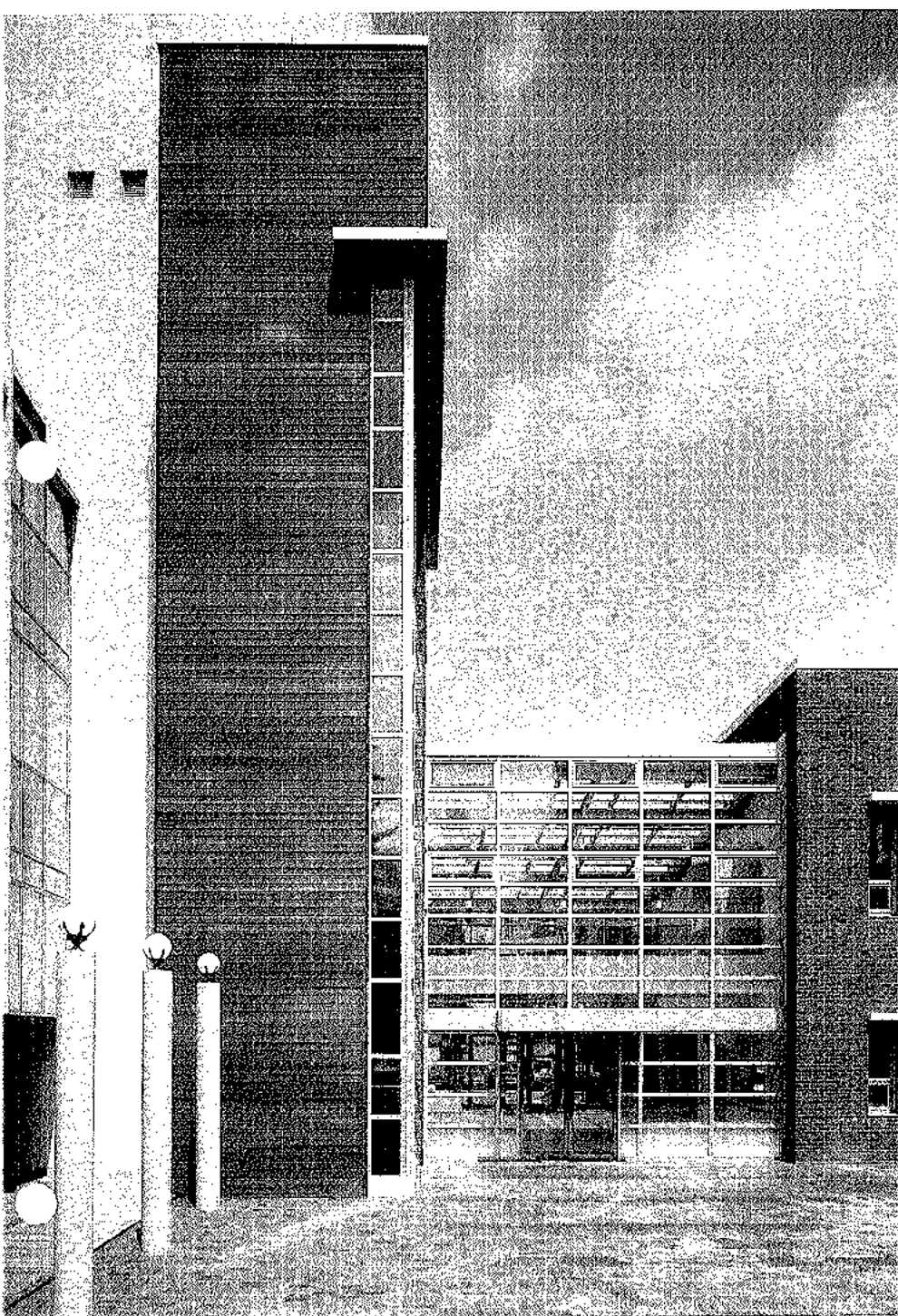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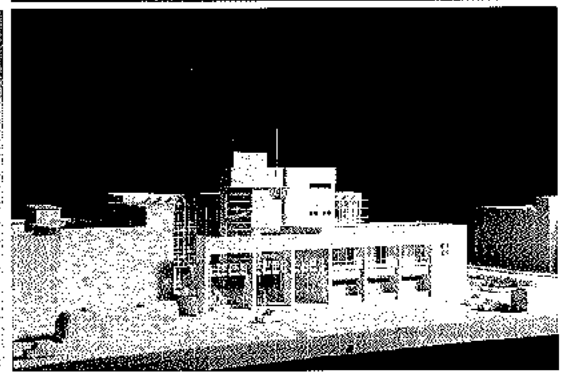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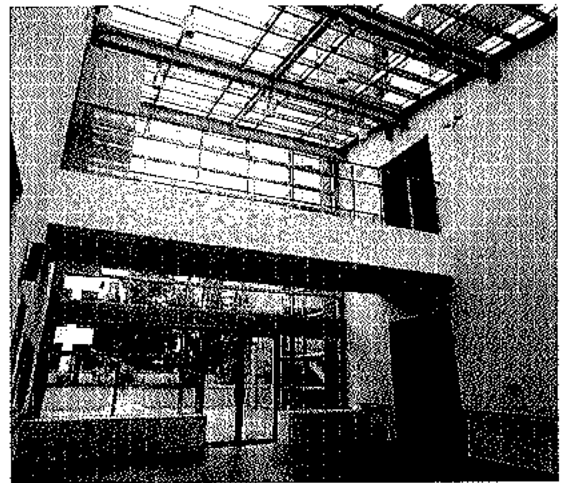
시공자 / 금송종합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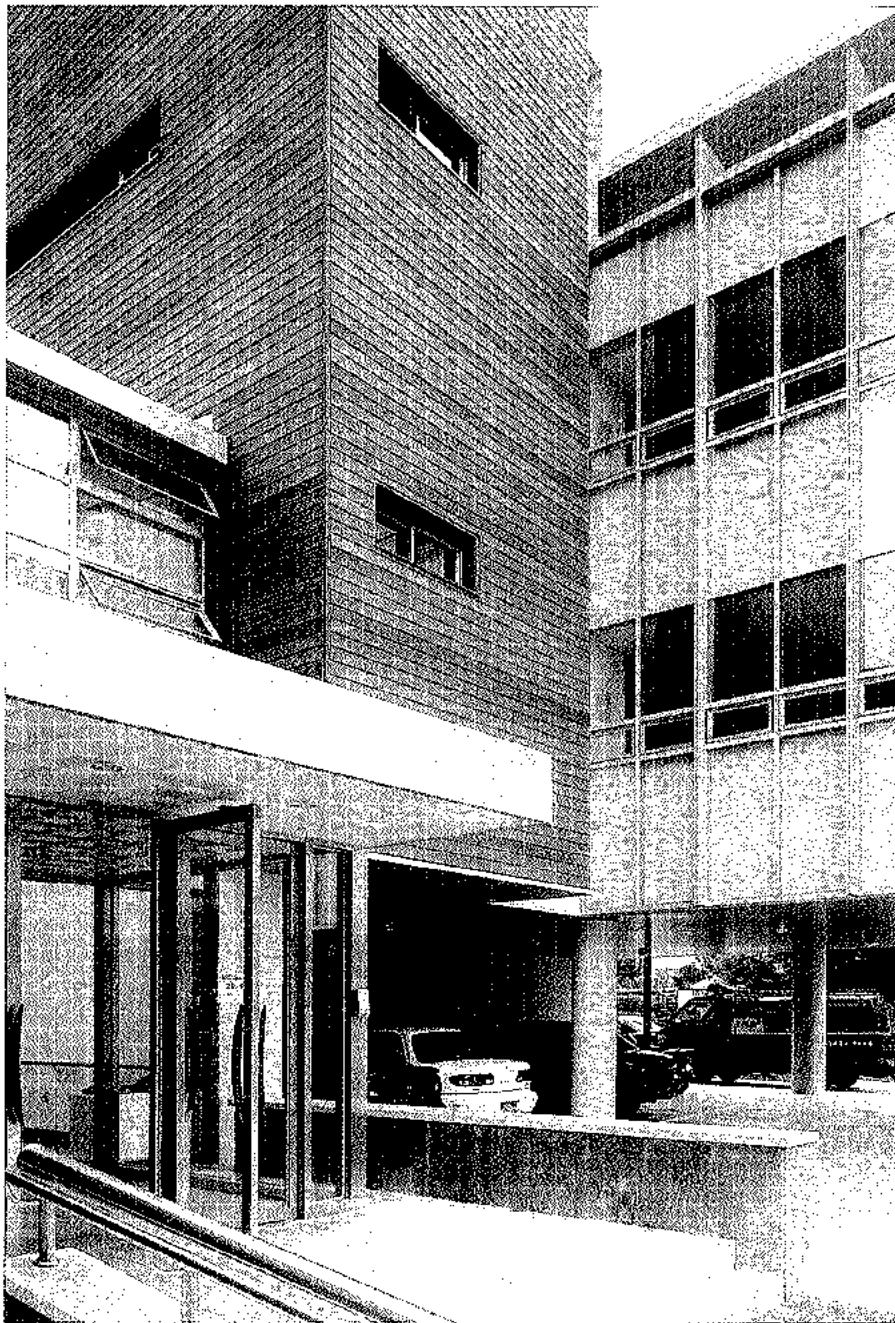
건축주 / 서울특별시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8-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도시철도저촉지역
대지면적	2,062.80㎡
건축면적	658.21㎡
연면적	2,396.63㎡
건폐율	31.90%
용적률	79.07%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마감	내부마감 : 벽 - 수성페인트, 천정 - 암면흡음텍스, 바닥 - 라바타일, 비닐시트 외부마감 : 붉은벽돌치장쌓기, T.18 복층유리, 라왕널들이기
배치도	설계담당
	변정석, 이수용, 전진곤, 이동우, 정은숙







■ 배치계획

- 노인과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런 연계와 분리가 이루어지는 공간계획
- 대지내의 공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우회적인 주진입 유도
- 기능별 영역성의 확보 및 상호연계성 확보(내·외부의 중첩과 관통)
- 노인시설을 고려한 최대한의 인도 및 조망관계를 적용
- 바깥마당을 통한 진입유도
- 안마당·놀이공간, 운동, 휴식을 위한 공간
- 누하진입으로 인한 에워쌈의 공간

■ 평면계획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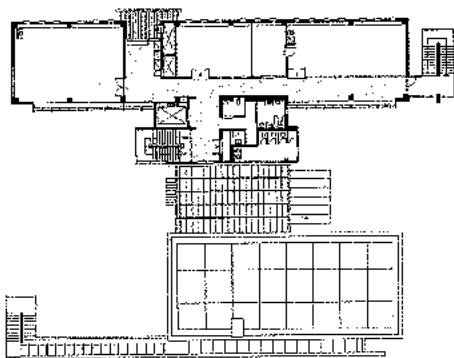
- 기능, 이용 형태에 따른 명확한 공간구분으로 독자성 확보
- 안마당과 로비의 투명성에 의한 일조 및 공간의 시각적 개방감 제공 확보하기 위한 우회적 진입
- 내부공간에서 기둥의 최소화로 가변성을 증대
- 다양한 내부칸막이 설치
- 노인들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중앙코어 계획

1층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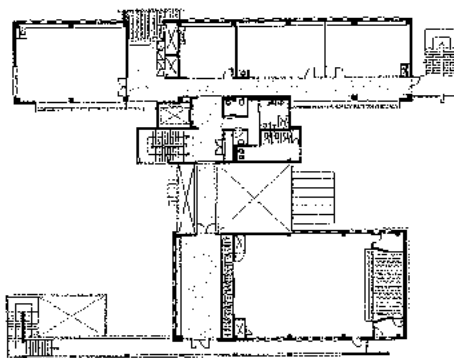
- 기능별 소용실의 배치
- 의료시설과 노인거실과의 분리
- 점진적인 공간이동
- 일조 및 공간의 시각적 개방감 제공

2층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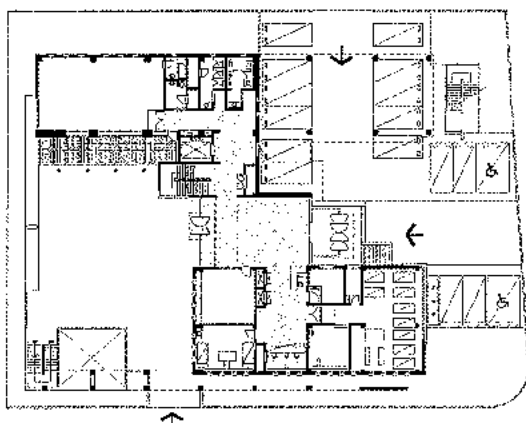
- 노인거실등과 다목적홀 등의 공간분리
- 브릿지를 통한 노인거실과 주민이용시설간의 연결



3층평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영동군 보건소

Young-Dong Health Ca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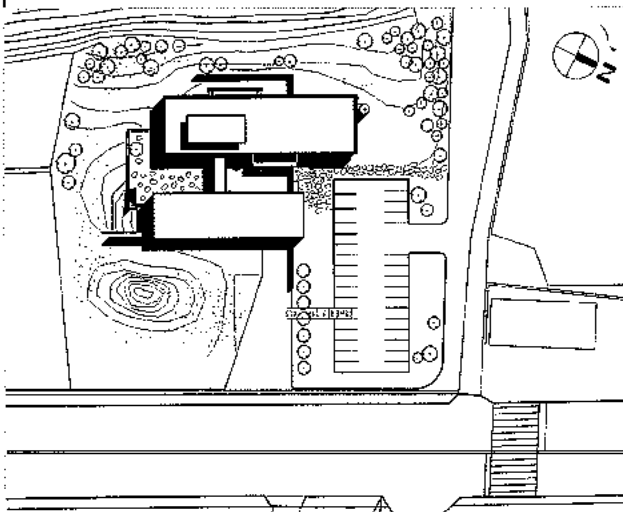
설계자 / (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김승희

시공자 / (주)선업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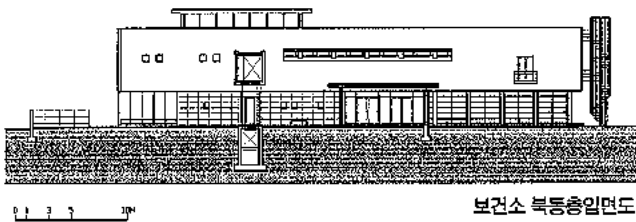
건축주 / 영동군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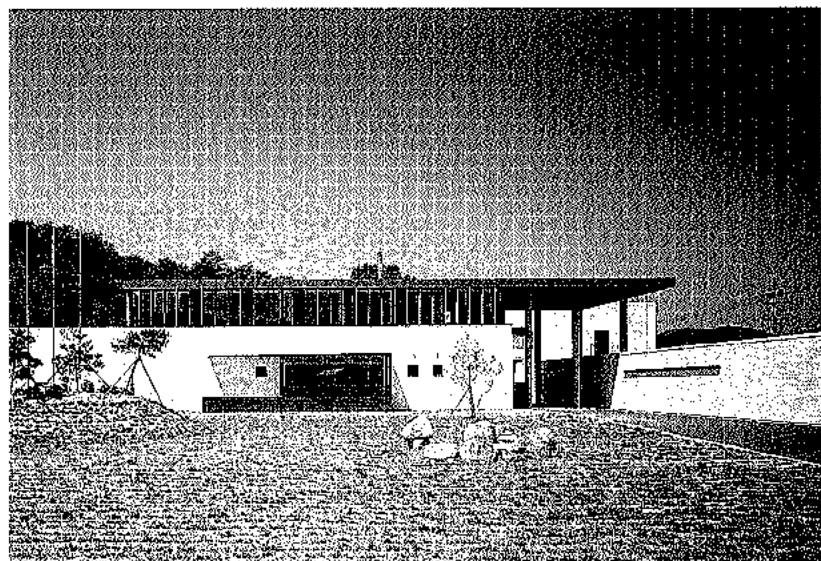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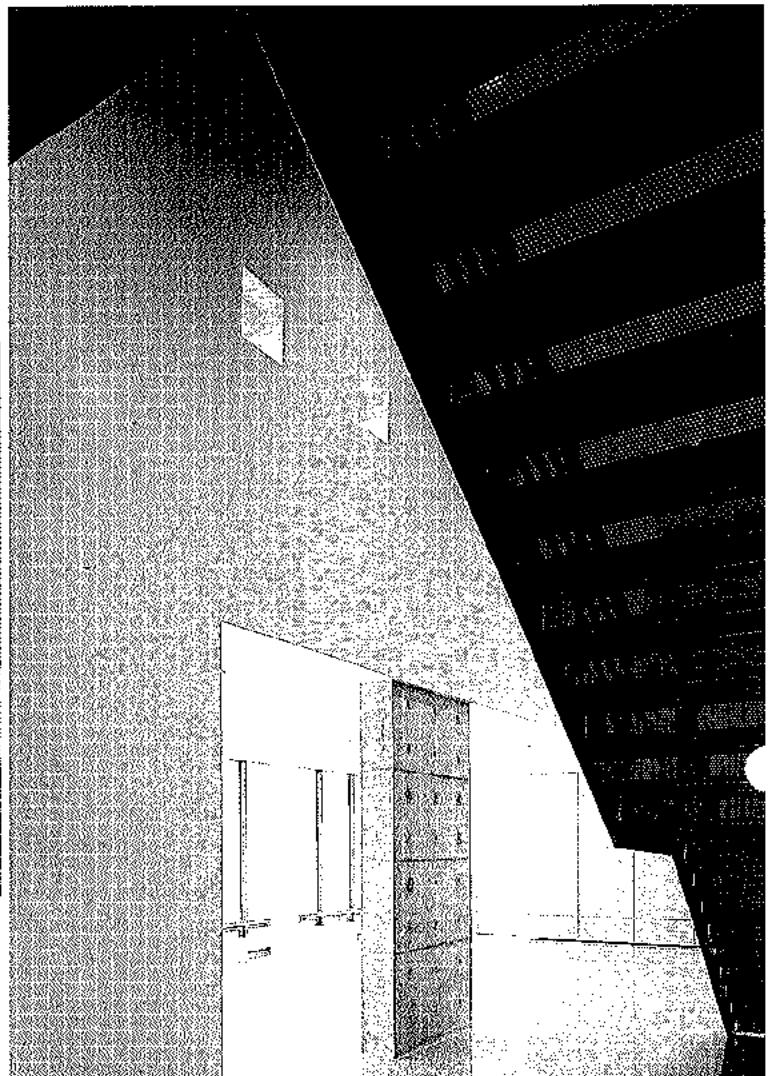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대천리 444-1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5,732.0㎡
건축면적	874.60㎡
연면적	1,534.91㎡
건폐율	15.3%
용적률	23.3%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시멘트 벽돌 위 페인트, 노출콘크리트, 석기질타일, 마천석, 홍송루버 등
내부 마감	석고보드 위 페인트, 오크패널, 노출콘크리트, 마천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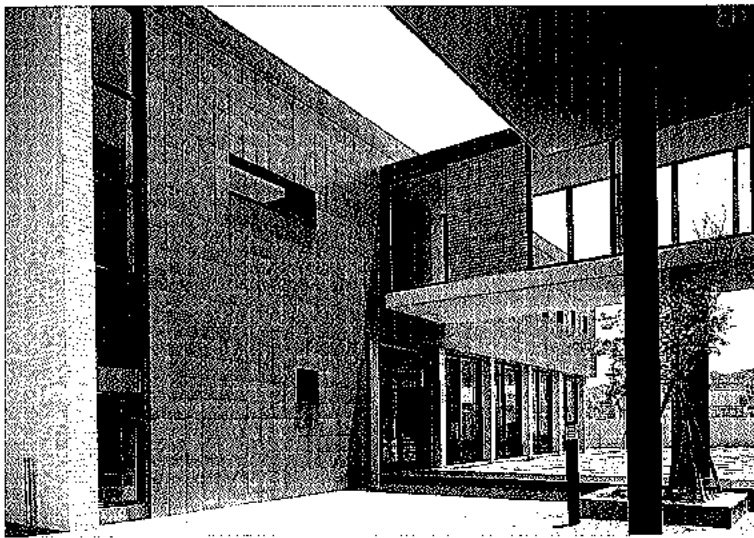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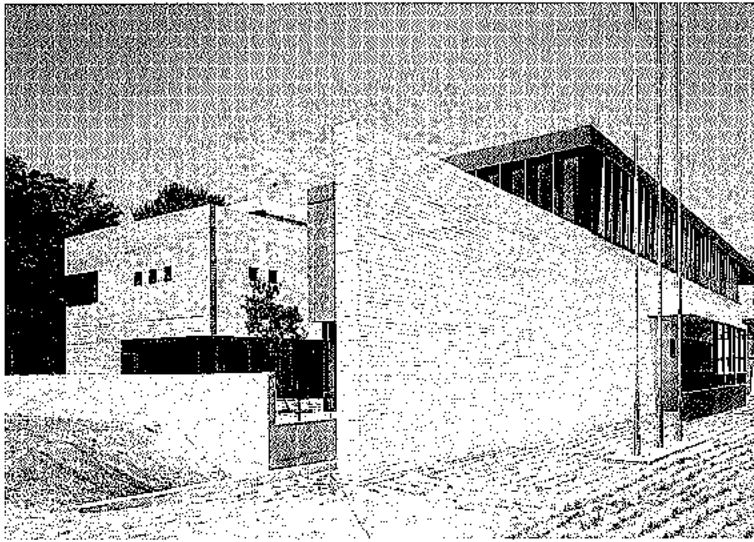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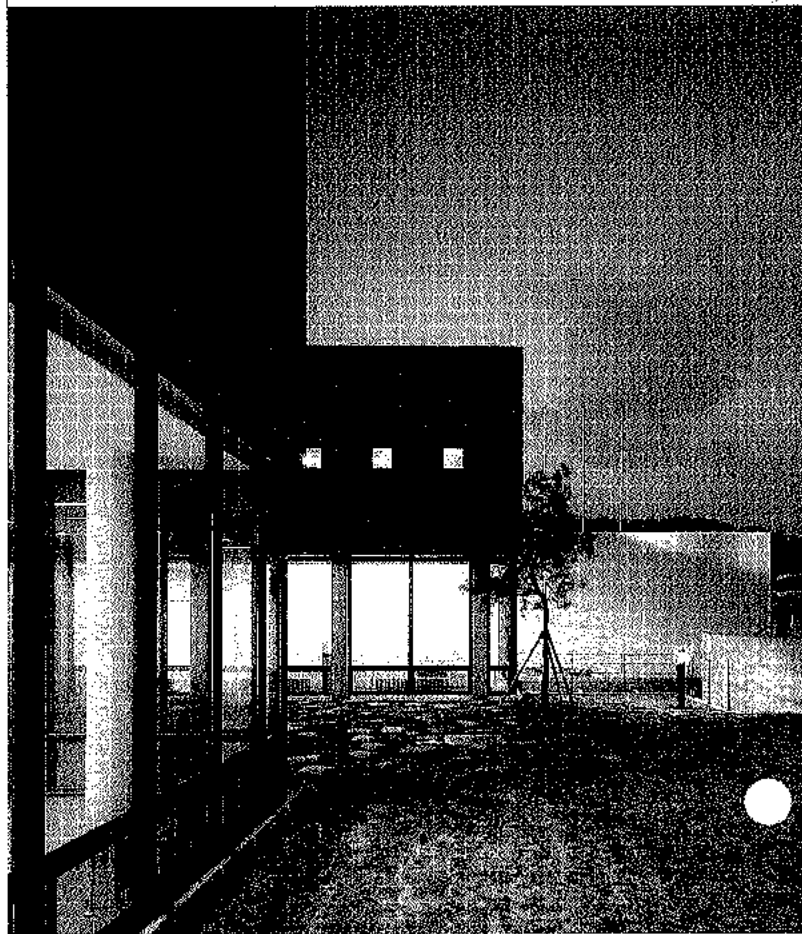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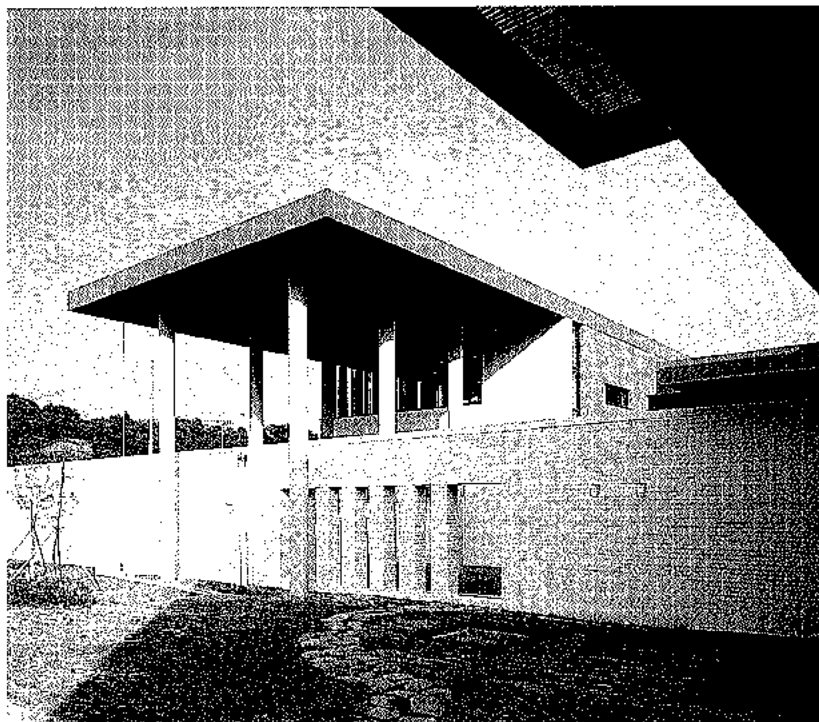
보건소 북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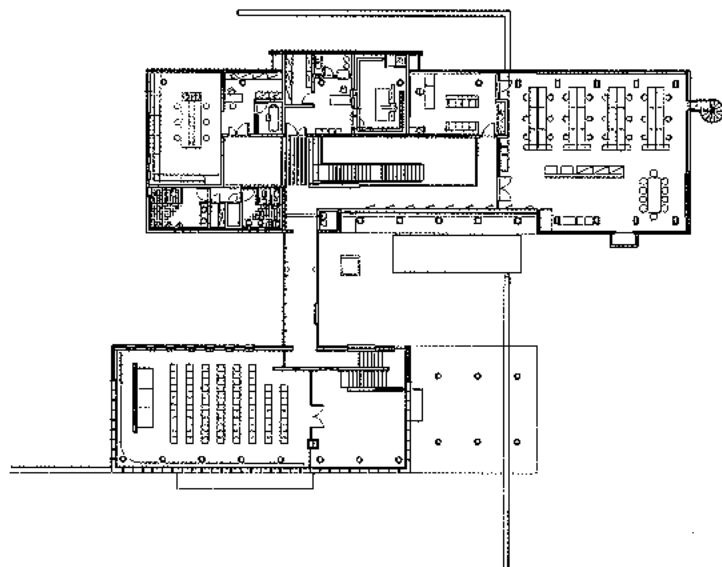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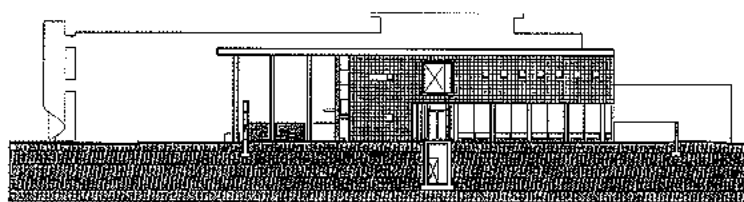
도심에 열려 있으면서도 도시와 구별된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는 패러독스한 과제를 '담'이라는 전통적인 건축장치에 의지해 풀어내었다. <영동보건소>에서는 'L' 형의 세 개의 담(또는 벽)을 통해 영역의 구별과 소통을 함께 성취할 수 있었다. 첫번째 담은 대지의 초입부터 보건소 중심공간 그리고 뒷마당까지 이어지는 담/벽이다. 세 개의 담/벽 중 제1주제에 해당하는 이 담/벽은 전체공간의 제너레이터 역할을 한다. 담을 따라가면서 다양한 공간과 영역이 펼쳐지고, 가장 도시적인 장소에서 가장 조용한 마당까지 이르는 공간의 스펙트럼을 경험하게 된다. 넓게 펼쳐진 대지 입구의 마당과 방문객을 환영하는 2층 높이의 캐노피, 그리고 노인진료센터 입구와 보건소의 입구가 마련된 아담한 중정 등 여러방식으로 정의된 외부공간을 만나게 된다. 주차장과 근린 건물 쪽으로의 시야를 담이 차단하고 있지만 담의 부분적인 오프닝으로 담 저편에 대한 관계맺기의 희망을 소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담을 따라 보건소 현관을 지나면 접수와 대기실을 겸한 주공간을 만나는데 이곳은 2층의 진료지원시설과 행정실, 그리고 1층의 진료공간이 한 눈에 들어오는 열린공간이다. 대기실 남쪽으로 마련된 자그마한 뜰과 담 너머로 보이는 동산의 숲 그늘도 이담을 따라 만나게 되는 즐거움이다. 진입의 흐름을 따라 서 있는 첫번째의 담/벽은 보건소 동 앞에 놓인 노인진료센터의 외벽을 이루는데, 도시에 개방된 마당과는 배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집의 파사드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마당의 배경을 이룬다. 노인진료센터 2층에 있는 집회실은 넓은 전면 마당을 향해 개방된 포트로 담/벽 위로



올라서 모습을 드러내고, 그 개방성은 담 위로 설치된 수직루버에 의해 제어된다. 노인진료센터의 '사람방'은 담/벽에서 돌출되어 마당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담/벽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보건소와 진료센터의 영역을 도시에 개방된 전면 마당과 구별하려는 이 담/벽의 의도는 동쪽으로 뻗은 담의 길이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벽돌이 깔려있는 중정을 지나 보건소와 집회실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통과하면 넓적한 돌이 되는데로 박혀있는 다소 느슨한 마당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마당은 물리치료실과 예방접종실의 앞뜰이자 어린이와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겸하는 곳이다. 이 한가한 마당은 보건소와 노인진료센터에 의해 정의되기로 하지만 동쪽에서 남쪽으로 연속되는 나지막한 담에 의해 완성된다. 세 번째 'L' 자형태의 담/벽은 외부공간의 윤곽선으로 마당을 주변의 풍경과 경계지우는 한편, 지하의 선근기둥으로 공간의 흐름을 인도한다. 각기 다른 의도로 만들어진 세 개의 담/벽은 흰색으로 칠해진 시멘트 벽돌이 주조를 이루는 검소한 장치이지만 담을 따라 다양한 공간의 관계와 풍부한 재료를 경험하게 하는 안내자이기도 한다. "담/벽"에 대한 개념이 집을 생성하게 한 테마이지만 담을 존재하게 하였던 것은 마당에 대한 해석과 공간의 관계방식이다. 담과 그것이 품고 있는 공간은 서로에게 의존적이며, 결과이자 원인이다. 서로 기대며 화음을 만들어내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듯이 공간과 물질이, 담과 마당이, 도시와 자연이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 속에서, 건축의 필연성과 엄숙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글/김승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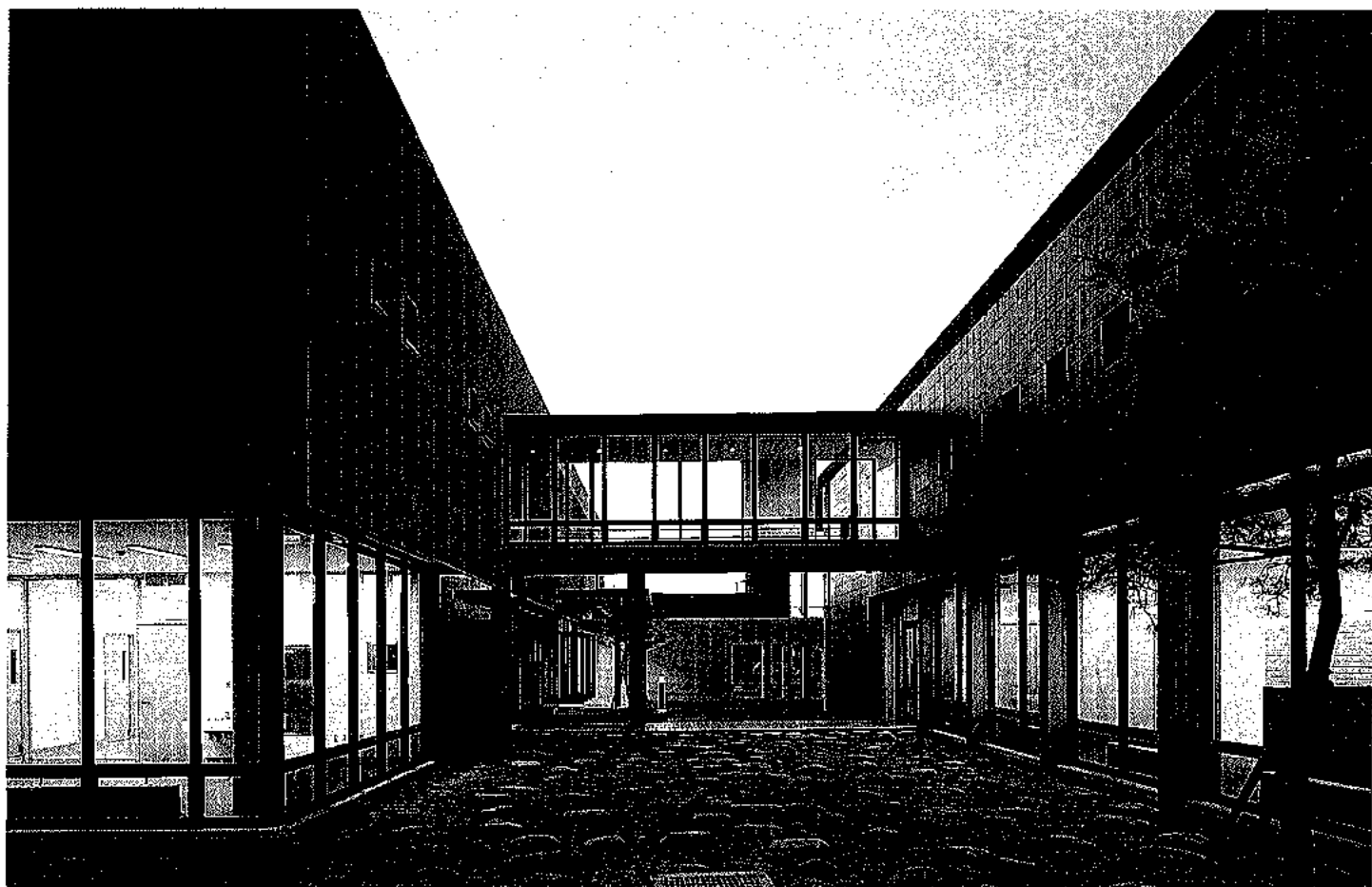


2층평면도



0 1 2 3 4m

노인진료센터 남서측 입면도



서미갤러리

Seomi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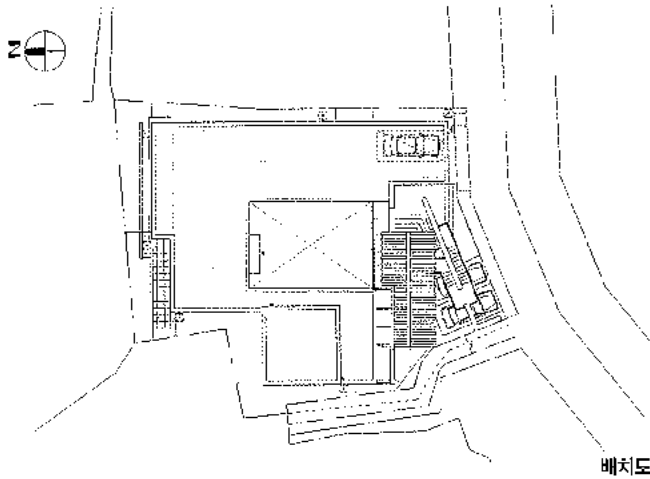
설계자 / (주)테제건축사사무소 유태동

시공자 / 홍송원

건축주 / 홍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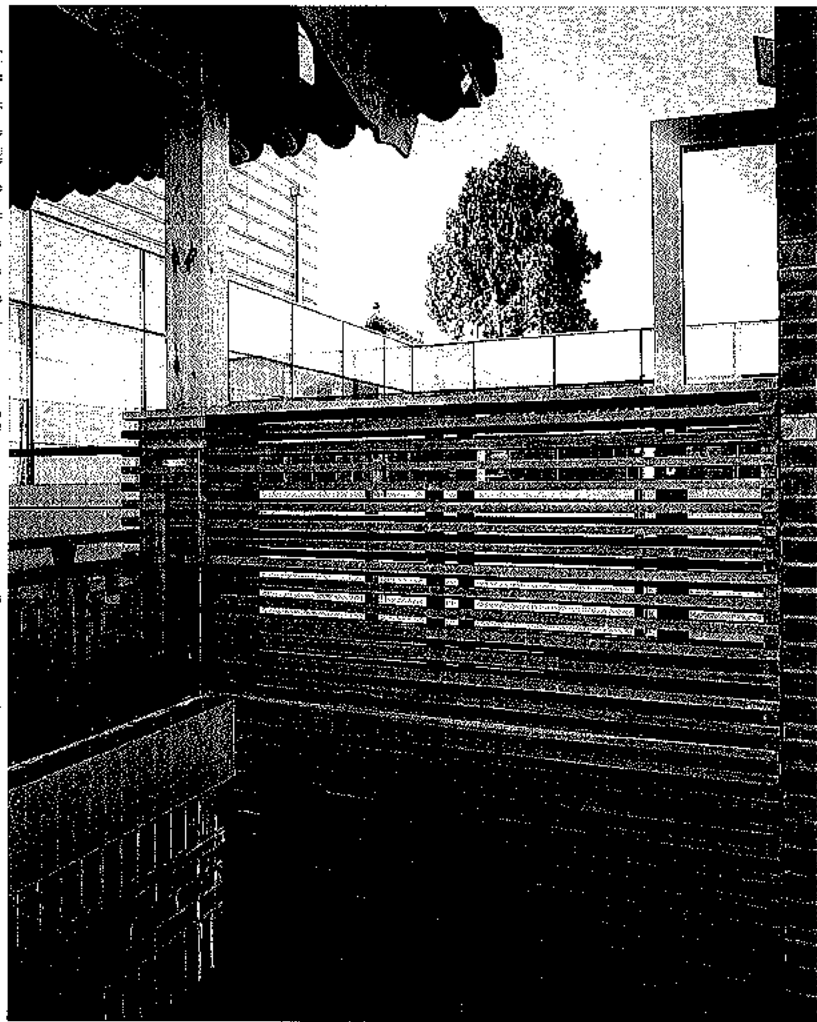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29-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제4종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대지면적	540.2㎡
건축면적	288.97㎡
연면적	526.86㎡
건폐율	53.49%
용적률	97.53%
구조	철골조, 일부 목구조
외부 마감	THK50 베이스 패널, 전벽돌치장쌓기



배치도





가회동은 '덧'이 있는 동네다. 남으로는 인사동, 동으로는 경복궁, 서로는 창경궁, 운현궁 등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며 그 중심에 있다. 그곳에 사는 평범한 아낙네조차도 원지모를 자գ심에 젖게하는 문화의 동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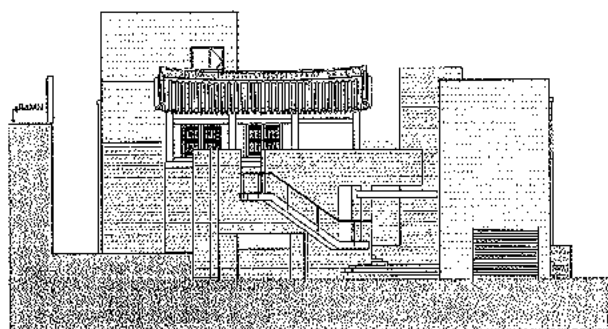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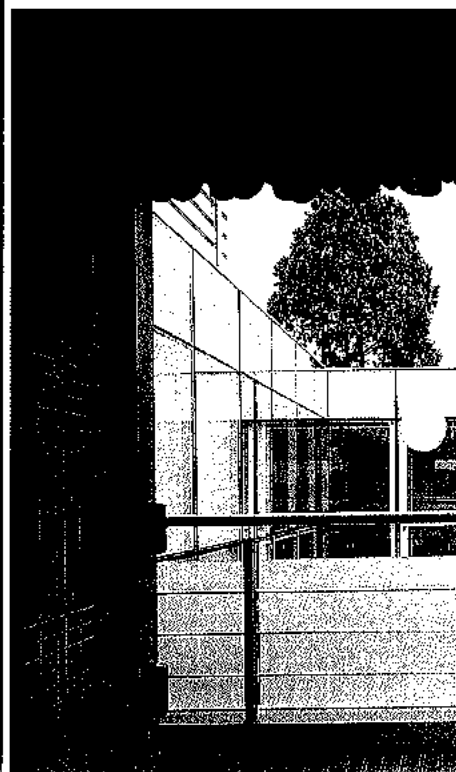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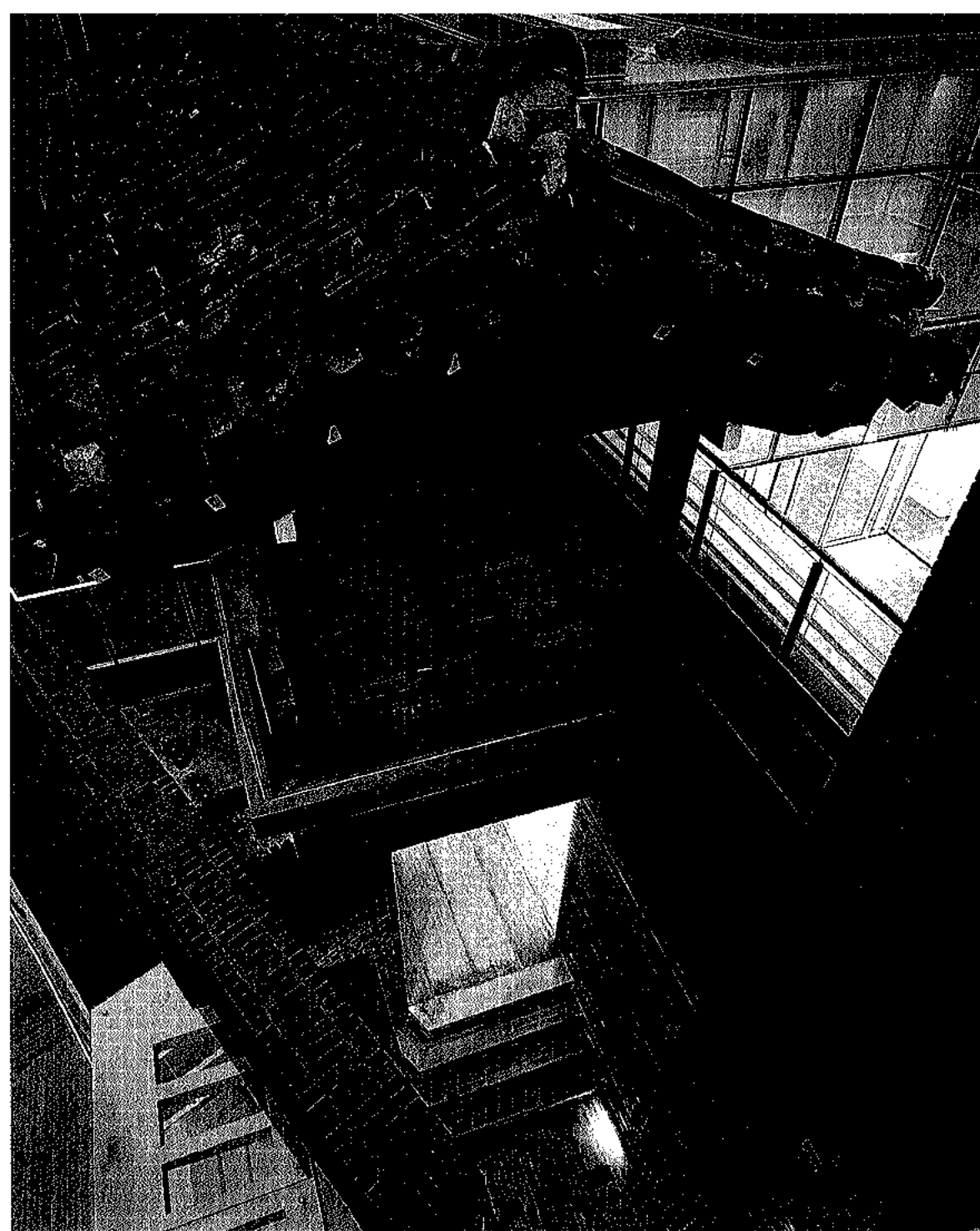
가회동은 '밤'이 있는 동네다.

날로 디지털화되고 주변에 묻혀 하루가 모자라는 동네와는 달리 가회동은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휴식이 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 보이고, 동심자각에서 시작하여 경복궁 담옆으로 즐비한 화랑가 건물들도 이곳에서 더 없이 어울린다. 그래서인지 이런 부류의 공간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작업 공간은 바로 그 화랑가의 끝자락이지만, 시작이 될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가회동 주택 및 전시시설에서 계획의 주요는 비단, 일정 지역에서만 거론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전통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특수 아닌 특수성을 고려해 보편화할 수 있는 나름의 양식을 표현해 내는 것과, 비록 시간이란 연속선상의 한 맥락을 볼 수 있지만, 엄연히 공존하는 전통과 현대라는 상반된 두 개념을 상보적 관계로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주어진 기능에 부합된 절제된 배경으로써의 내부공간 실현 등으로 볼 수 있다. 특수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피상적인 이미지로 전통적인 양식을 사용됨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관협업의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을 끌게 되었고, 결국 미온적 태도보다는 적극적 구현의 수단으로 2층 서재공간을 한옥으로 계획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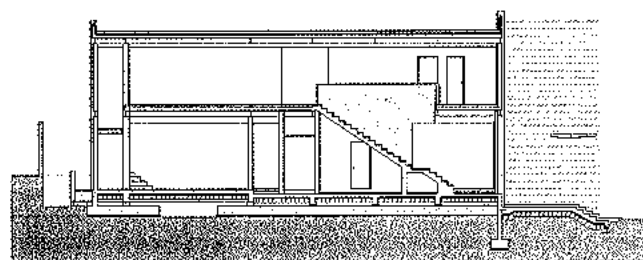
신축전에 이땅에는 작은 마당을 가진 'ㄷ'자형의 한

옥이 있었고, 철거시 계획규모에 적절한 부재를 추려 모아 한옥을 지은 지금에 보면 시간의 벽을 넘어선 재현의 의미를 담으로 갖게 하였다. 전통과 현대라는 상반된 개념의 정리는 공간의 위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전출입동선 체계를 계획하였고, 배치상에서 시각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위치에 한옥을 배치하였다. 목적공간은 아니지만 중정을 중심으로 순환체계를 가진 동선상에서 한옥공간은 늘 시각적 중심에 자리한다. 그리고 단순한 형태적 조합만이 아닌 안방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공간 교류를 고려하였고, 그 이미지는 불방이장(자게장) 및 침대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한옥의 누마루는 내부공간에서 도시적 배경을 전통적 이미지와 융합시키는 작용을 함과 동시에 자칫 폐쇄감을 주기 쉬운 중정을 가진 배치상에서 적절한 개방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마루공간은 건축주에게는 일종의 이벤트 공간으로 씌여질 것이며, 이를 위한 동선인 외부계간은 중화된 전벽돌 벽을 느껴며 중정에서 거리로 나갔다가 다시 내부로, 즉 누마루로 진입하게 되는 시간의 벽을 넘는 전이공간이다. 선과 질감, 색상이 강한 한옥과의 조화를 위해 무채색 계열의 시멘트 성형패널을 사용하게 되었고, 상반된 두 요소를 엮는 수평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중정에서는 투명과 투영을 위한 커튼월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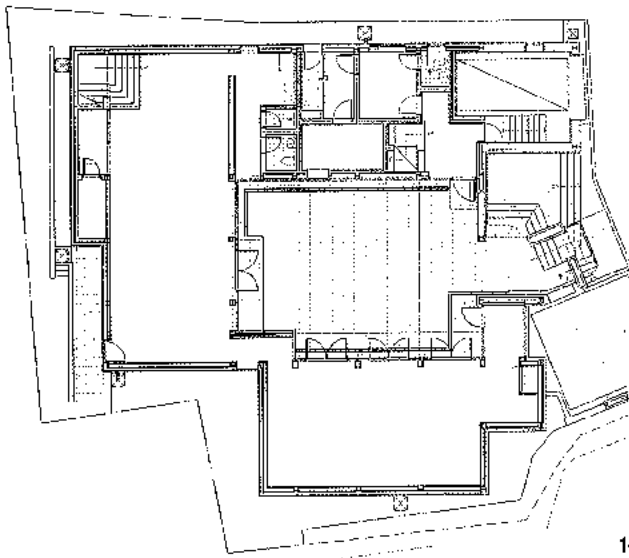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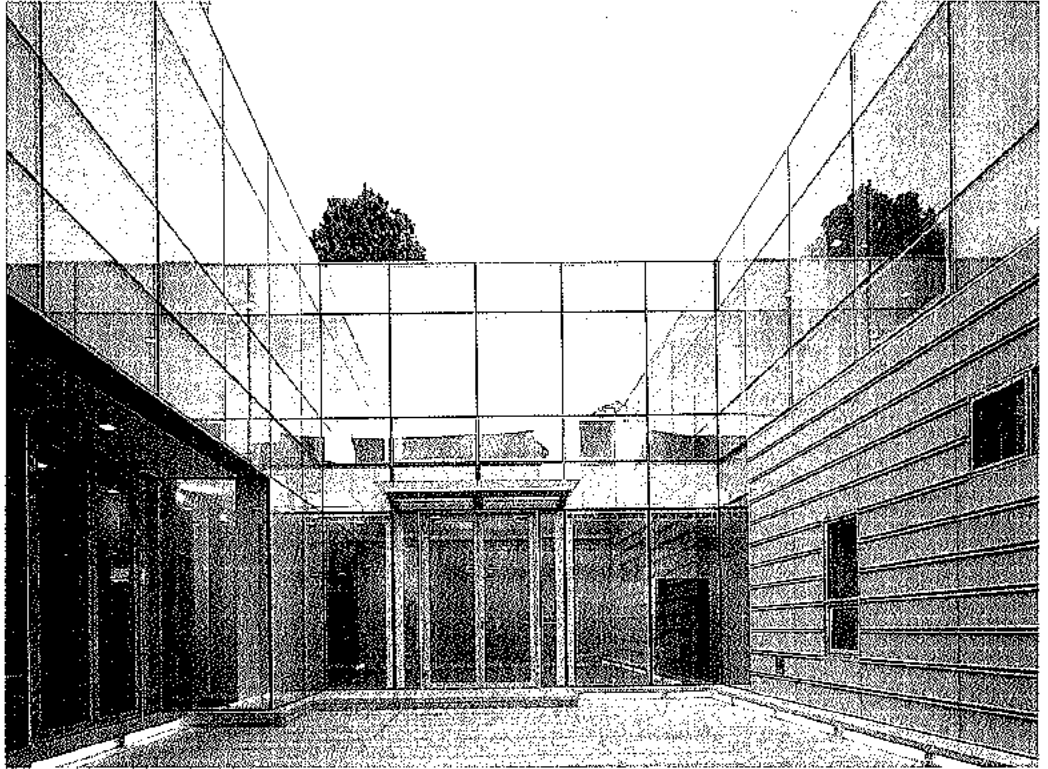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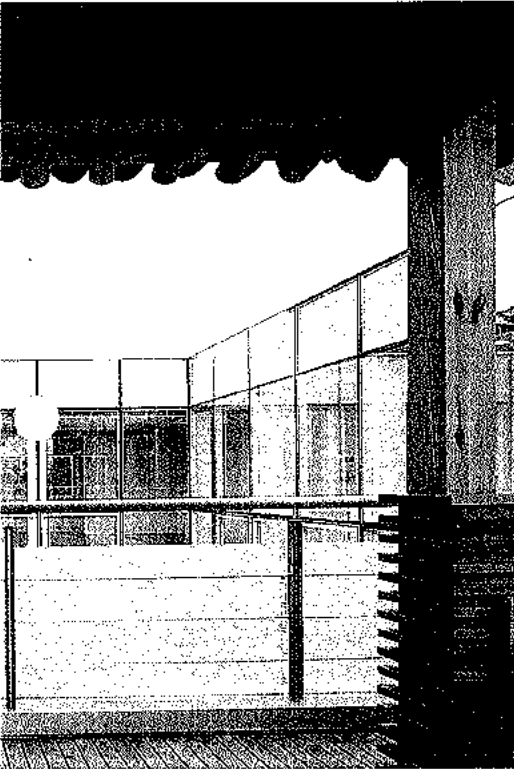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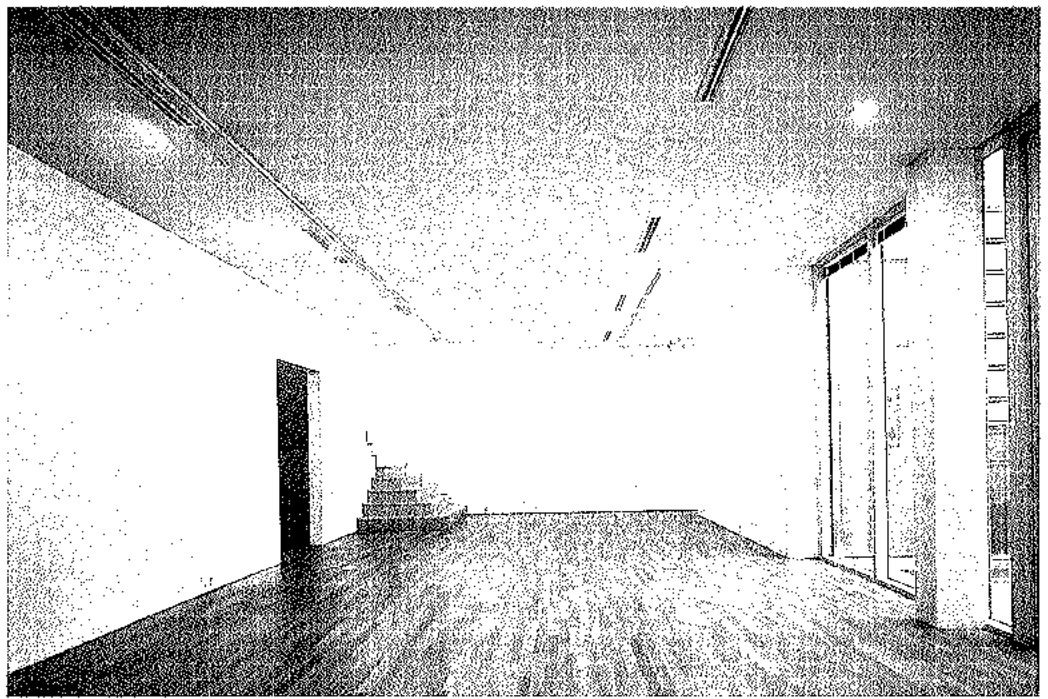
내부공간은 기변성(철골)을 고려하였고, 미술관이 라는 기능에 부합되도록 색상 및 디테일을 단순화하여 배경으로서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기능의 해결, 양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옥을 적절히 사용하였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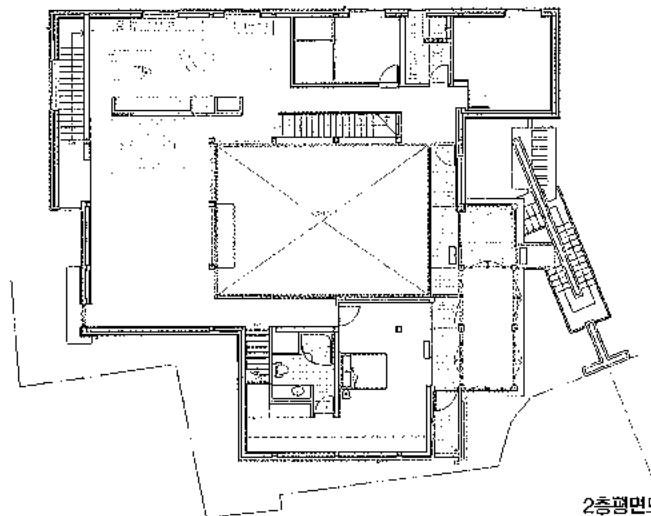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횡단면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미제루(未濟樓)

Mijeru

설계자 / (주)인·토종합건축사사무소 방철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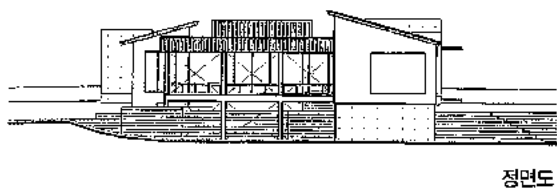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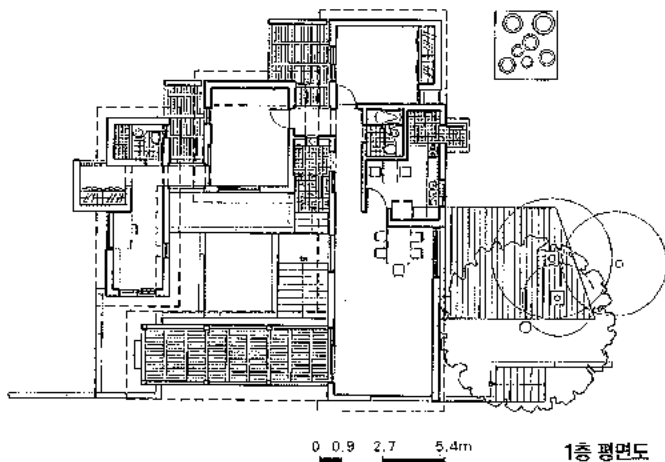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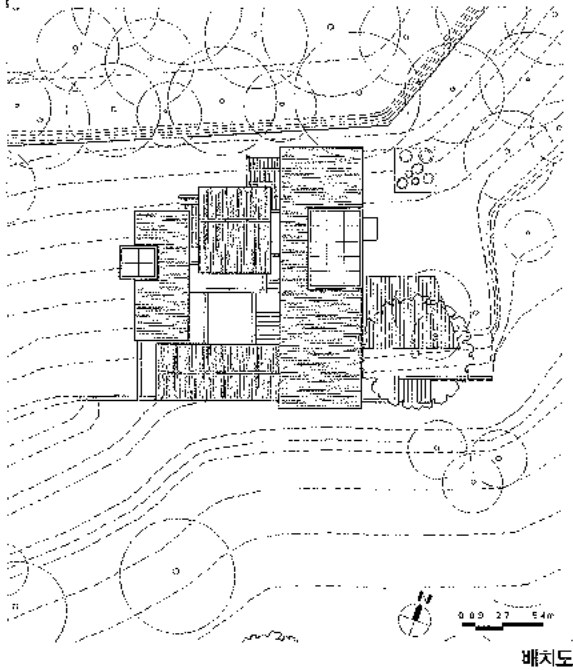
시공자 / 법신창건 김정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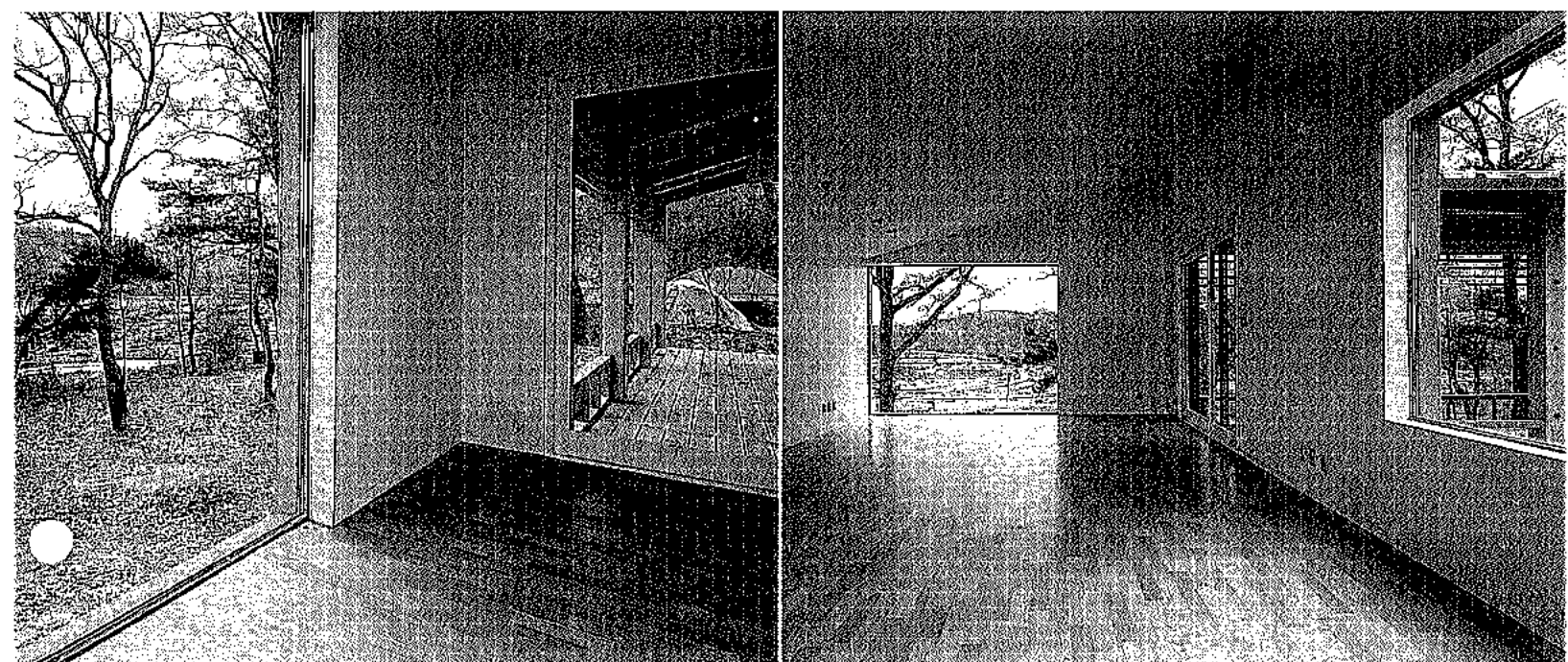
건축주 / 김장복

(건축사지 0003월호 참조)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산 66-1, 156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480.00㎡
건축면적	152.61㎡
연면적	171.42㎡
건폐율	31.79%
용적률	28.68%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외부 마감	노출콘크리트, 외부단열재 위 아크릴계 코팅제 마감
설계기간	1999. 1. ~ 1999. 4.
공사기간	1999. 4. ~ 199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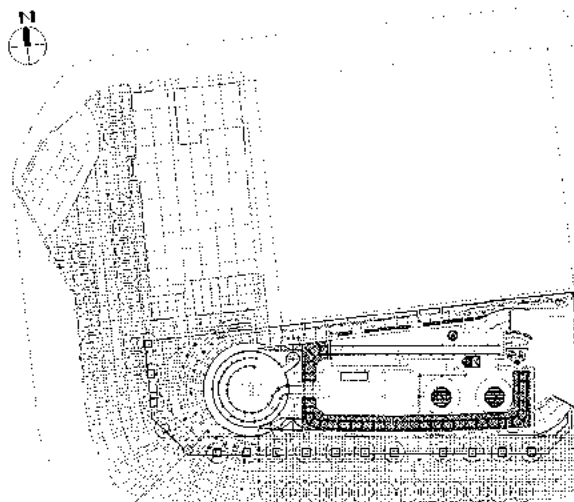
동아미디어센터 Dong-a Media Center

설계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대우

건축주 / 동아일보사

(건축사지 0007월호 참조)



배치도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9-1와 1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 재개발지구 등
대지면적	1,670.70㎡
건축면적	856.27㎡
연면적	23,215.14㎡
조경면적	252㎡
건폐율	51.25%
용적률	1,029.185%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5층, 지상 21층
최고높이	102.98m
외부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THK18투명복층유리
내부마감	SGP, 카펫타일, 무늬암면텍스
주차	자주식 93대
구조	일구조
설계담당	이석문, 민병훈, 황의표, 강부영, 정재우, 김진수, 서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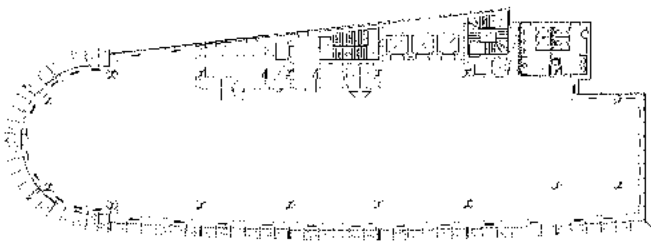
이 건물은 주변에 일민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덕수궁 등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들이 시간을 초월하여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민족, 문화주의를 지향하며 지난 1백년간 한국 언론을 선도해 온 동아일보사 사옥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이라는 건축적 요구의 동시 수용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가진 건물로 계획하여, 본 대지가 위치한 세종로와 청계천로하는 도시적 컨텍스트에 균형감을 주고, 이곳의 랜드마크 요소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좁고 긴 장방형 형태의 대지의 이용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장방형 매스에 편심형 코어를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외부공간으로의 개방성을 확보하였다. 건물 입면 전반에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동아일보사의 투명한 이미지를 반영하였으며, 상징적 형태의 원형 매스로 수직적 상징적 상승감을 표현하여 동아일보사의 진취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기능적으로 업무기능과 언론 박물관을 겸한 정보문화공간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란 점을 감안하여, 자층에 위치한 문화시설과 전시시설로의 진출입은 대지 서측의 아트리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으며, 업무시설의 주출입구는

청계천로변에 면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의 분리를 꾀하였다. 상층부의 업무시설은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제한 정보처리능력과 통신 기능의 첨단 기능을 갖춘 최첨단 시스템 도입에 적합한 도둑(7.8m×4.2m)을 적용하여 공간의 가변성을 확보하였다. 동아일보사사옥이 가진 쾌적한 아트리움은 도시민에게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투명한 입면은 상징적 효과 뿐 아니라 도시 야경의 미관요소로도 작용하게 될것이다.

과거에 일민문화회관이 아픈 역사를 반영하듯이, 훗날 동아일보사사옥이 미래에 있어 현대를 종용하는 역사의 반영체로서 남길 바란다.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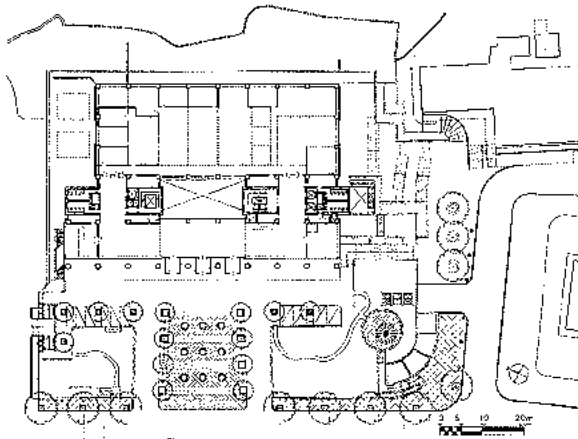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The 600th Anniversary Bldg. SungKyunkwan Univ.

설계자 / (주)일건건축사사무소 황일인

시공자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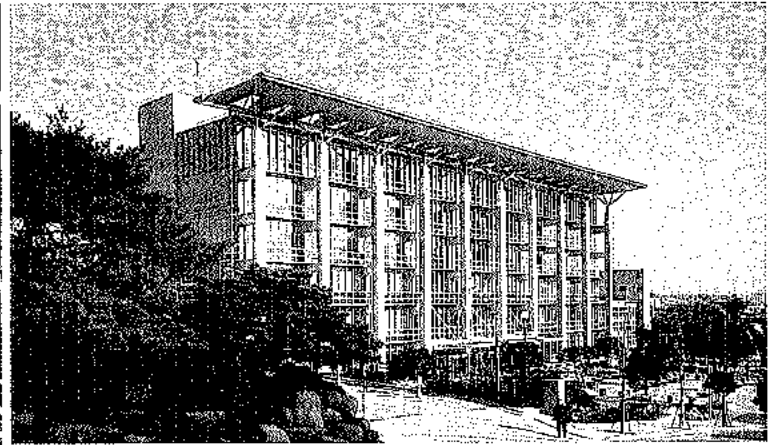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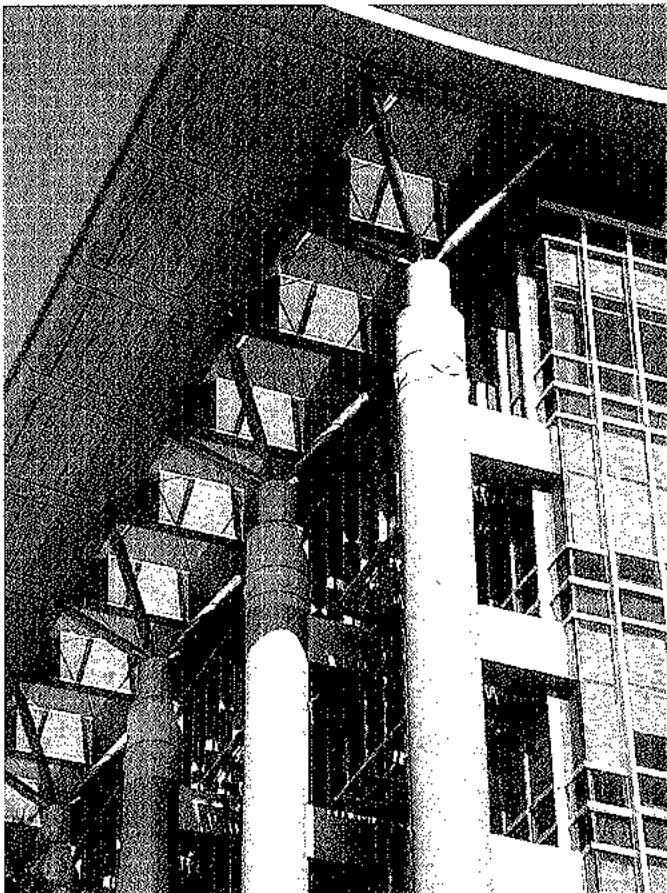
(건축사지 0003월호 참조)



지상 1층 평면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지역	일반주거지역
지구	풍치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121,160.8m ²
건축면적	3,024.04m ²
건폐율	14.79%
연면적	31,931.09m ²
규모	지상 6층, 지하 4층
용적율	61.97%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압면텍스
외부마감	회강석, THK1.0mm SSTL 패널, THK24mm컬러복층 유리
주차대수	279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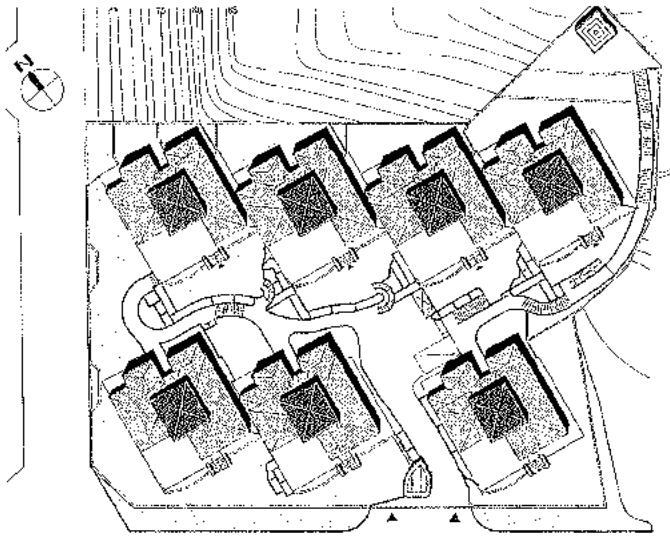
분당월드타운하우스 Bundang Worldtown House

설계자 / (주)한울국제건축사사무소 최병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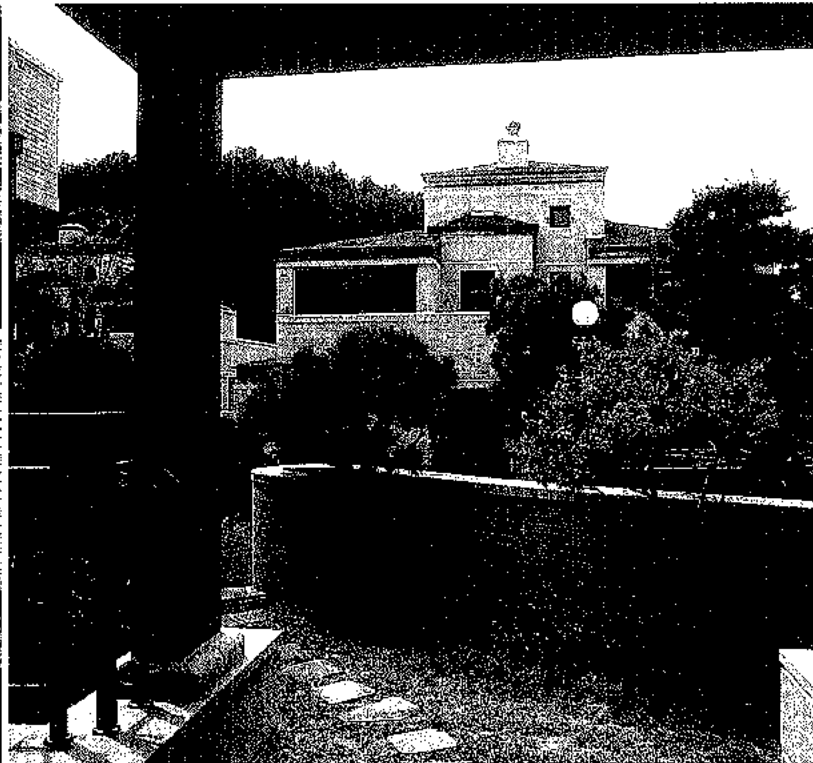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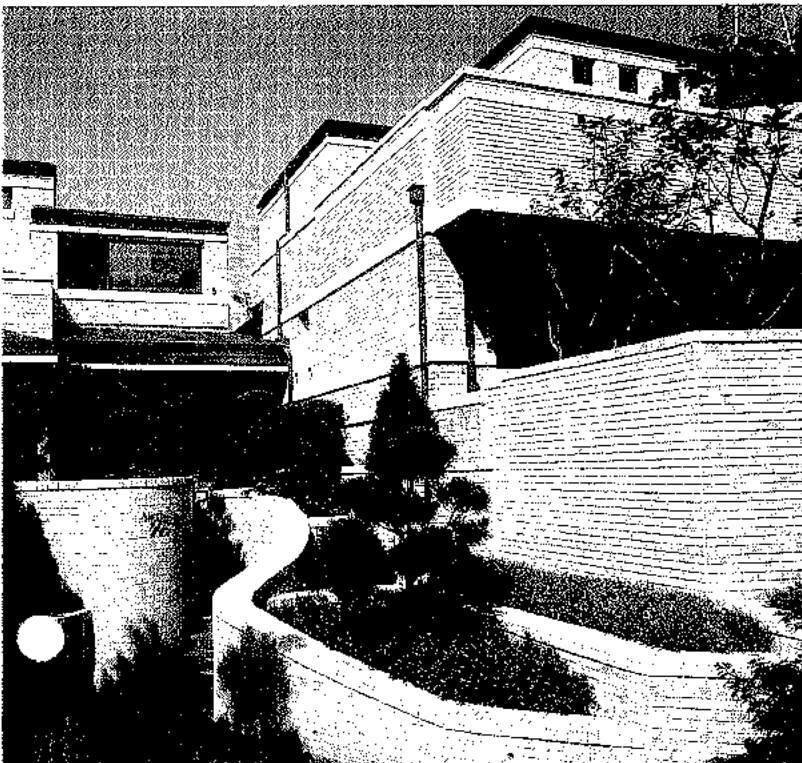
시공자 / 월드건설(주)

건축개요

대지위치	분당 특별설계구역 단독주택용지
지역지구	도시설계구역
대지면적	3,099.6㎡
건축면적	1,260.67㎡
연면적	2,586.62㎡
조경면적	949.15㎡
건폐율	40.67%
용적률	45.14%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세대	접지형 연립주택 7세대(60평형)



배치도



교보생명 강릉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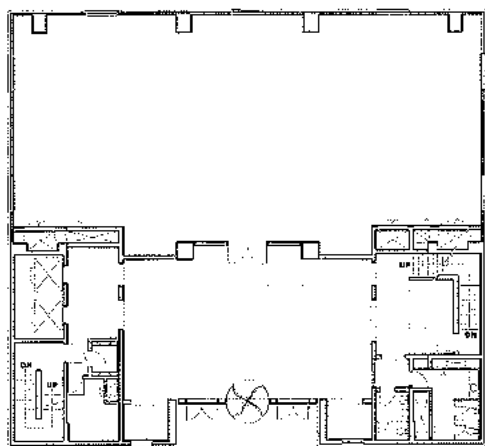
KYOBO Life Insurance Co., Ltd. Kangnung Office

설계자 / (주)티.에스.케이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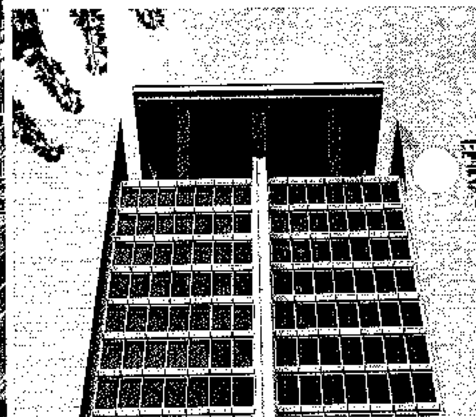
사공자 / 동부건설(주)

건축개요

대지위치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88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354.0㎡
건축면적	622.03㎡
연면적	8,365.38㎡
건폐율	45.94%
용적률	395.92%
규모	지하 3층, 지상 10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조경면적	20.59%
주차대수	64대
인테리어	(주)티.에스.케이 건축사사무소
감리	(주)티.에스.케이 건축사사무소



1층평면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

Yonsu-gu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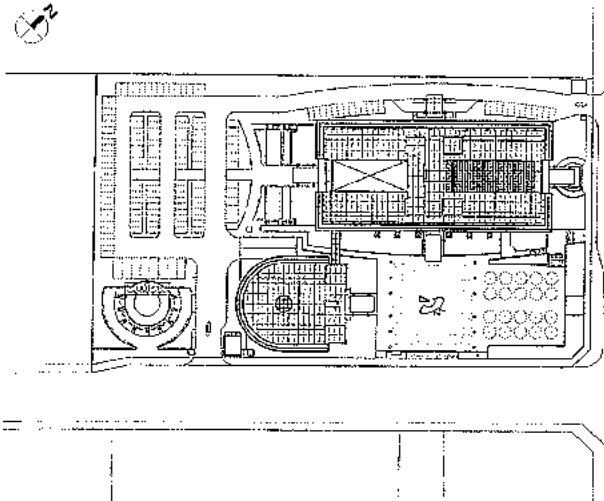
설계자 /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 변용

시공자 / 코오롱건설(주)

(건축사지 0002월호 참조)

건축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5,6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21,792㎡
건축면적	5,433㎡
연면적	39,798㎡
건폐율	24.93%
용적률	105.74%
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
최고높이	38.3m
용도	공공업무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부 철골조
주요마감	화강석 버너마감(포천석), 색재뿔칠, 알미늄커튼월, 컬러복층유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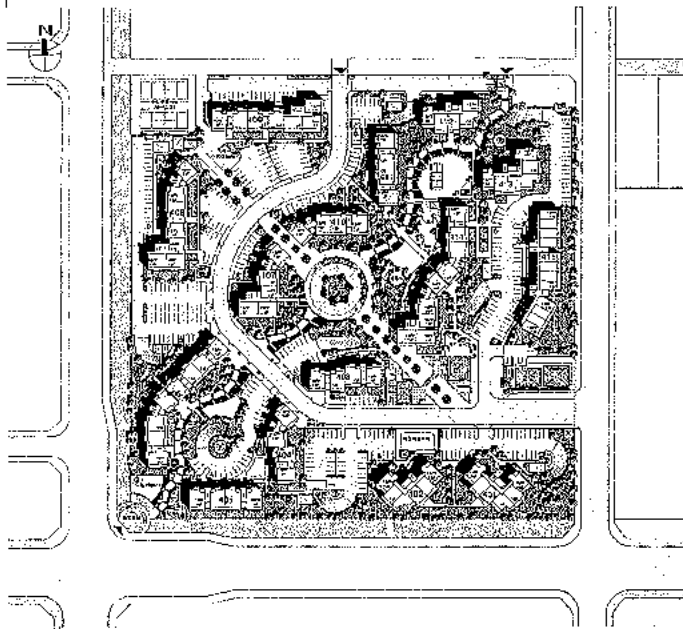
양산신도시 주공아파트 Yangsan Apartment

설계자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두호

시공자 / 고려개발(주)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남 양산시 물금읍 택지개발 사업지구 4블럭
대지면적	49,811.270㎡
건축면적	9,130.597㎡
연면적	111,688.225㎡
건폐율	18.33%
용적률	176.288%
12평형	160세대
15평형	380세대
18평형	708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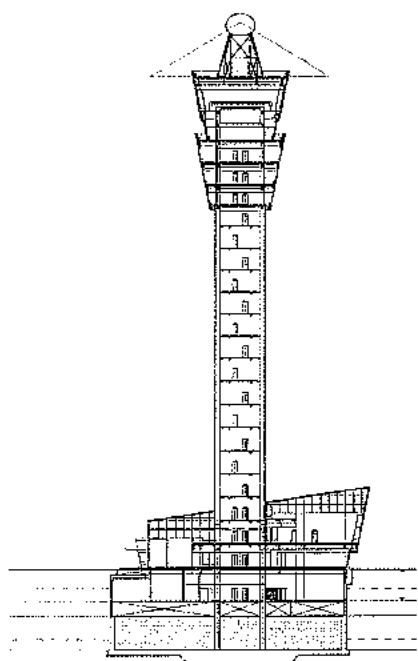


종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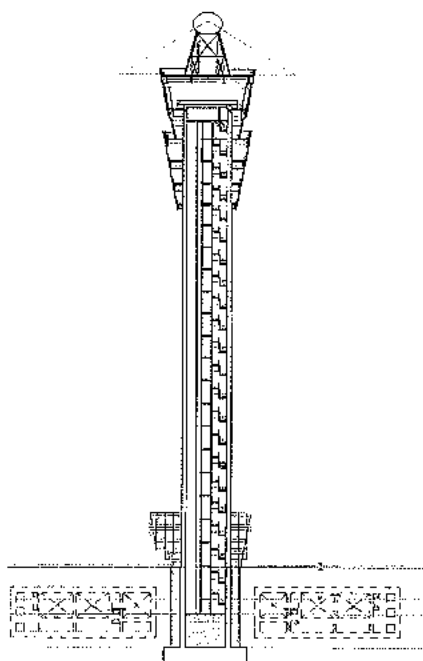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ntrol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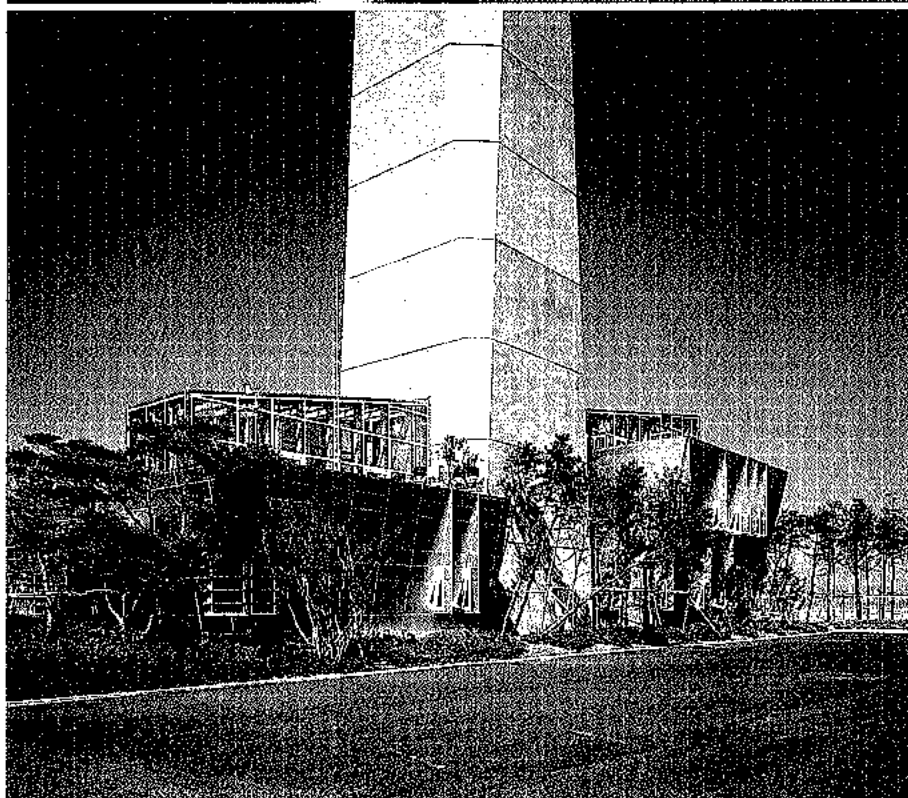
설계자 / (주)아키텐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우성
시공자 / (주)대우 건설부문, 금호산업(주) 건설사업부



단면도 1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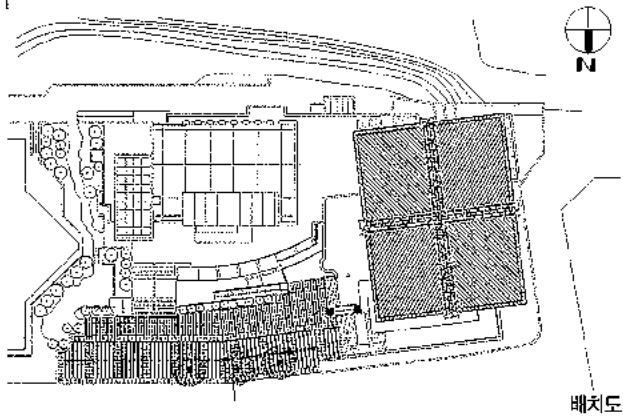
이대 국제교육관 및 교회

Ewha Woman's University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 Church

설계자 /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현대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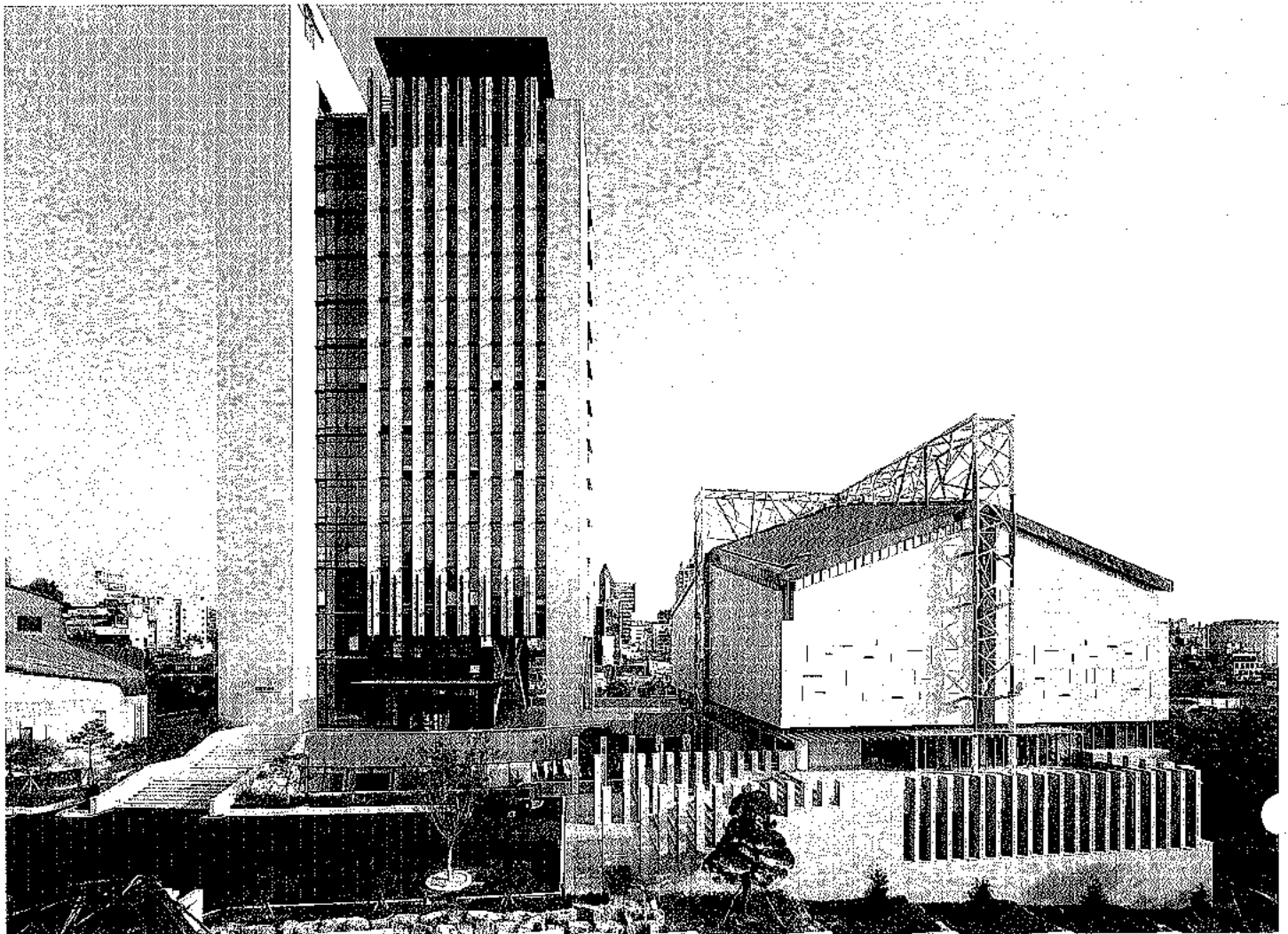
(건축사자 0009월호 참조)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2,100.93㎡
연면적	14,301.04㎡
건폐율	11.93%
용적률	43.59%
규모	교회 - 지하2층, 지상4층 교육관 - 지하2층, 지상1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당항포 전시관

Exhibition Center of Danghang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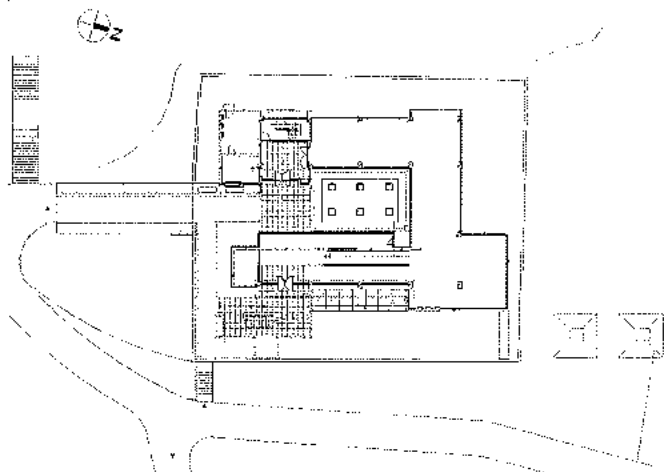
설계자 / 이·상건축사사무소 박병철

시공자 / 신우종합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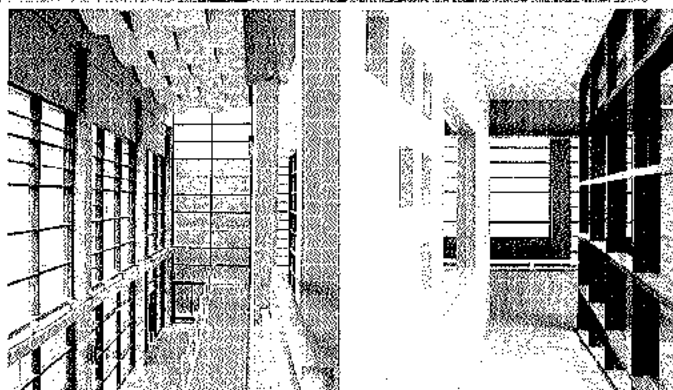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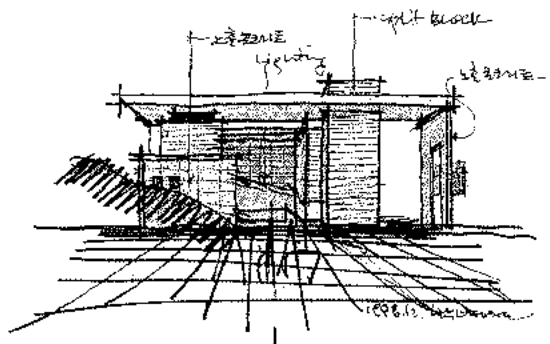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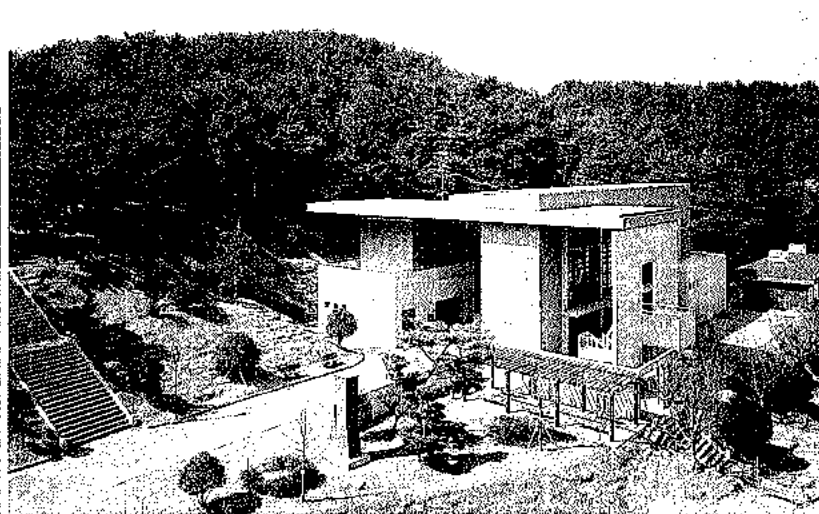
(건축사지 0007원호 참조)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4
지역지구	준도시, 운동휴양시설
대지면적	1,250 m ²
건축면적	572.99 m ²
연면적	628.48 m ²
건폐율	45.84 %
용적률	50.28 %
용도	전시시설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주차대수	18대
마감재	벽 - 노출콘크리트/스플릿 블록, 지붕 - 알루미늄 복합패널
배치도	설계담당 이병명, 이기훈, 강정호



배치도



첨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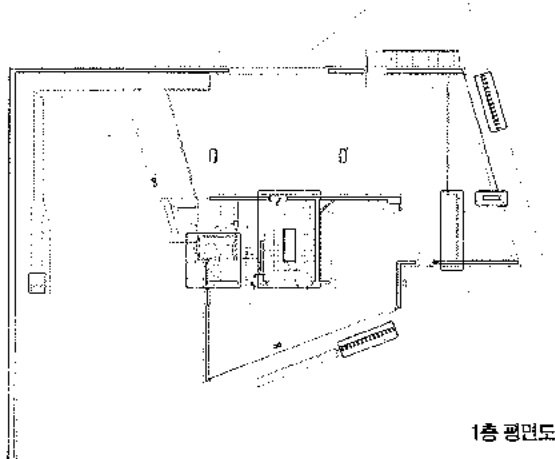
Star - Watching House

설계자 / 토마건축사사무소 민규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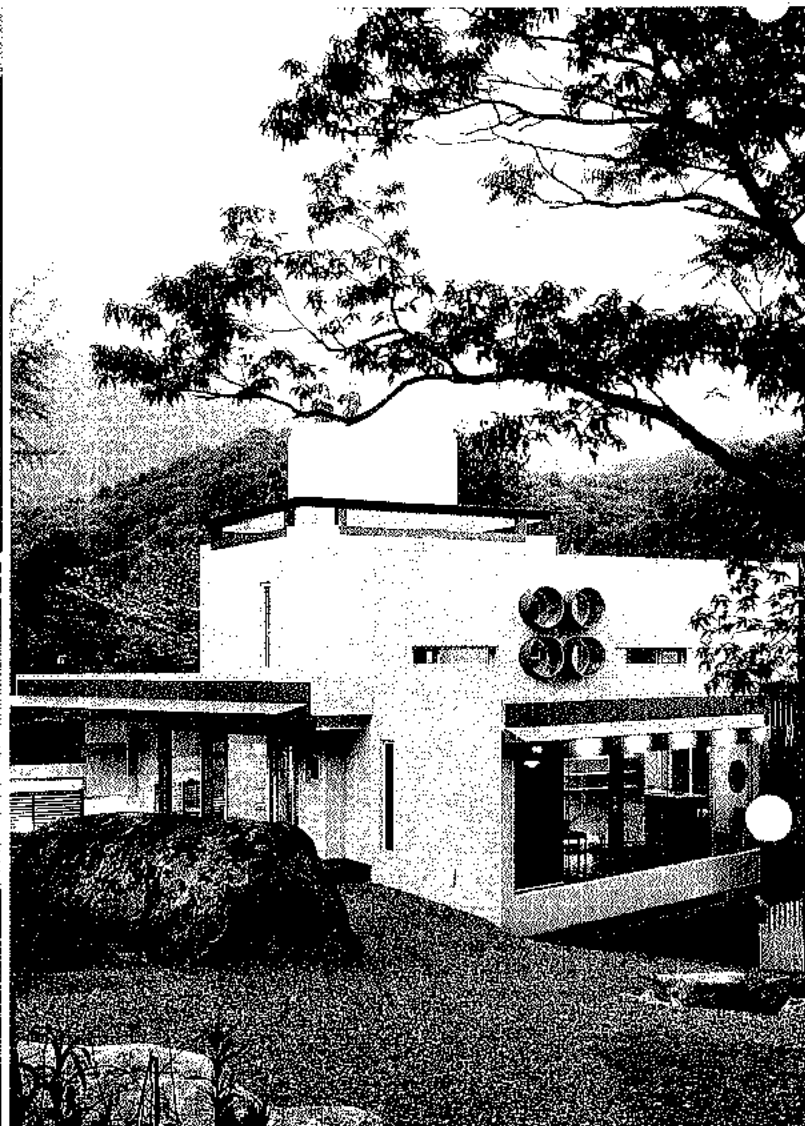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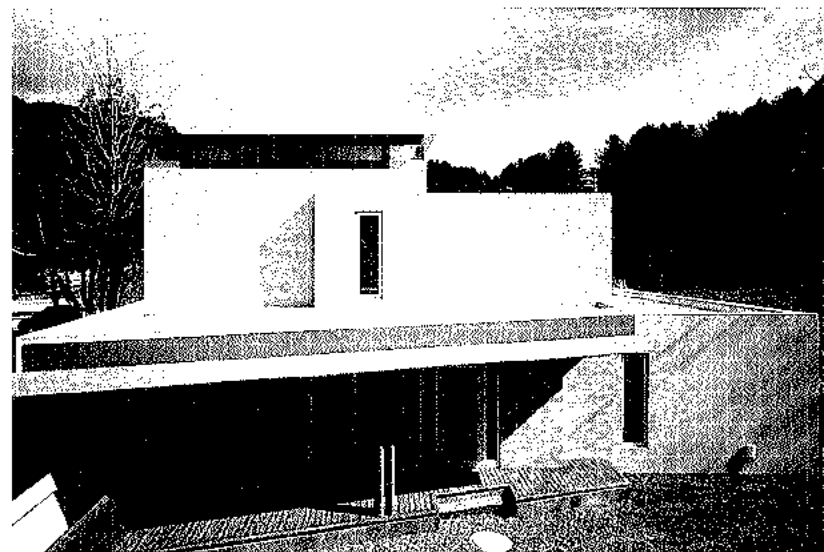
시공자 / 화인의장건설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하면
대지면적	405.34㎡
건축면적	141.51㎡
연면적	196.00㎡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드라이비트 뿔철마감+마천석 물갈기
내부마감	바닥 - 온돌마루판, 대리석 벽, 천장 - 석고보드 위 백색라카
주요설비방식	전기온돌 시스템
구조	조정민



1층 평면도



메탈릭 Metal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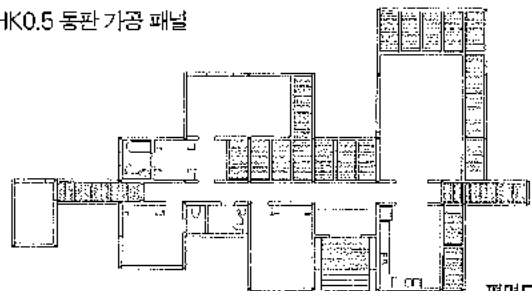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 (주)아르키움 김인철

시공자 / 유창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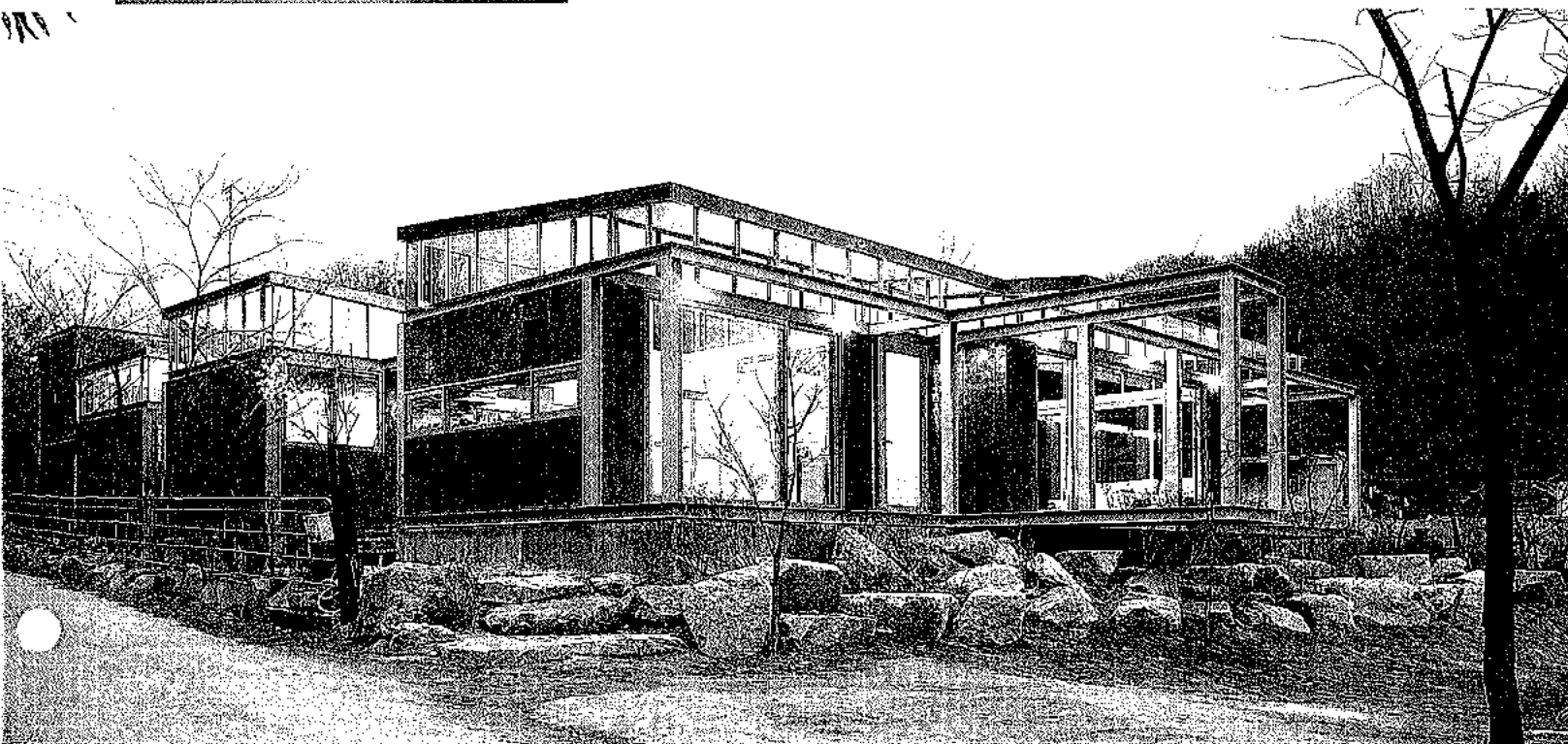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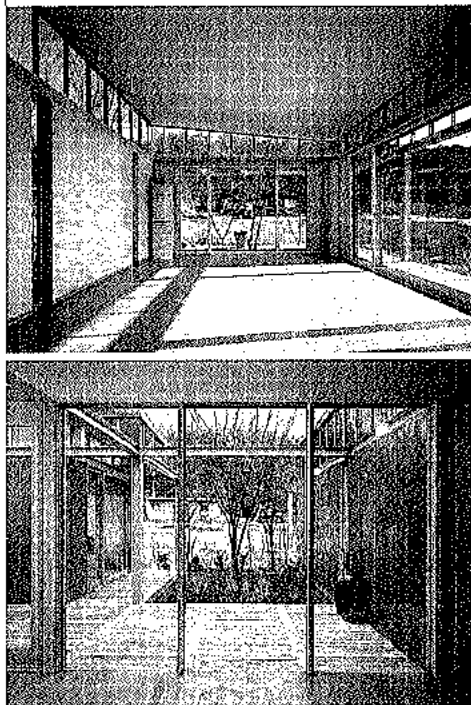
(건축사지 0003월호 참조)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양주군 화천읍 봉양리 60-2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1,243m ²
건축면적	163.68m ²
건폐율	13.17%
연면적	159.84m ²
규모	지상 2층
용적률	12.86%
구조방식	H-150×150×7×10 철골조
주요내장재	고급벽지, 고급천장지, 운동마루
주요외장재	THK0.5 동판 가공 패널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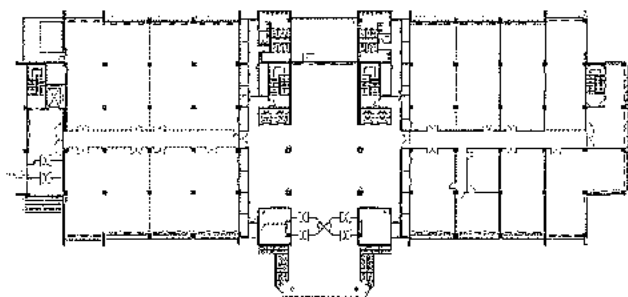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anyang Technical Research Center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영풍 · 명 박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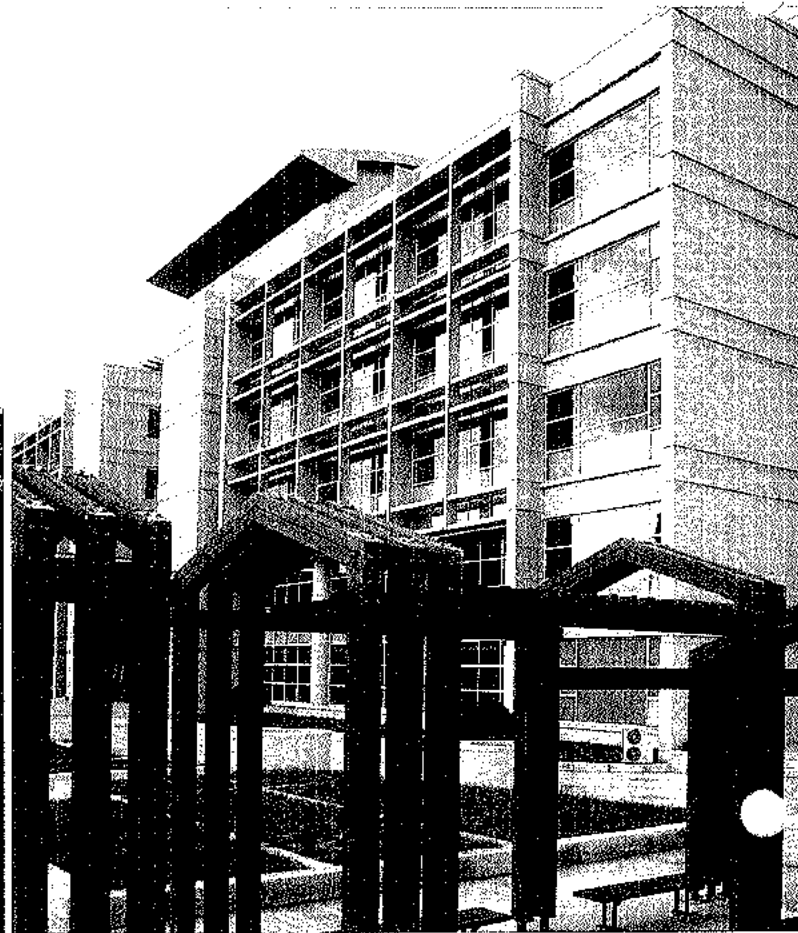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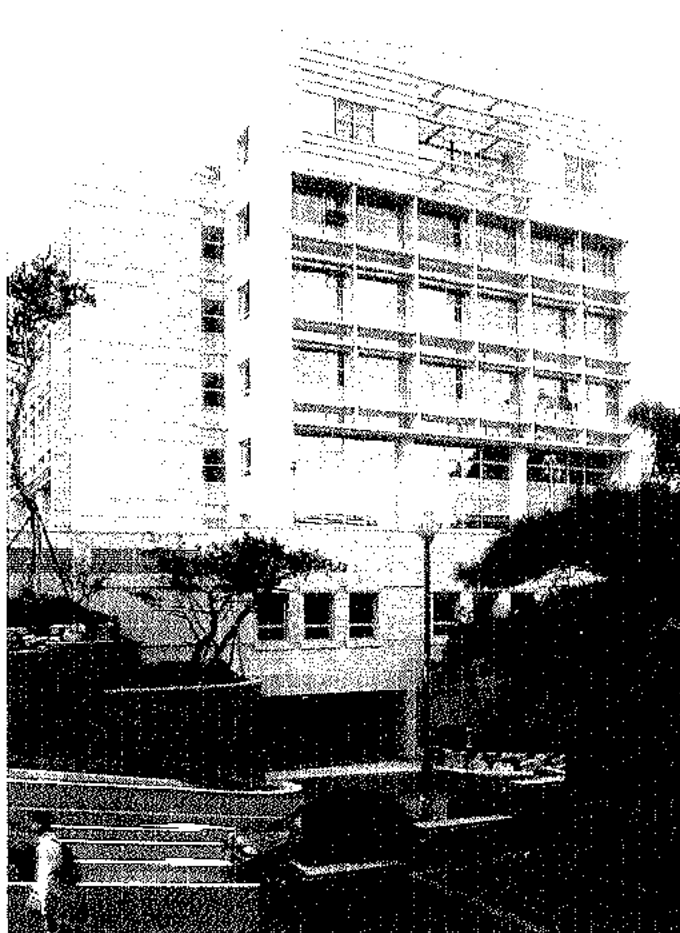
시공자 / 엘지건설(주)

건축개요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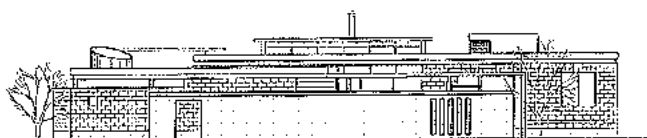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와 39필지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대지면적	389,920.00㎡
건축면적	3,572.94㎡
연면적	32,299.07㎡
조경면적	3,337.42㎡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주차대수	320대
공사기간	1998. 5. 21 ~ 2000. 8.
발주처	한양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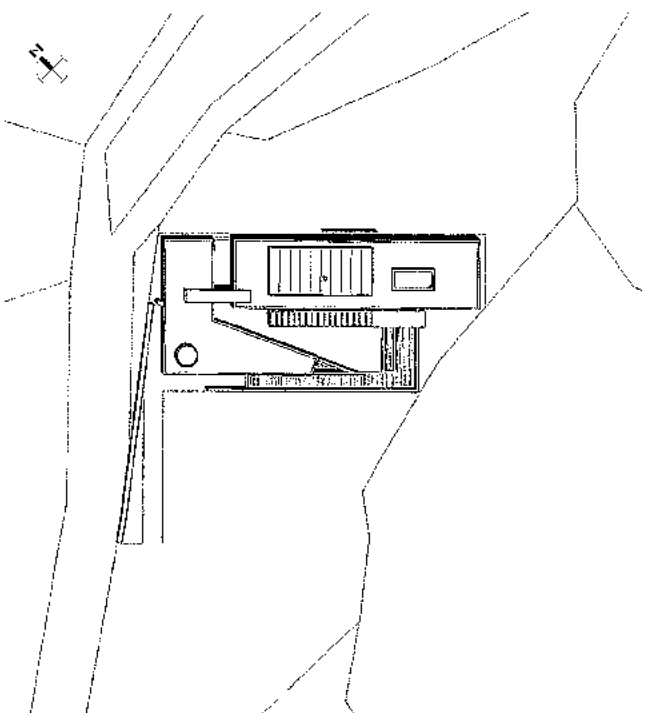
평심정 Pyong-Shim-Jung

설계자 / (주)에공 종합건축사사무소

사공자 / 삼우주택 이철희, 최선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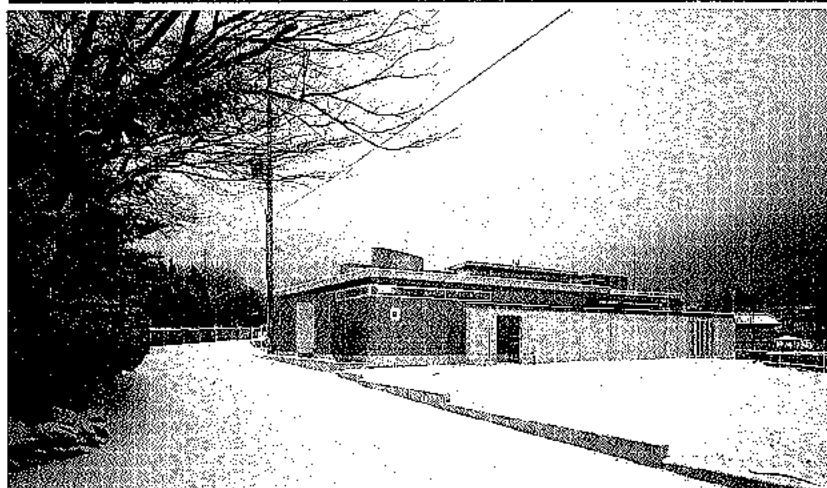
정면도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683-2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건축면적	160.50㎡
연면적	160.50㎡
건폐율	50%
용적률	50%
규모	지하 1층
최고높이	4.95m
구조	경량철골조
외부마감	스플릿 블럭, 미송판재
내부마감	바닥 - 데코 타일 벽, 천장 - 석고보드 위 벽지, 페인트
설계담당	양현, 정창근, 박은정, 영종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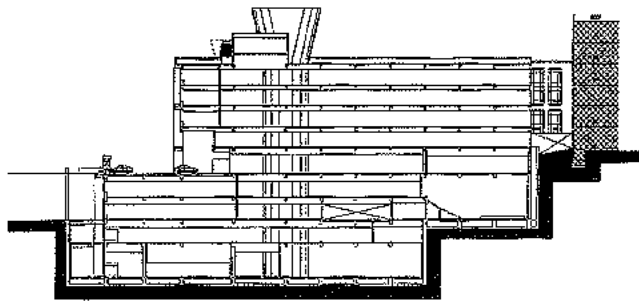
성균관대 종합강의동 C동 General Lecture Building Complex

설계자 /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김영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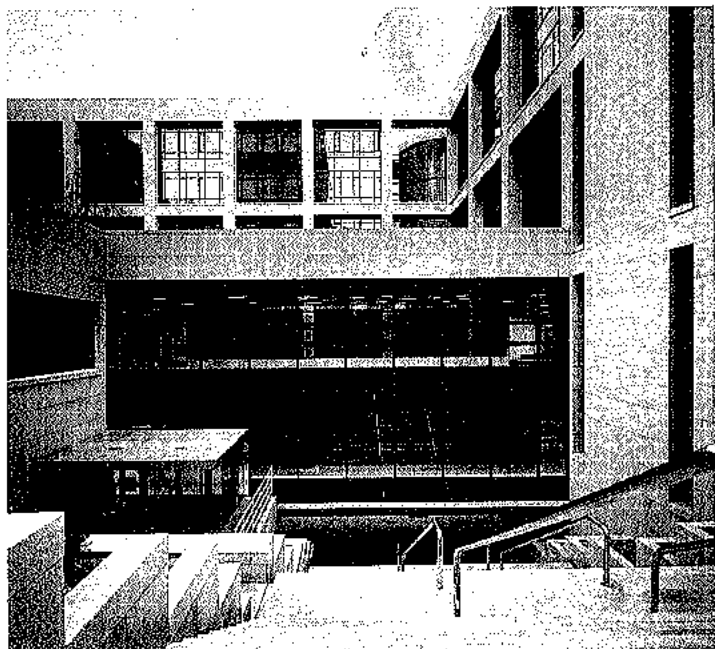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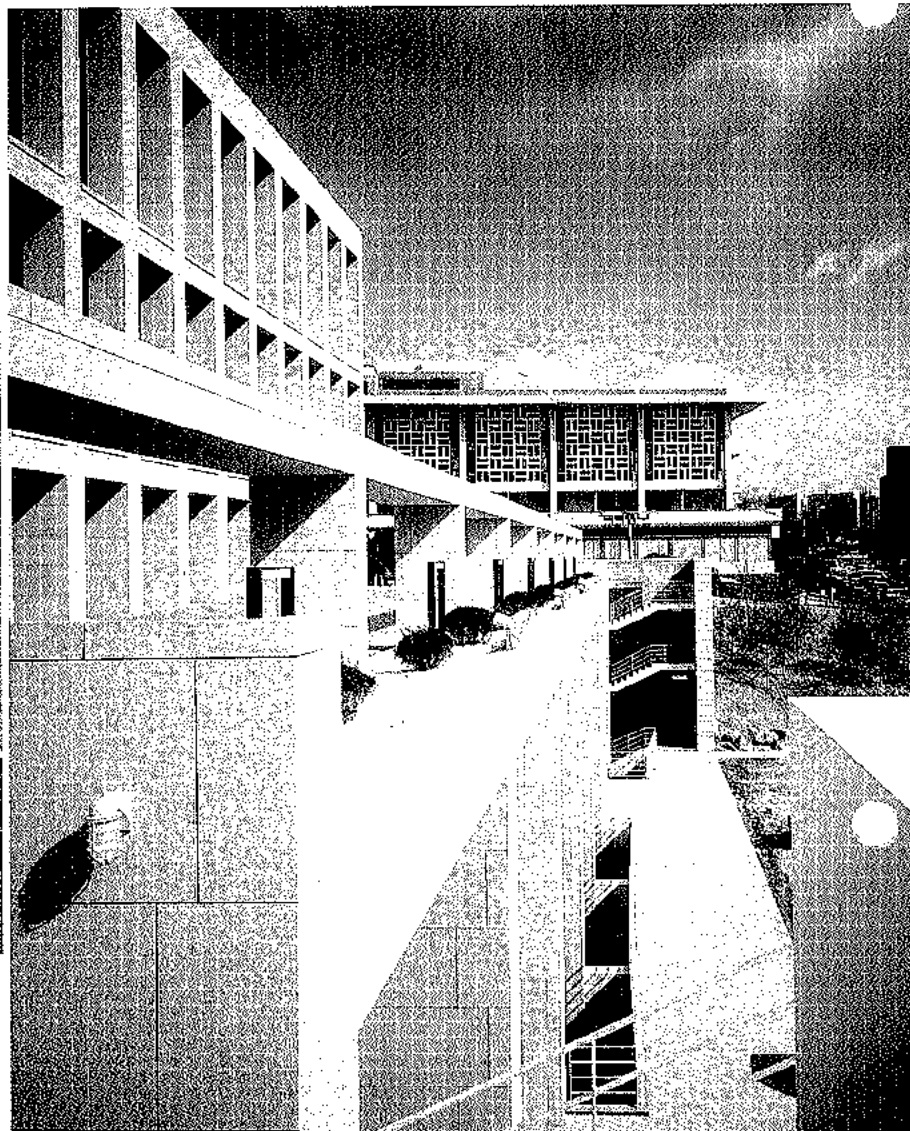
시공자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53-1와 10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21,160.8㎡
건축면적	2,951.47㎡
건폐율	22.30%
용적률	93.39%
규모	지하4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THK40 화강석 도드락 다듬
설계기간	1997. 6
공사기간	1997. 8 ~ 2000. 1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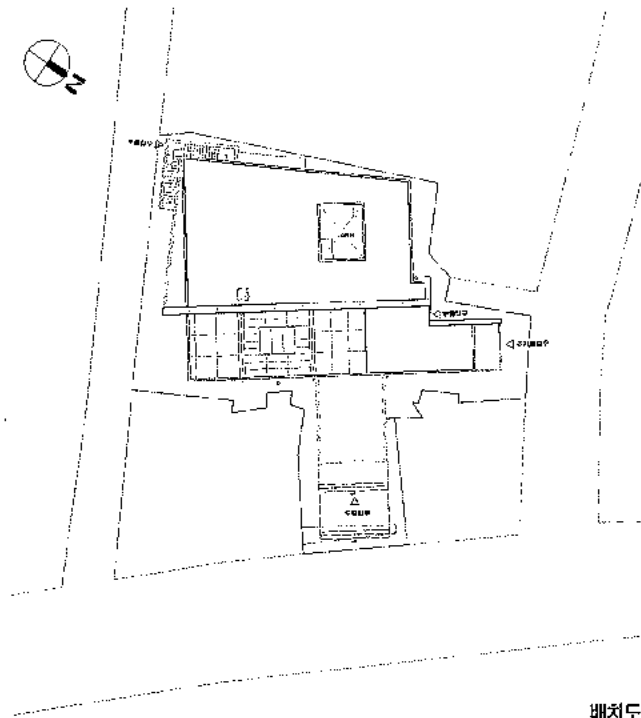


인사가나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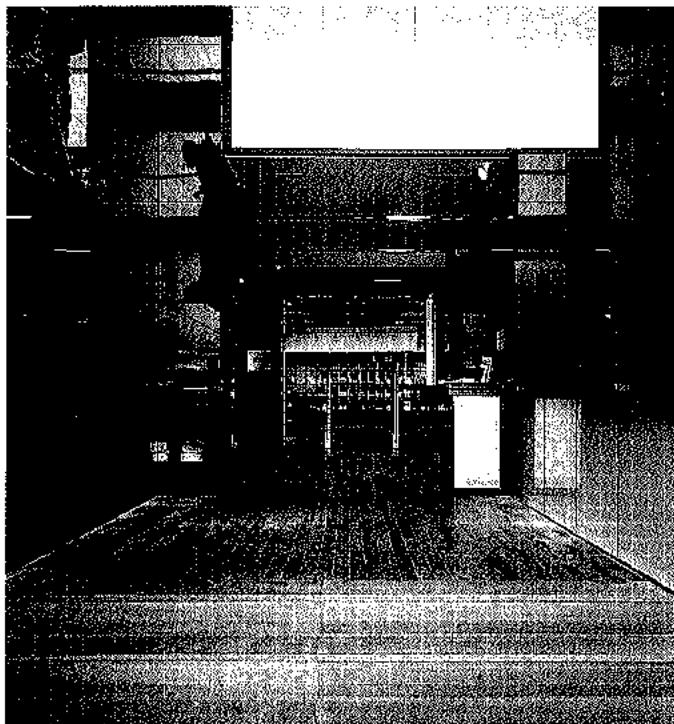
Insa Art Center

설계자 / (주)테트라건축사사무소 임상관 + Wilmotte & Associes

시공자 / 회훈종합건설(주)



배치도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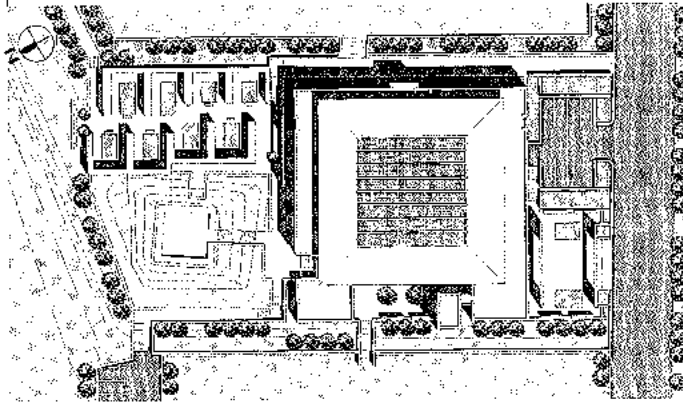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설치 제한지역
시설용도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412.18㎡
연면적	3,291.97㎡
건폐율	58.52%
용적률	291.64%
규모	지상 6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목재플로링, 후동석 버너구이, 석고보드위 바닐라페인트
외부마감	차이니스블랙 대리석, 투명복층유리

서울시 제2납골당 추모의 집

The House for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설계자 / (주)두호건축사사무소 장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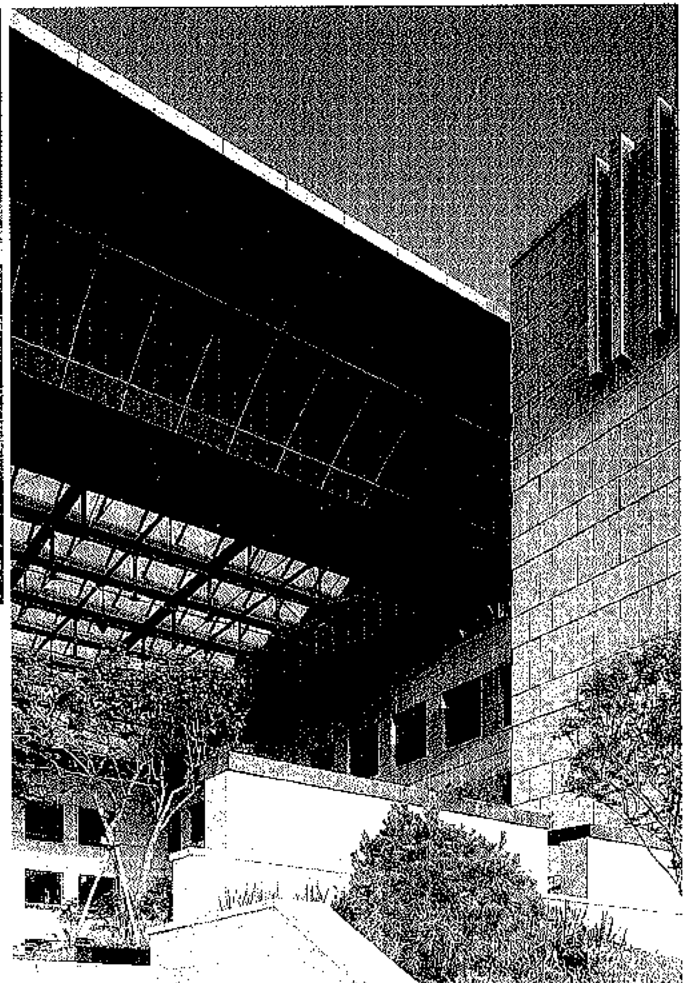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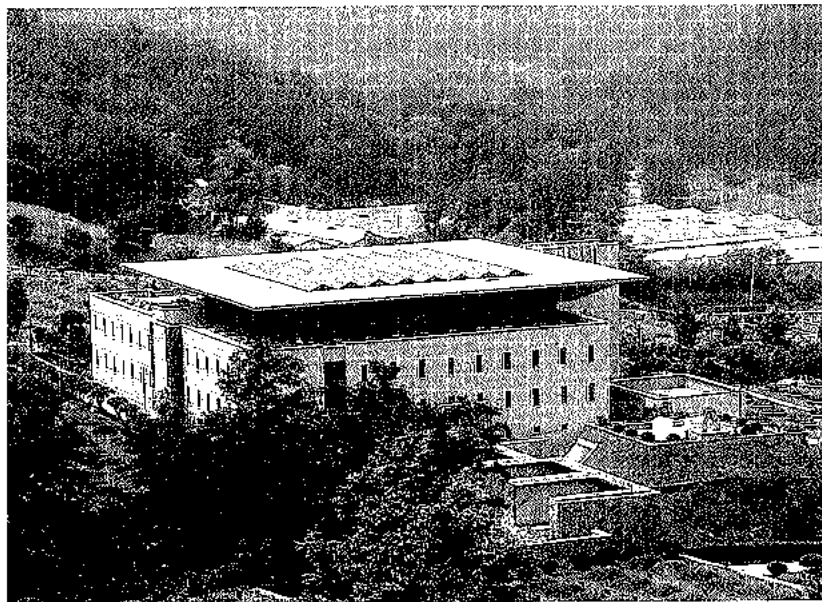
시공자 / (유)대광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마리
대지면적	72,717㎡
건축면적	1,538.41㎡
연면적	2,959.32㎡
규모	지하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 트러스조
주차대수	34대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알루미늄 복합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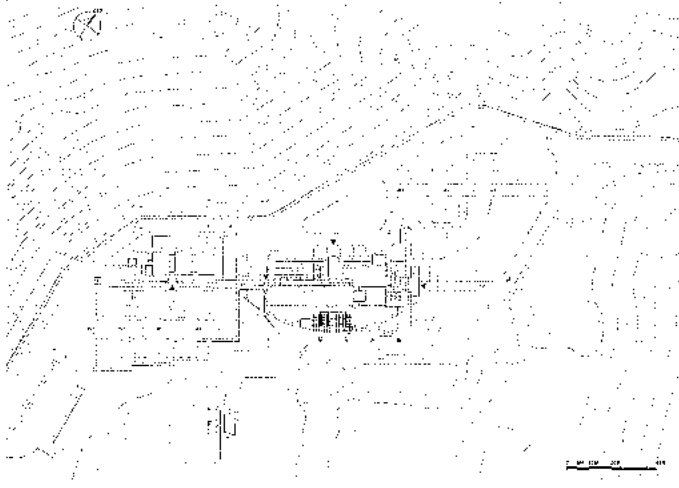
비전힐스 골프클럽하우스 Vision Hills Golf Clubhouse

설계자 / (주)맥건축 건축사사무소 김재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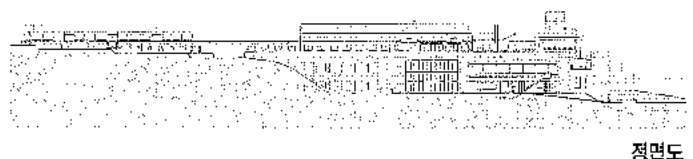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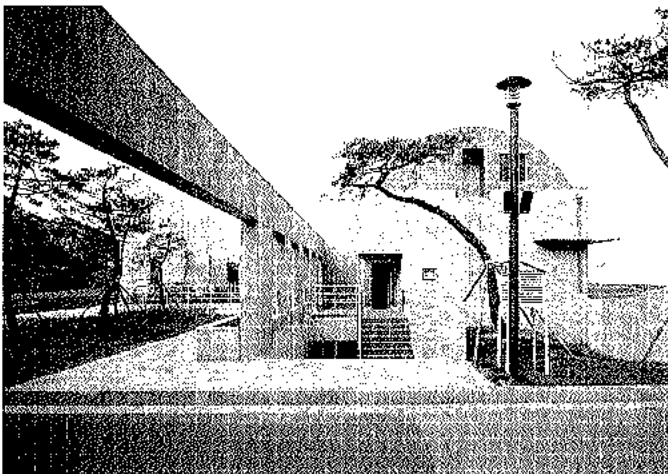
시공자 / (주)동인건설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52-1
지역지구	준도시, 농림/운동, 휴양
주요용도	운동시설
대지면적	980.00㎡
건축면적	4,544.62㎡
연면적	6,868.47㎡
건폐율	0.46%
용적률	0.57%
규모	지하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남동판
내부마감	바닥 - 카펫타일 벽, 천정 - 비닐페인트



배치도



정면도

데이콤 사옥 Dacom Building

설계자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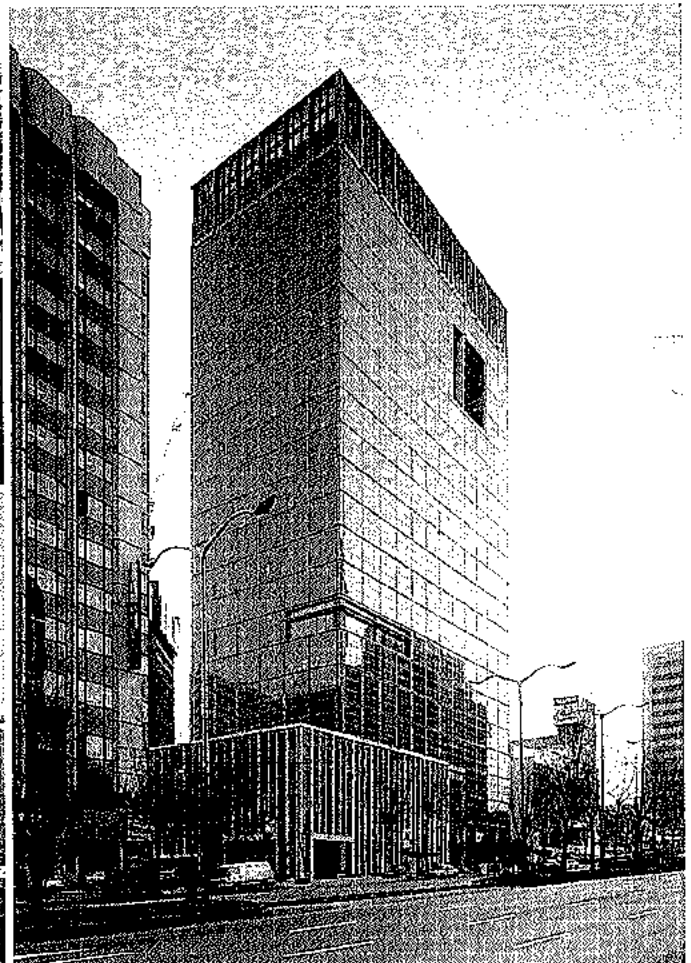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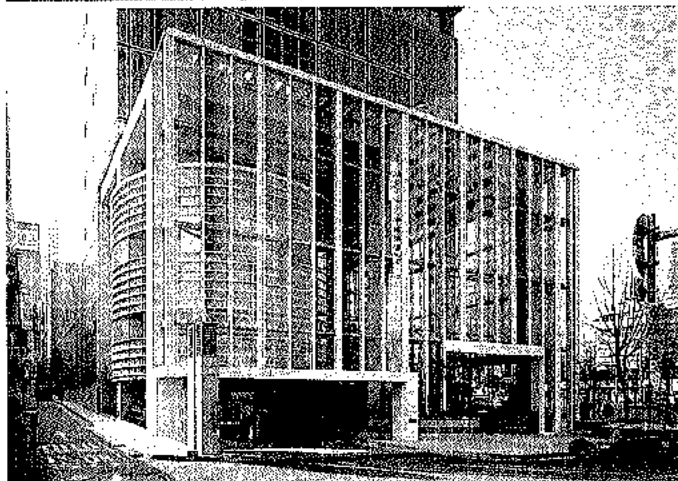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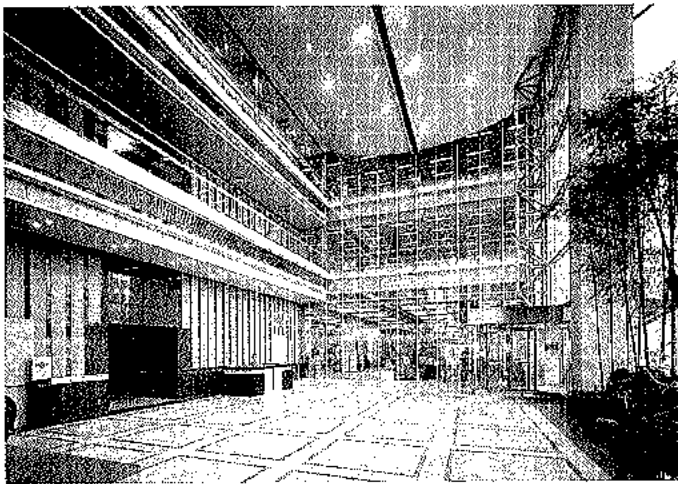
시공자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건축사지 0004월호 참조)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1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1종미관지구
대지면적	2,132.4㎡
건축면적	1,264.95㎡
연면적	34,460.75㎡
규모	지하 1층, 지상 20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P.C. 구조(조립식적층공법)
설계담당	정규백, 이재익, 박경용, 김영삼, 한동석, 김영삼, 이용주, 차중연
구조설계	한국구조
설비설계	재일설비
전기설계	영광전기
인테리어	신화
시공자	(주)삼성물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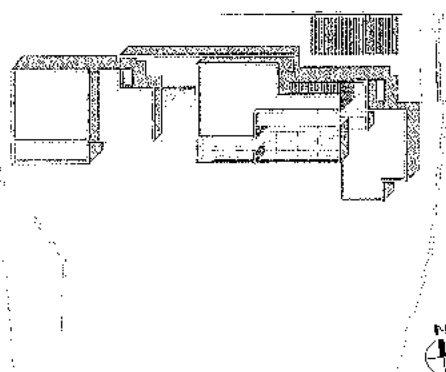
시퀀스 Sequence

설계자 / (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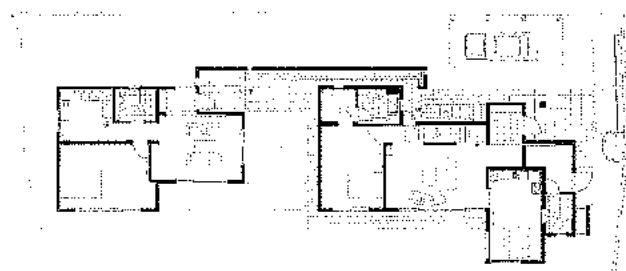
시공자 / (주)세진주택 조동희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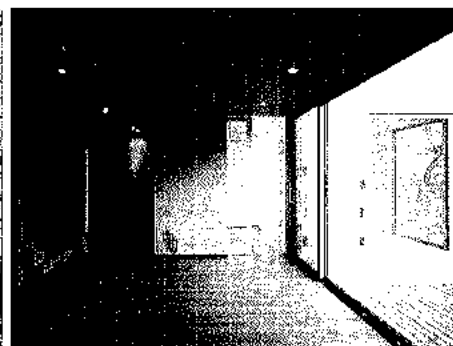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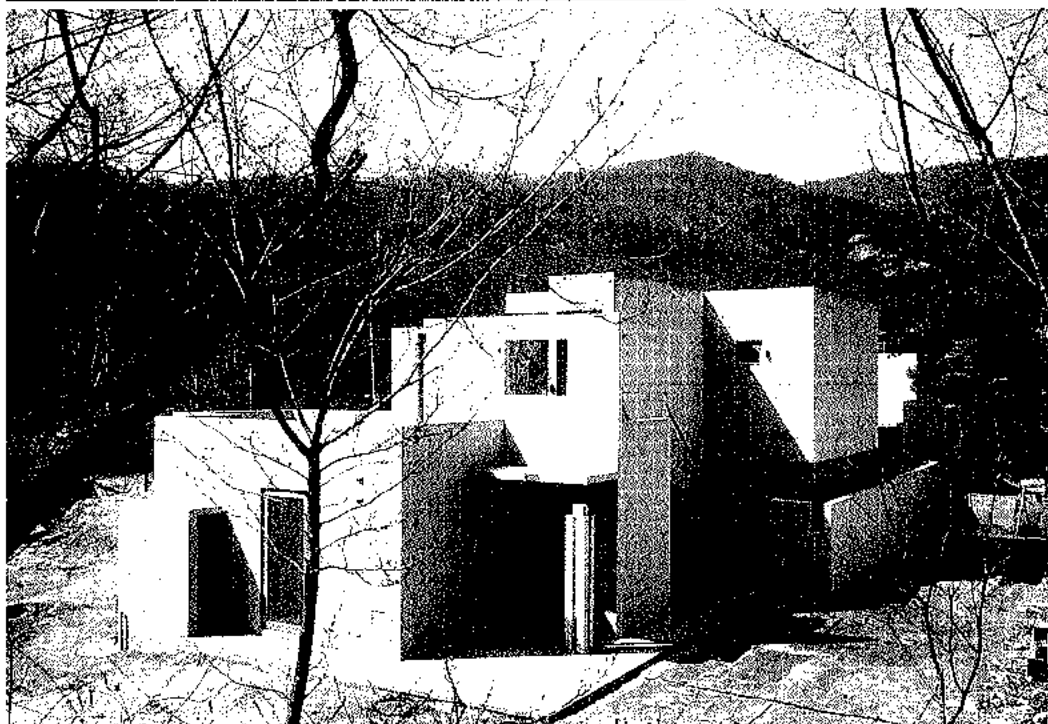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구리시 369-4, 368-3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지역)
대지면적	1,022.00㎡
건축면적	181.20㎡
연면적	196.09㎡
건폐율	55.30%
용적률	59.85%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배치도



1층 평면도



카이대덕연구소

CHi. R&D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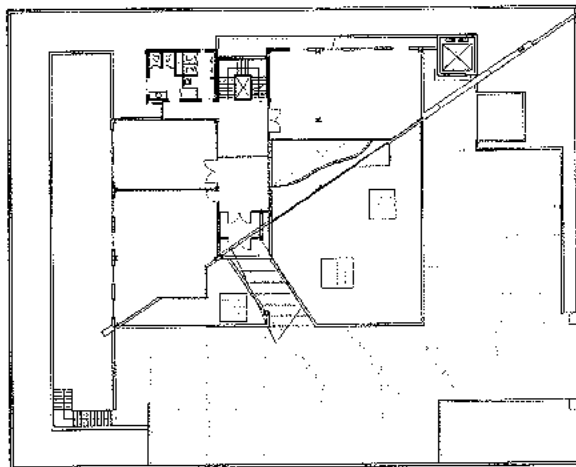
설계자 / (주)건축사사무소 모람 김홍수

시공자 / (주)에림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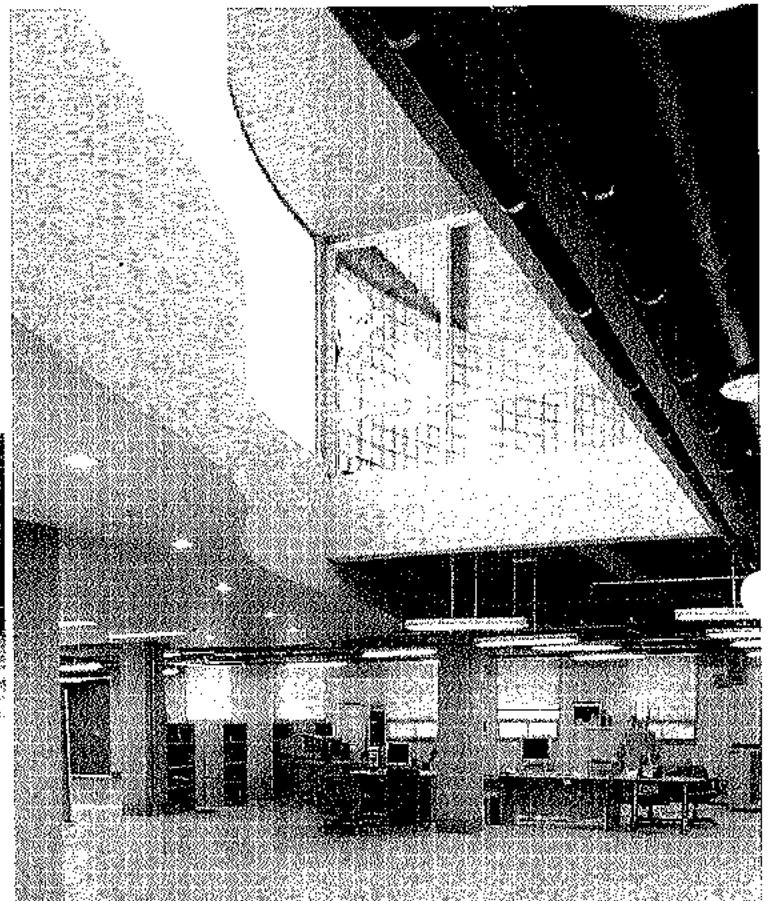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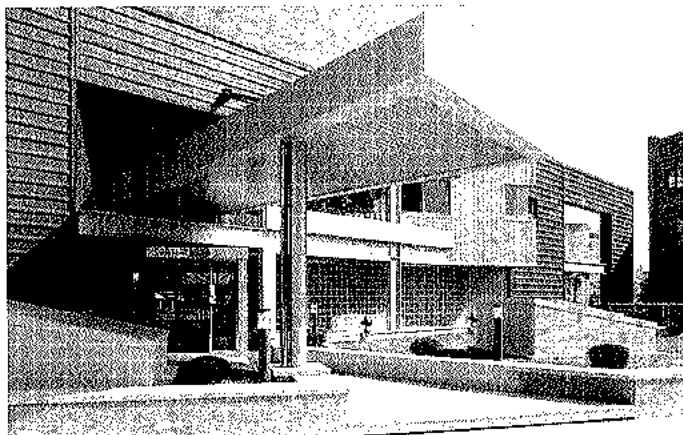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4-10번지
지역지구	연구시설
대지면적	1,653.00㎡
연면적	1,319.08㎡
건폐율	19.96%
용적률	34.81%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지하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 철골조
외부마감	THK75 E.P.S 패널 / THK50 샌드위치 패널 THK3 알루미늄 / THK16 복층유리
내부마감	바닥 - THK3 디럭스타일 / 에폭시코팅 THK9 천연슬레이트 벽 - 석고보드 2겹 위 아크릴수지페인트, 치장블럭 위 수성페인트 천정 - 데크플레이트 위 조합페인트, 석고보드 위 아크릴수지페인트, THK3 타공철판 위 조합페인트



0 3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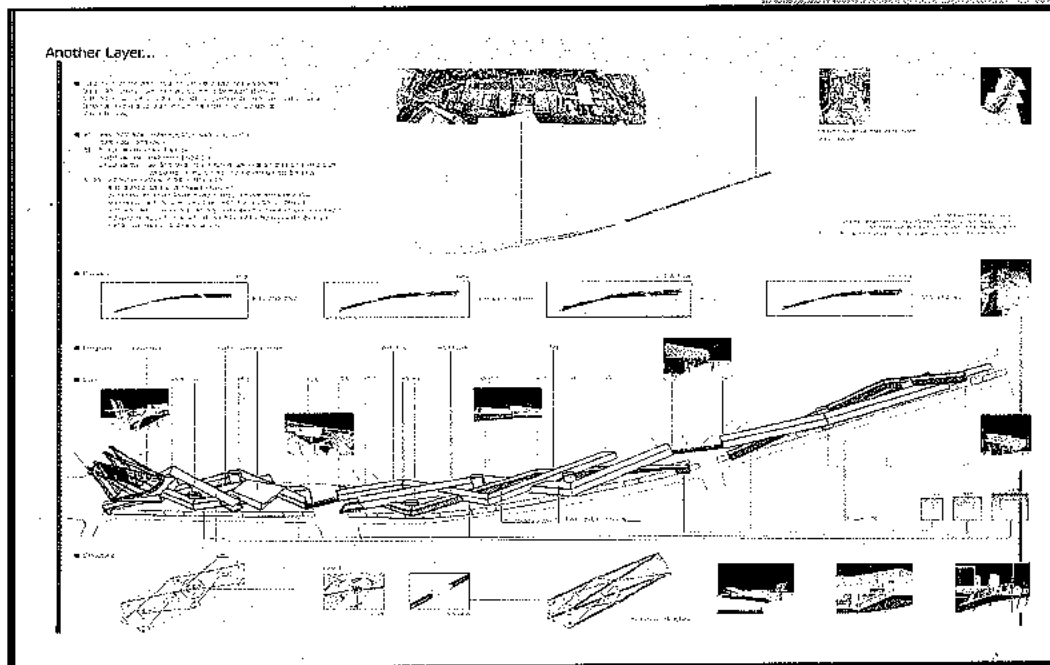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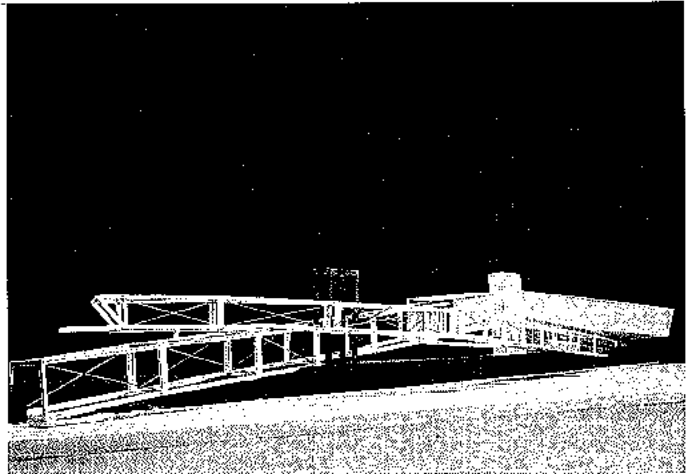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other Layer

최기호, 최혜련

한양대 건축디자인대학원, 숭실대 건축학부3년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은 infra이다. 그러나 현재의 완전 철거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있다. 현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 생존권 보장 시위문제 등을 비롯 지역성을 무시한 개발은 지금까지 지녀온 이 지역의 이미지와 역할을 소멸시키게 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철거가 불가피 하기에 보다 현실적으로 점진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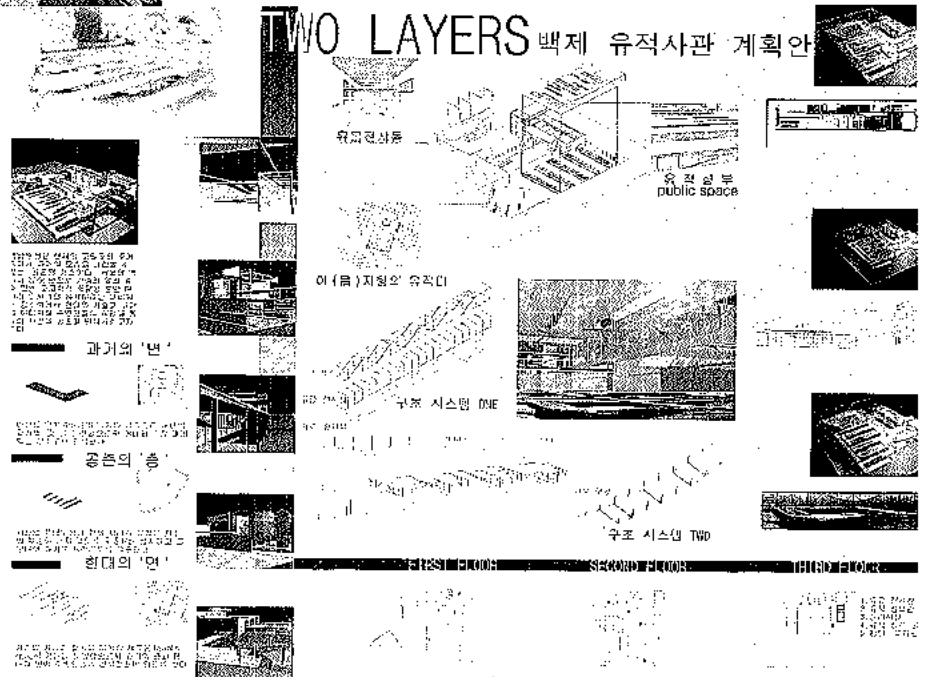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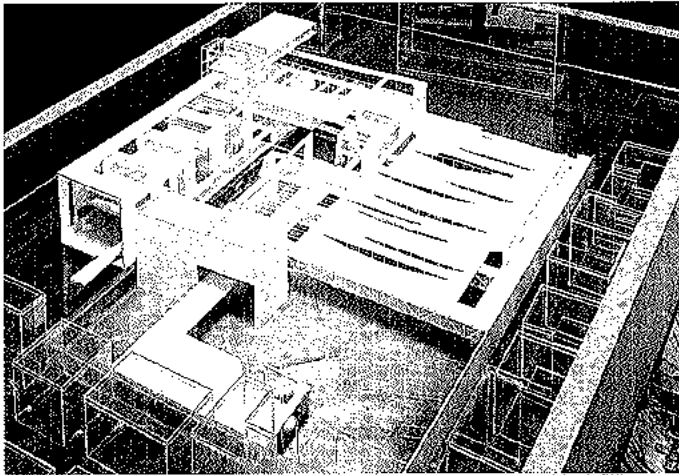
위치 : 서울 마포구 동교동-서교동(구 용산선 철도-당인리 발전소 입구간)

총연장 1,700m 중 600m의 무허가 주택군

백제유적사관 계획안

문성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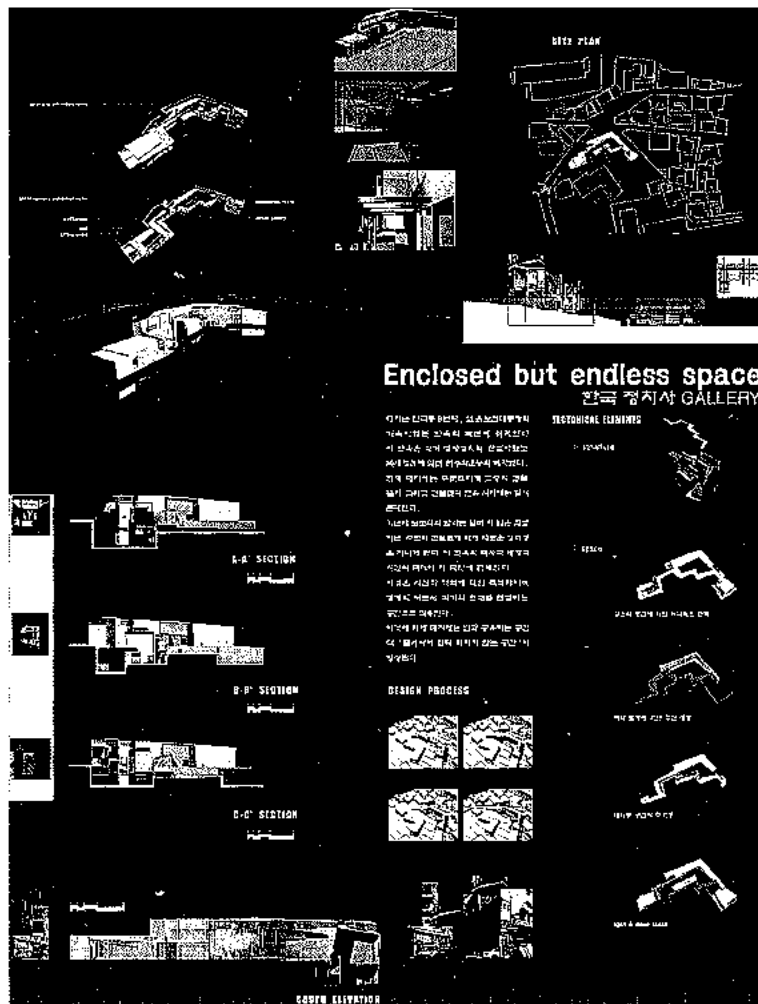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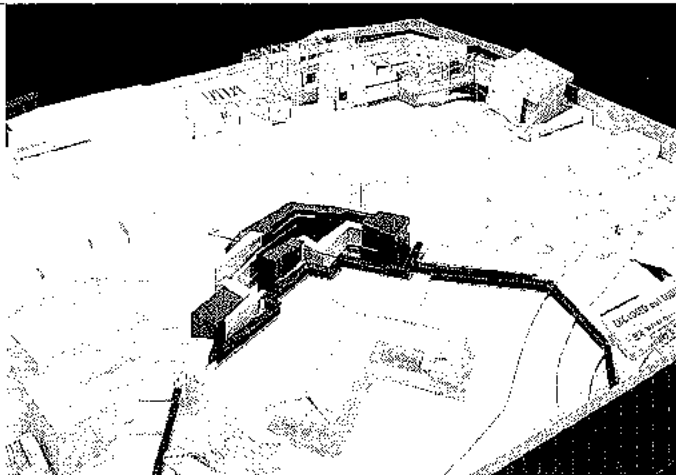
명지대 건축학부 4년



풍납토성은 백제의 위례성 시대의 정궁(宮)과 도읍의 중심으로 가장 유력하게 추측이 되는 곳이다. 이번 아파트 재 건축사업 중 발견된 유적은 그 가치면에서 고고학적 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사를 2000년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 의의가 크며 그 만큼 유적의 보호가 절실하다. 서울시내에서 암사동 등의 유적지와는 다르게 고밀도의 주거지

숙여 유적이 발굴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주변 현재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풍납토성 내의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시발점으로 더욱 서울 속의 백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하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인하대 건축공학과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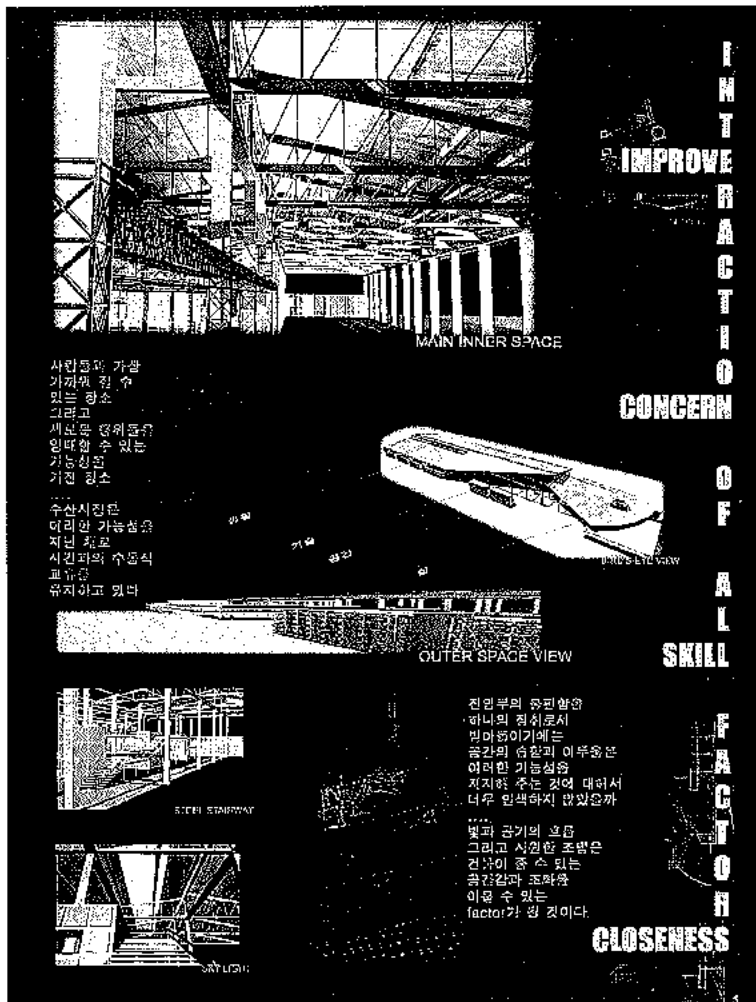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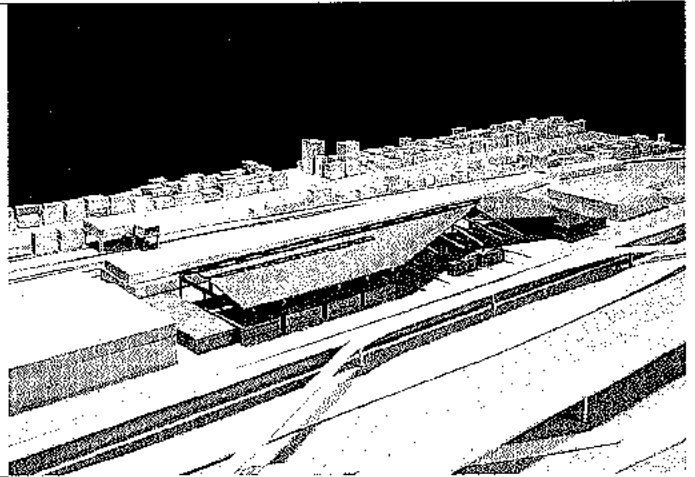
대지분석 : 대지는 안국동 8번지 고 윤보선 대통령의 가옥이었던 아흔아홉칸 한옥의 북편에 붙어있다. 이 한옥은 조선시대부터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윤보선 대통령때에는 정당정치의 산실이었으며,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메카의 역할을 해왔다. 현재 이 한옥의 북편에는 무분별하게 고층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한옥의 보존가치를 무시한채 건축되고 있는 이 건물들과 한옥사이에는 담이 존재한다. 기존의 도로측의 보행자 중심의 담과는 달리 이 담은 주변 건물들의 침식에 의해 새로운 영역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한옥의 역사와 시간의 축적이 이 담안에 존재한다. 이것은 시간과 기억에 대한 하나의 커로서 작용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대지에는 담과 공유하는 공간 즉 "Enclosed but Endless Space(둘러싸여 있되 막히지 않는 공간)"이 형성된다.

프로그램 개요 : 전체적으로 현대 정치사에 대한 상설전시 및 특별 기획전시를 위한 공간과 담을 따라 이동하며 각 실에 접근할 수 있는 Photo Gallery 그리고 영상전시실과 서점,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동선은 담을 따른 유리 구조체에 의해 시작되며, 시작과 끝이 입구가 된다.

노량진수산물시장 계획안

정승영

건축사사무소 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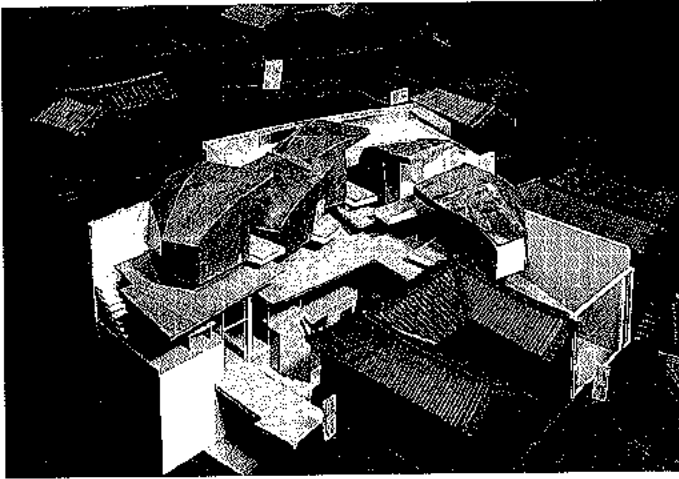
사람들과 건물은 어울릴 수 있지만 삶과 공간을 어울리게 하기는 참 힘든 일이다. 기존의 건물은 2개의 공간으로 분할된다. 삶이 있는 공간과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어 있는 공간. 이 두 개의 공간을 거대한 기둥들이 받쳐주고 있으며 그 위로 는 두께를 알 수 없는 지붕이 걸쳐져 있다. 빛은 사람들의 동선과는 반대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으며, 빛이 떨어지는 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다. 우선 물류에 대한 생각으로서 새벽에는 경매를 하고 낮에는 쓰레기차와 생선 실은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가운데 공간을 차량의 동선으로 정해주고 지붕을 크게 뚫어 줌으로서 현재의 습기와 어둠을 없애고자 했다. 현재 경매사무실과 관리동으로 쓰이는 장소를 물류센터로 계획하였으며, 지붕을 좀 높여서 기둥사이로 레일을 설치하고 그 레일을 통해서 물류들의 운반이 기타의 동선과 분리되도록 하였다. 지붕을 띄어주고 긴 천창을 돔으로서 현재 동선으로만 쓰이는 공간에 새로운 행위들을 불러들이고자 했다.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삶들의 공간을 유지하도록 했다. 기둥은 이곳 사람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한다. 지친 사람들이 기대기도 하고 물건을 받치기도 하며, 각종 전구와 상호, 행거들이 붙어 있다. 이 기둥들은 차량 동선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장소가 가지고 있는 힘과 가능성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건물과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도구를 만들어 주고 ... 그리고 이들의 교류와 결합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었다.

가회동 촉각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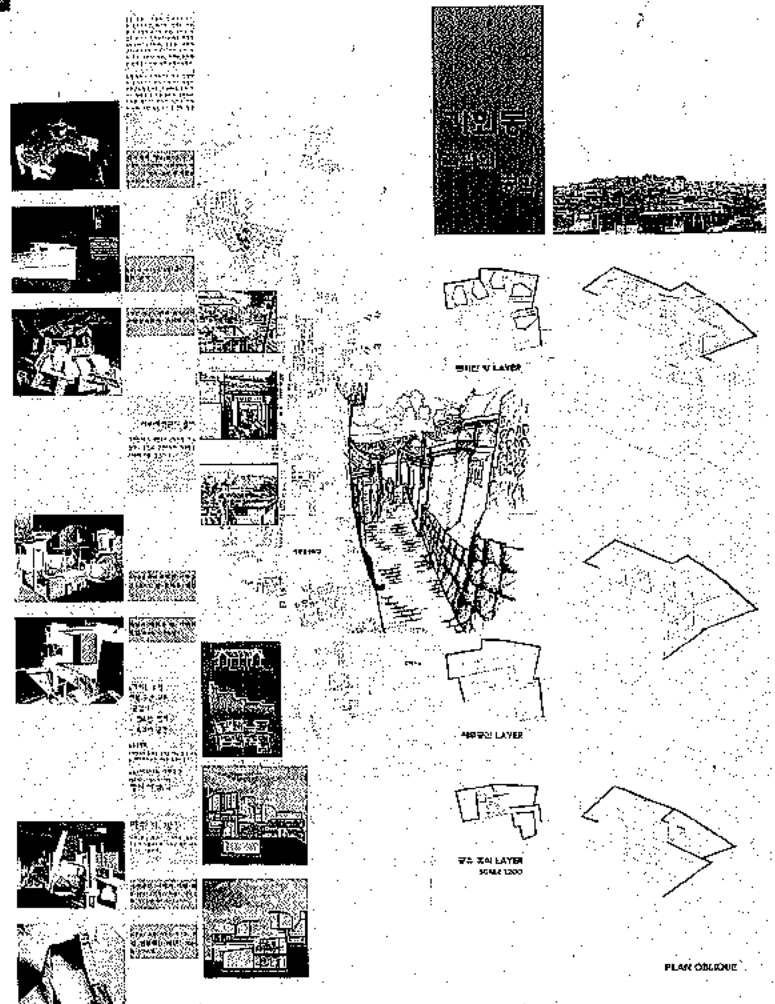
김영옥 · 엄지숙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4년



우리는 순간이라는 속도를 경험하며 생활하지만 물리적인 몸을 벗어날 수 없다. 지금 하나의 각본이 필요하다. 미래로 가는 현재를 대표하는 생활의 한 유형으로 e-business 사무실 거주공간을 제안한다. 촉각적 경험이 살아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지금 돈의 논리로 는 하등 존재가치가 없는(?) 가회동 도시형 한옥마을의 장미골목에서 가능성을 찾는다. 좁은 골목길, 경사진 필지에 대응한 돌옹벽, 골목바닥 틈 사이로 자라는 장미나무들, 따스한 오후의 햇마루, 계단을 오를수록 낮게 웅크린 집들이 거대한 유기체처럼 웅크리는 공간이다. 시선보다 피부가 먼저 아는 장소로서 그 공간을 온종일 넘나드는 사람에게 더없이 소중한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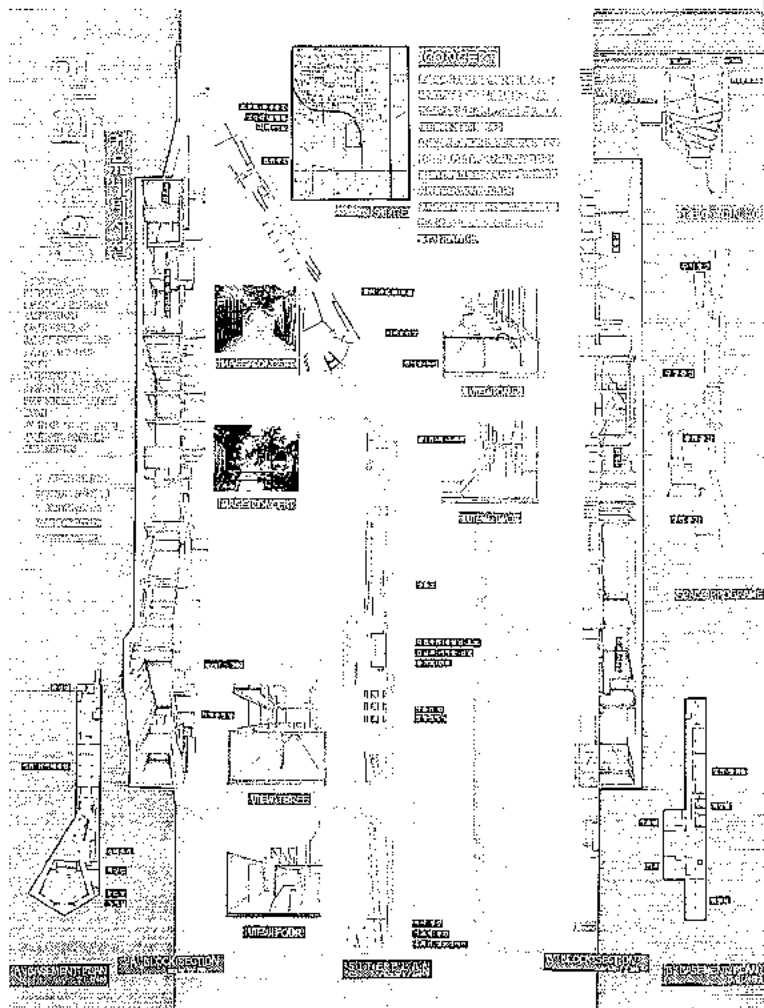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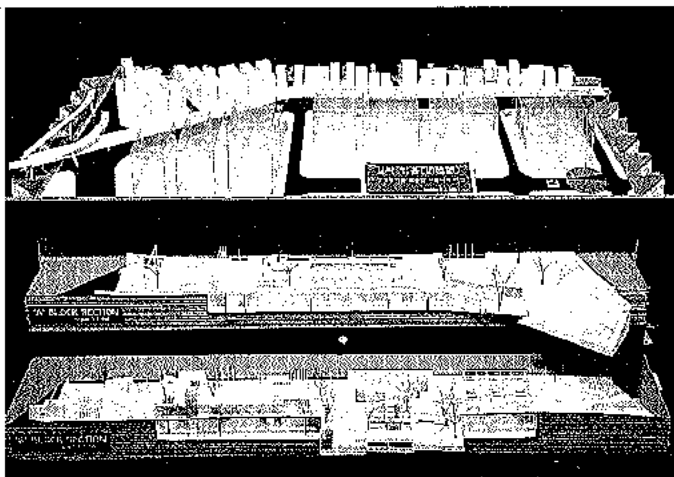
사이트는 가회동의 도시 한옥조직 중 압적 제거요소를 선택하였다. 함께 일하는 사무공간과 공용의 휴식공간 그리고 사적인 휴식영역의 3개의 레이어로 구분된다. 또한 업무층은 가회동의 촉각적 공간 특성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레벨차로 이루어졌다. 공용의 휴식공간은 외부공간인 마당으로 열린 구성을 가진다. 일과 휴식이 일정시간에 정해지기 보다는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 지도록 각각의 업무공간에서 수직동선으로 직접 이어졌다. 나무아래 일과 나무위의 휴식같은 시스템이다. 개별휴식 공간은 방+햇마루+화장실+계단+외피로 구성된다. 그것은 좁은 필지의 도시 한옥이 갖고 있는 스케일을 받아들이면서 띄워져 있다. 전체적 장소의 유형을 깨뜨리지 않고 3개의 레이어를 담어주기 위해, 높은 레벨차를 유용하였다.



길과 얻음

최명훈 · 전효찬 · 조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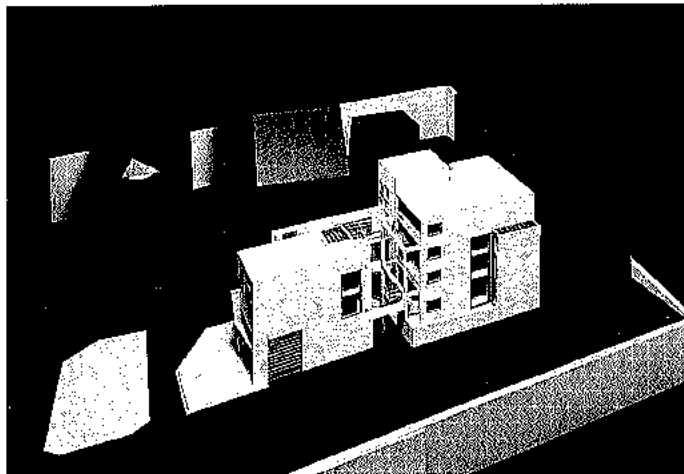
국립밀양대 건축공학과



Concept : 한국적 상황에서의 건축과 기술(Tectonic)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었다. 어떤 지문을 인용하자면 '4000년의 한국의 문화와 기술과학과 기술은 40년만에 파괴되었다 - 김용옥 노자와 21세기 -' 고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 하자면 일제시대와 광복을 전후를 통해 우리의 민족의 모든 문화와 기술은 뿔뿔이 기계처럼 확대되어 순수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수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한국인이지만 진정한 한국의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간파하였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문화 또한 서양의 잣대위에 놓여져 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는 글로벌시대, 세계화, 국제화를 노래하고 있다. 그럼에 따라 기술과 과학은 평준화되어 가고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즉,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인터넷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거의 우수했던 문화와 환경에 바탕을 하는 지금의 건축문화는 형태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단순한 형태만이 아니라 사상적인 정신적인 한국의 혼을 담겨야 할 것이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양사상과 철학에 대한 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였고, 도덕경을 중심으로한 빔, 물, 하늘과 땅을 통하여 얻으려 한다.

Ess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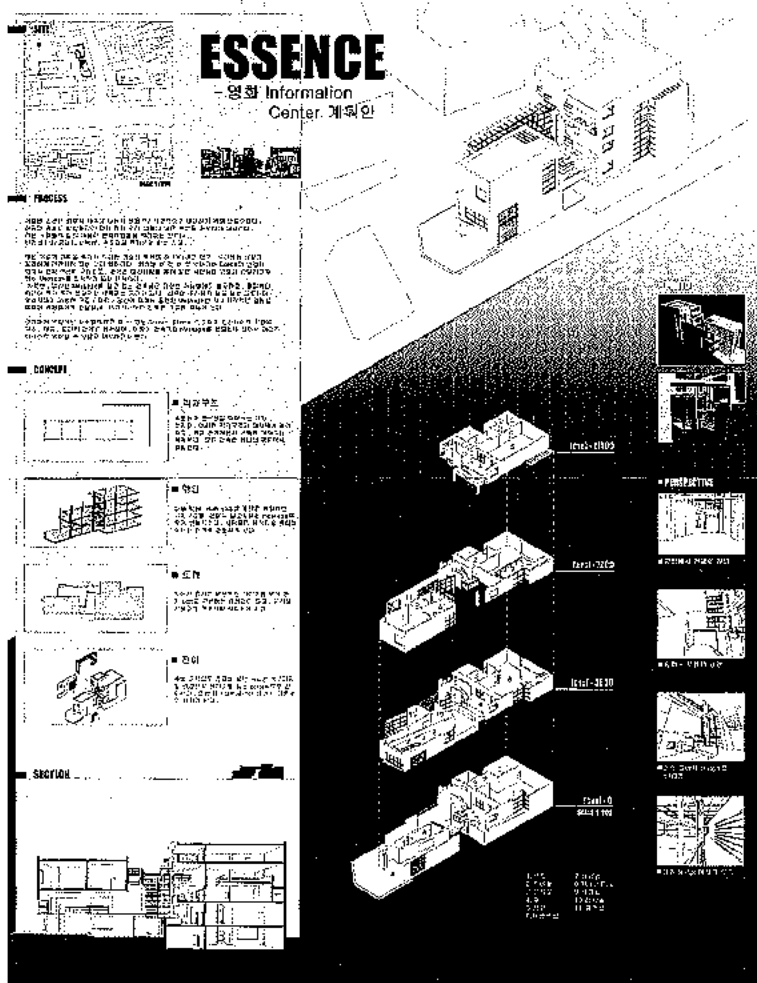
장용태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계획대학원

Process : 기술은 인간이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능동적/객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점차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중성(시/공간), 반복성, 속도감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

많은 기술적 매체들 중에서 이러한 기술의 특성을 잘 나타내면서도,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영화이다. 영화는 한 컷 한 컷 넘어가는 Scene의 연결에 의해서 전체 Plot이 구성되고, 관객은 대리체험을 통해 짧은 시간동안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Message를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Message를 담고 있는 건축물은 다양한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표피적인 측면이 추가되어 본질적인 내용과는 괴리가 있다. 건축은 우리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시대에 가능한 구조/재료/공간에 의해서 표현된 Message는 시/지각적인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여기에서부터 건축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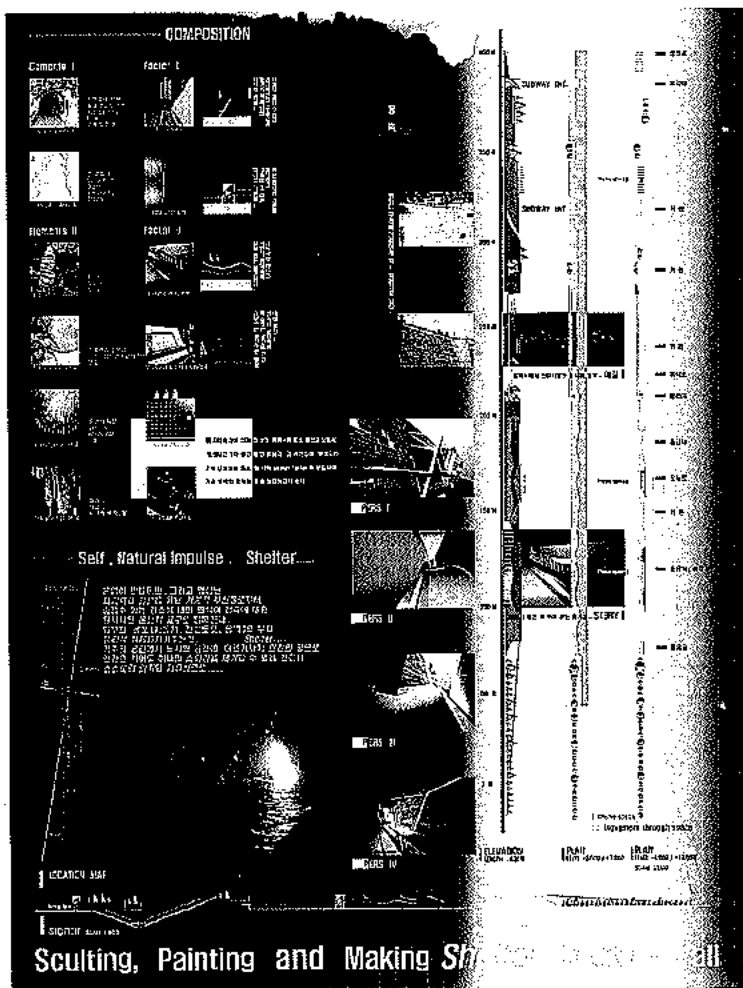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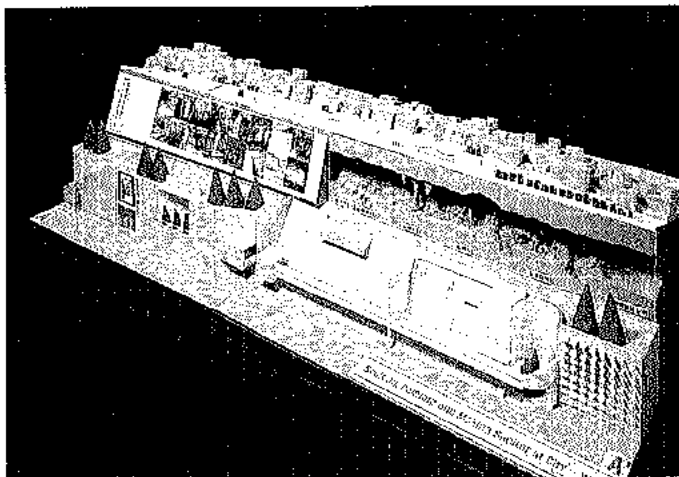
영화에서 본질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Screen, Scene, 이것들과 인간사이의 공간을 구조, 재료, 공간의 관계로 해석하여, 이들이 건축적인 Message를 전달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엮어질 수 있을지 제시하고자 한다.



Sculpting, Painting and making shelter in city-wall

서동수 · 박주영, 류현미

동의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건축학부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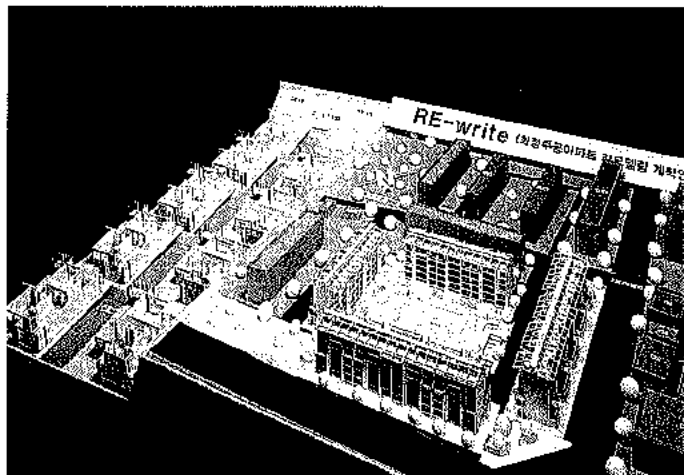


부지 : 본 부지는 부산의 가야로 일대로 부산시청이 이전 건축됨에 따라 도심을 향한 도로의 확장과 늘어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도로폭이 50m정도로 확장. 이에 기존 부지는 기존의 웅벽이 더욱 높고 경사도가 직각인 상태로 건설되었으며, 그 일부에는 지하철이 건설 비좁은 웅벽사이를 그 출입구로 하고 있으며, 그 길이 또한 430m로 엄청나다.

Concept : 먼저 Shelter를 강조하고 싶다. 문명이 만들어낸, 그리고 엄청난 파괴력과 질병을 지닌 기계적 부산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의식... 건축에 대한 원시적인 본능적 요구... 외부의 공포(자동차, 간선도로, 웅벽)로부터 물리적 실체를 지켜주는 것.

Shelter... 거주 공간에서 도시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장으로써... 인간은 적어도 하나의 소외감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스스로의 의지와 자유성으로 가능할 것이다.

Re-write



박진아

동신대 건축공학과 2년

RE-write (화정주공아파트 리모델링 계획안)

Project Description : 20여년전에 지어졌던 중·저층 아파트들이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운암주공과 화정주공이 그 당시에 개발되었던 곳이다. 운암주공은 재개발이 확정되어 또다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20년전에 그 랐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 또 다시 재개발이... 이러한 원인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수요자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안과 밖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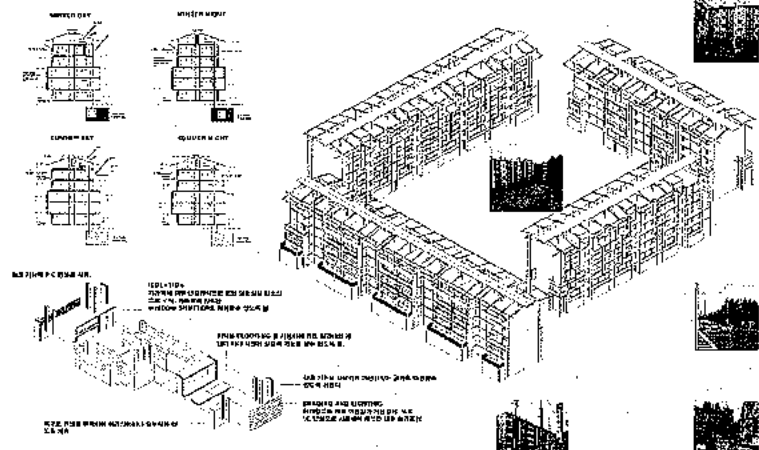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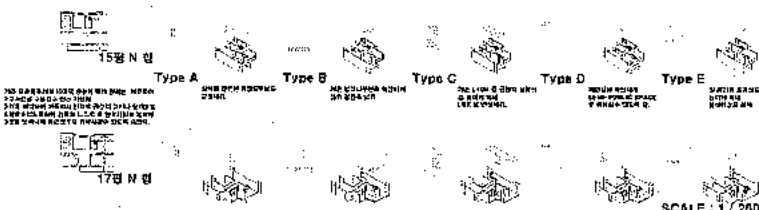
Design Process : 기본 표준형의 평면에서 발코니 부분을 실로써 유입시켜 내부 공간을 넓히고, 여기에 외부 공간을 확장시켜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변하는 가변형주거를 선택했다. 외부공간 확장시 철골조에 플로팅과 p.c패널들을 사용하여 조립식 구조로 계획변형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건물내의 에너지 절감과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쪽면에는 블라인드와 목재, 유리를 사용하였고 북쪽면에는 외부단열로 보강을 하고 단열셔터를 설치하여 겨울철과 야간에 내부열이 밖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했다. 기존 옥상층에 목구조 지붕층을 설치 Air Space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곳은 지하에 설치되는 Air Tank와 연계되어 공기에 의한 보조 냉·난방을 계획하였다.

유조층 2000년전에 지어진 원. 자를 이리저리 돌아다 보면 새마을에 대한 재개발이 바람직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운암주공과 화정주공이 그 당시에 개발되었던 곳이다. 운암주공은 재개발이 확정되어 또다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20년전에 그 랐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 또 다시 재개발이... 이러한 원인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수요자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안과 밖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제 1차년도 2000. 10. 10
제 2차년도 2000. 11. 10
제 3차년도 2000. 12. 10
제 4차년도 2001. 1. 10
제 5차년도 2001. 2. 10
제 6차년도 2001. 3. 10
제 7차년도 2001. 4. 10
제 8차년도 2001. 5. 10
제 9차년도 2001. 6. 10
제 10차년도 2001. 7. 10

EXISTING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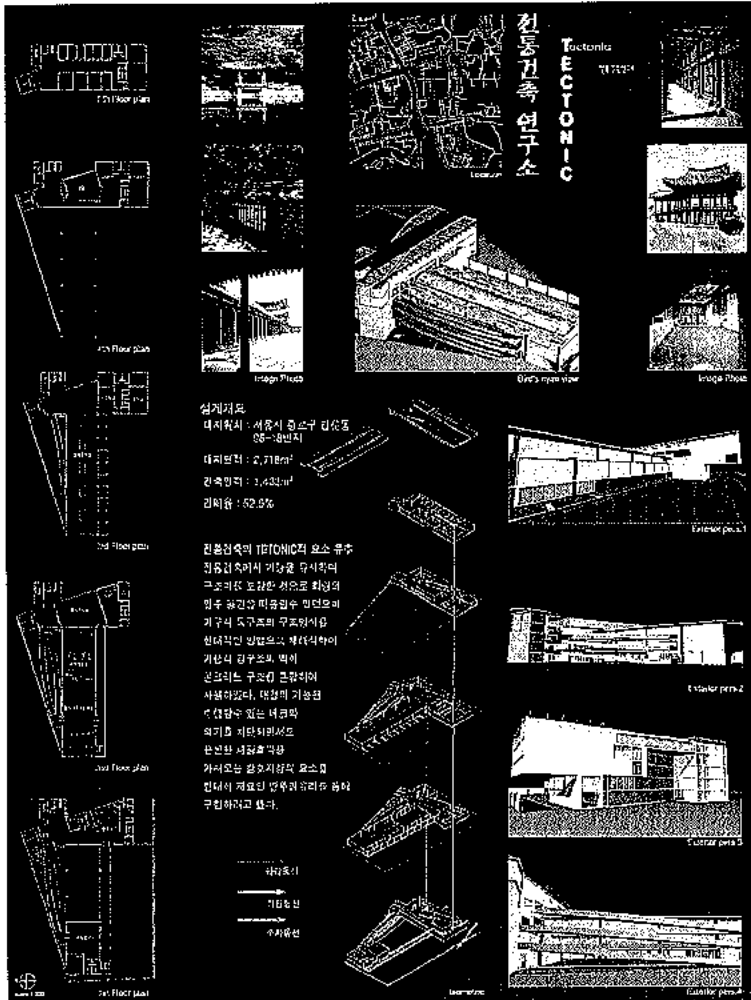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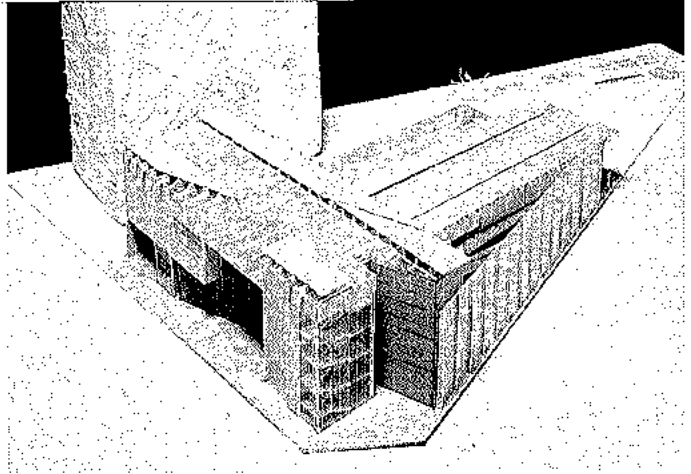
NEW PLAN (internal + external expansion)



전통건축연구소

박종철, 정세영, 이소영

홍익대 건축공학과 4년



한국의 Tectonic이란 주제를 접하면서 그동안 배워온 지식들을 모두 동원해도 해결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을 했다. 그간 건축계에서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두가지 요소가 접목하여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며, 자칫 불협화음을 낼 수 있을 어려운 과제이고, 또 그렇게 지어져 흉물스럽기까지 한 건물들을 보아왔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으나 Tectonic이란 것을 매개로하여 전통과 현대를 조화있게 접목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속에 한국 건축을 구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도가겠기에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지역성 해석 : 대지위치가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하며 돈화문에서 운현궁으로 향하는 역사의 축의 중심부로서 도심 속에 남아 있는 전통건축의 현물을 접할 수 있는 위치이며, 반대편 상업지구와의 절충지역으로 전통과 현대가 맞물려 있는 위치라 해석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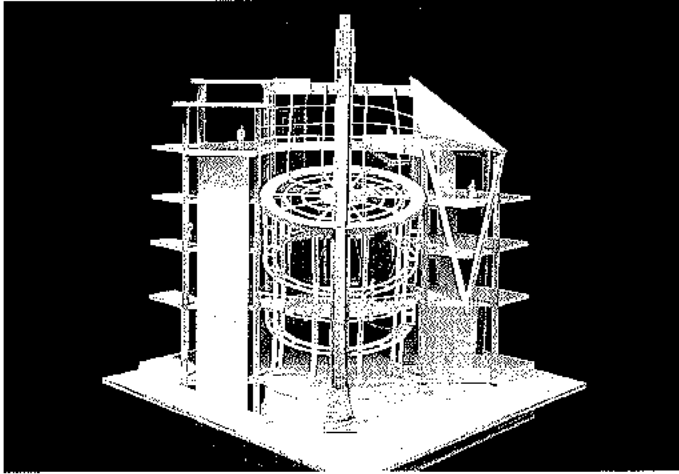
전통건축의 Tectonic적 요소 유추 : 전통건축에서 기능을 유지하며 구조미를 포함한 것으로 회랑의 열주 공간을 떠올릴 수 있었으며, 기구식 목구조의 구조양식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재해석하여 기둥식 강구조와 벽식 콘크리트 구조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대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테크와 외기를 차단하면서도 은은한 채광 효과를 가져오는 창호지창의 요소를 현대적 재료인 반투명 유리를 통해 구현하려고 했다.

Architecture- Eco Symbolicque

김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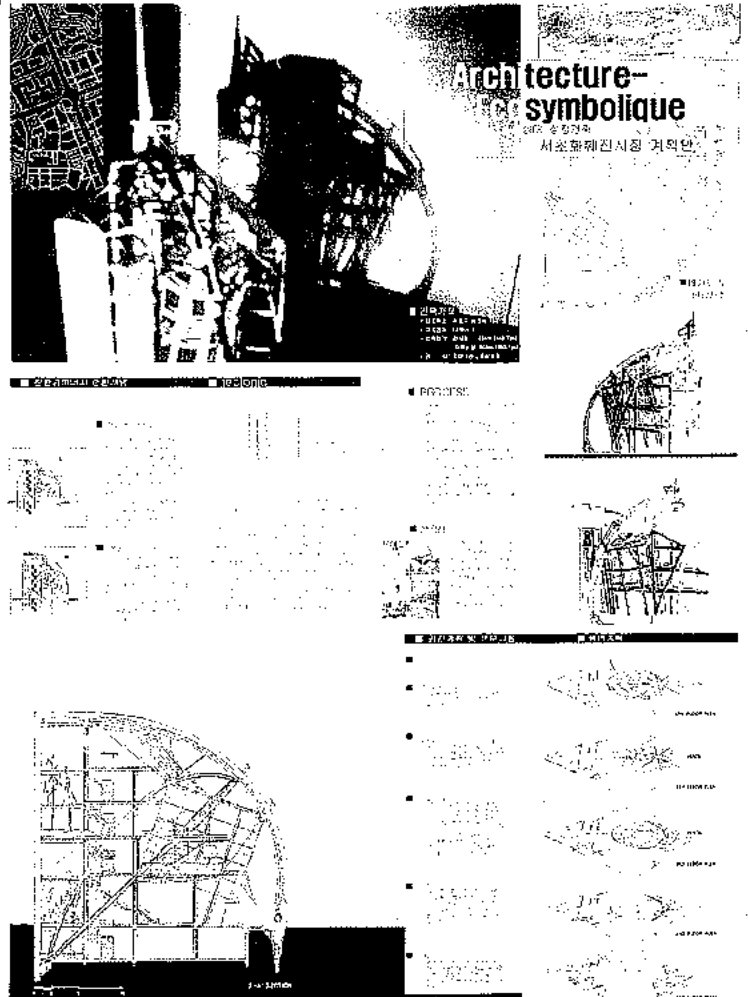
경원대 건축학과 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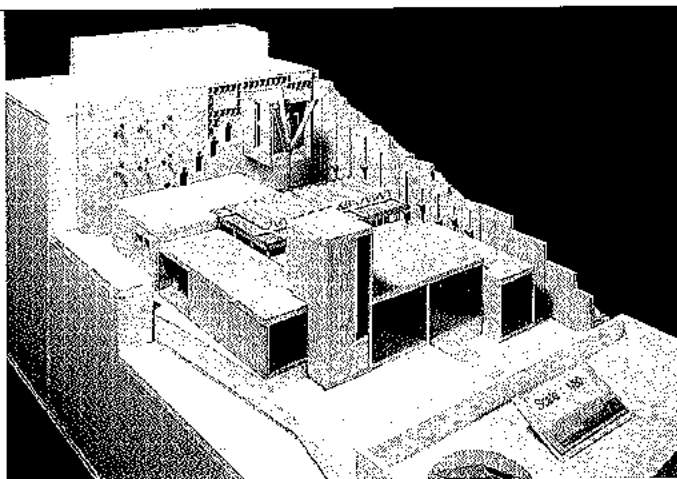
Process : Site는 서초역 사거리, 법원 맞은 편 화훼단지이다. 삭막하고 개성없는 건물군들의 확장을 막는 부속벽과 같은 역할을 하며,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변에서 시선을 끌어 들여 화훼 전시판매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환경 건축으로서의 철골구조의 가능성, 투명성의 특징을 살리도록 노력하였고, 형태의 다양성으로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온실전시장 : 고딕 시대의 버트레스를 응용한 구조 방식. 도시 블록의 확장으로 점차 무미 건조해지는 거리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의 잠식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형태로 팽팽히 당긴 활시위의 긴장감을 잠근로에서 연출해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징성과 형태적 역동성을 나타낸다. 전면도로로부터 행인을 유도 자연스러운 만남의 광장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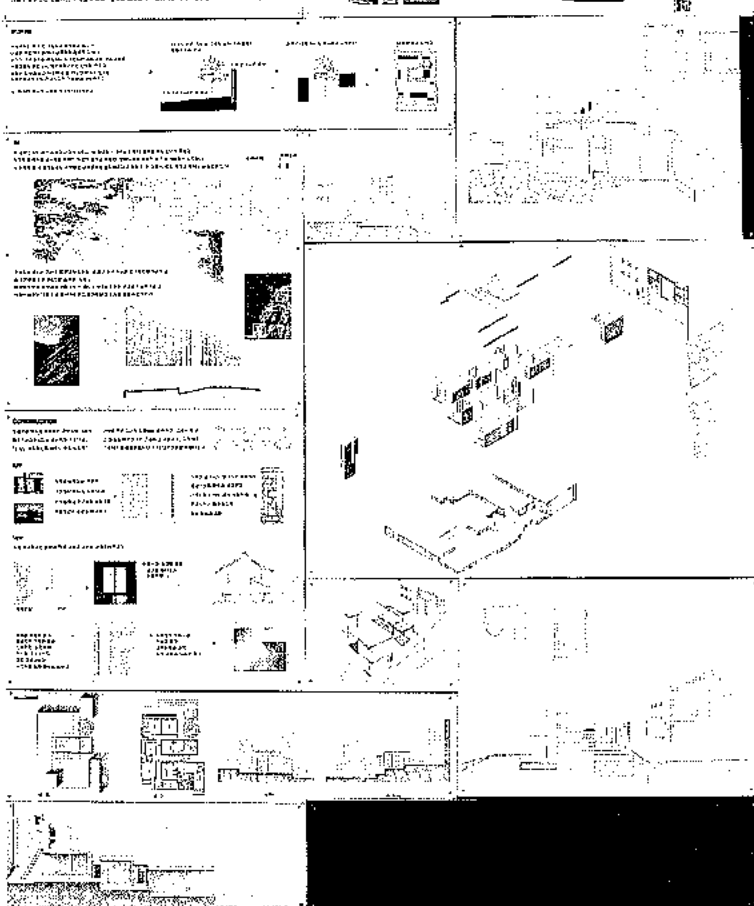
Tectonic : 온실+사무실공간+중앙온실구조+중앙온실, 각 공간은 독립된 골조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 각각의 구조는 사무연구공간과 상징적이고 대중적인 온실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철골조와 온실을 이용한 에너지 순환시스템으로 친환경적이고 구조미와 조형성을 갖춘 건축물 추구하였다.



이오콘설타트 건축사사무소,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한글교과서 2학년 국어책에 ‘한글’이 들어간 게 처음이다. ‘한글’이 들어간 국어책은 1947년 12월 10일 나온 1948년 1월 10일 2학년 국어책이다. 이 국어책에는 ‘한글’이 10번 정도 나온다. ‘한글’이 들어간 국어책은 1947년 12월 10일 나온 1948년 1월 10일 2학년 국어책이다. 이 국어책에는 ‘한글’이 10번 정도 나온다. ‘한글’이 들어간 국어책은 1947년 12월 10일 나온 1948년 1월 10일 2학년 국어책이다. 이 국어책에는 ‘한글’이 10번 정도 나온다.”



“건축이 갖게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만 고려하더라도 이미 건축과 관계하는 구조적인 원리, 테크놀로지, 산업, 자본의 논리, 재료에 대한 기존관념 등과 복합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현대건축의 내면화된 체계는 역지로 조직된 새로움이기보다는 현재와 함께 역사, 관습, 전통에 대한 태도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대건축은 신재료와 기술의 객관성에 의해 구축되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료의 접합도 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기계도 아니다. 물질과 기술의 구축물이지만 이 구축물이상의 의미를 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다.

리모델링 · 리폼으로 눈을 돌리자

Discovering a New Field : Remodeling and Reform

이종호 / (주)시원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우리 나라도 이제는 개발의 시대가 끝나고 관리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다보니 개발의 전성시대에 주연으로 등장, 주가를 높여왔던 건설 · 건축업계가 무대의 뒤로 퇴장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다. 단지 IMF라는 외국 감독에 의해 그 시기가 급격히 앞당겨진 것일 뿐이다.

경제 성장의 주역에서 하루아침에 퇴물로 전락한 건설 · 건축업계가 중병에 걸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눈 하나 깜짝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처방하고 치료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식이다. "남들은 모두 IMF의 그늘로부터 졸업도 하고 퇴원도 했었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건설 · 건축인들한테서는 무거운 한숨과 나직한 신음 소리만 들릴 뿐이다. 우리도 살고 건물도 살리는 길이 필요하다. 이제 세상은 변했다. 과거는 영광의 상 처로 묻어 버리고 앞으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건축업계가 지금까지 해 왔던 신축 건물설계와 감리업무가 물량의 감소로 한계에 다다른 이상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간 건축사의 업무이면서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건축물의 조사, 감정 업무와 사업개발의 타당성조사(일명 컨설팅업무),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및 개보수(리모델링 · 리폼)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신축건물의 설계와 감리업무에만 매달려 오는 동안 이와 같은 우리 고유의 영역이 부동산 개발업자, 인테리어업자 등에 넘어가 무자격 시비와 아파트의 무분별한 무단 구조 변경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본래의 영역을 되찾아야 한다. 특히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건축사들이 오래되고 병든 건축물들을 나몰라라 방치하고 기술력과 건물구조에 대해 문외한인 무자격 집수리업자의 손에 맡기는 것은 적무유기일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철저히 단속하면서 무면허 건축행위는 관대하고 법으로 일정 범위까지 보장을 해 주고 있는 정부 당국에도 물론 책임은 있다. 의료사고는 개인에 국한될 수 있지만 건축사고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건축사들은 건물 개보수시 구조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계획

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집단이다. 건축사의 사명인 건축문화의 창달과 공공복리의 증진은 결코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산고를 겪으며 힘들게 자식을 낳았다면 성장과정도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닌가? 사람들은 새로 짓는 건축만이 능사인양 알아왔다. 새로 지을 빈땅이 없게 되자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멀쩡한 집을 헐고 다시 지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허용하다 보니 「아파트의 수명은 20년 정도」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남의 돈으로 더 큰 새아파트를 얻을 수 있으니 마다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자기 돈 내고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면 20년만에 살던 집을 허물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재건축을 위한 철거비용과 환경오염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 들어 13평 짜리 5층 아파트 13동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은 2만5천 ~ 3만㎡에 이른다. 가로 세로 1m 너비로 2만5천 ~ 3만m의 석탑을 쌓을 수 있는 분량이다. 게다가 이 폐기물은 강알칼리성으로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외국에는 1백년 이상 된 건물도 많이 있다. 도심에 수 백년 된 건물들이 즐비한 로마나 파리의 모습에서 그들의 문화적 힘을 느끼게 된다. 일본의 경우 1923년 도쿄를 강타한 관동대지진 직후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금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오래된 건물에서 생활하자면 불편한 점도 많고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따른 수명은 얼마나 될까? 한국감정원이 99년 1월 12일 발간한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르면 주택용도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 건축물의 경제적 수명은 35~5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민법에서는 콘크리트 건물 수명을 6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웬만큼 지은 콘크리트 건물은 70~80년 이상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건물 구조가 아니라 기능, 재료, 설비의 노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리모델링·리폼에서 대안을 찾자

건축법 개정('99.5.9) 으로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이 쉬워진 반면 아파트 재건축 관련 규제가 심해지면서부터 리모델링·리폼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선진 외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리모델링·리폼이 전체 건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일

본 25%, 유럽35~40%, 미국 20%인데 반해 우리 나라는 아직 통계조차 잡혀 있지 않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만은 확실하다.

정부에서도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기존 주택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리모델링에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건설교통부는 15년 이상 고층 아파트의 내부 배관 등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사업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층 아파트 입주자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받아 난방배관, 상·하수 배관, 전기, 창틀 등 교체와 옥상방수 등을 보수할 수 있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둥과 내력벽만을 남겨 놓고 구조를 완전히 바꾸거나 외부 디자인까지 바꾸는 작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의 손길이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정부 당국에서도 리모델링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행위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축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설계 감리는 물론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까지 기능토록 제한한다.

앞으로 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독일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통일 후 동독의 일시적인 건축수요에 과잉 공급으로 대응한 결과 10년이 지난 오늘날 건설업체들이 동반 몰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한 그들이 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리모델링·리폼이다. 주택, 발당은 물론 공공건물에게까지 그 영역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 건축·건설업체가 귀담아들 필요가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만 희망이 있다고 했다. 리모델링·리폼은 결코 이삭줍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체농법상 특용작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들녘에서 묵묵히 다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圖

건축사 처벌 강화와 씨랜드 사건

The Sea Land Incident and the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on Architects

박순종 / 건축사사무소 예지
by Park Soon-Jong

만약 검사가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범법을 못하게 하라. 의뢰인이 범법을 하면 변호사 당신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우스개 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은 이런 일을 버젓이 시키고 있다. “건축주가 위법을 못하게 하라. 건축주가 위법을 하면 건축사를 처벌하겠다”. 설계비를 주는 고객 건축주를 감시하고 감독하여 고발하라는 것이다. 변호사는 범법자가 있음으로 존재한다. 공무원도 국민이 있음으로 존재한다. 건축사는 건축주가 있음으로 존재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공무원은 국민을, 건축사는 건축주를 보호할 원천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는 건축주를 고발해야 처벌을 안 당한다! 마치 공산 국가에서 아버지를 고발해야 살 수 있는 아들처럼.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떤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길까? 설계는 잘하지만 건축 허가·사용검사를 잘 못하는 건축사에게?, “위법 위법” 하며 건축주 고발하는 건축사에게?, 예술적인 설계는 잘하지만 안 팔리는 집을 설계하는 건축사에게? 위법건축주를 고발하면 소문이 나 설계를 못한다. 오히려 위법요령을 알려주고 준공비 듬뿍 받아 처벌권자에게 로비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자도자들로부터 배운 사업가의 진면목 아니던가? 건축사들에게 치열한 설계수주경쟁이 있듯이 건축주들에게도 치열한 판매경쟁이 있다.

옆집이 적당히 위법하여 큰 이익을 남긴다면 준법하는 건축주만 바보 아닌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착공검사·중간검사·사용검사를 하는데 이 일을 소위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라고 한다. 그동안 이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를 이해 당사자인 건축사에게 대행시켜 왔다. 절대 시키면 안 되는 일을 시켜왔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주인이 나쁜가, 고양이도 나쁜가? 건축주! 스스로가 시공한 집을 사용검사하여 팔아먹는다면 아마 환상적인 사업일 것이다. 마음대로 위법·부실하게 지어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건축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버젓이 24년간이나 있어왔다. 건축주 자기가 고용한 감리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니 건축주 자신이 사용검사한 것이나 같다. 이런 환상적인 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났나? 위법 없는 건축물이 과연 존재하는가? 씨랜드 화재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등.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이다. 국가의 업무를 민간인에게 시킬 때에는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 일을 시키고 정당한 보수도 아니 주면서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 의제라며 깡패처럼 처벌이라는 주먹을 휘두른다. 건축사들은 왕따 당하는 어린 학생처럼 어디 가서 이리지도 못하고 반항도 못한다. 노예근성이다. 사람답게 살 권리인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건축사들 인권이 짓밟혀도 국민들의 생명이 보호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붕괴되는 건물로 희생되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건축사들 스스로 감리를 잘못해서라고 자책을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론 모든 언론도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감리는 무엇인가? 감리는 건축주가 주는 감리비 받고 건축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데 감리가 무슨 필요란 말인가, 착각하지 말라. 무지몽매한 건축사들이여, 아무리 근사한 이야기를 해도 건축주의 돈을 받는 것만은 사실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설계비·감리비를 주지 않는다. 건축사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지켜 주어야 할 건축사협회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제 건축사 처벌을 강화하여 씨랜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한단다. 언제는 건축사 처벌이 약했나? 공무원 의제로 징역 5년 이랬다 7년 이랬다! 위법·부실 건축을 막으려면 건축주들에게 위법·부실 건축을 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엄격한 착공검사·중간검사·사용검사를 하여야 한다. 더 이상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에게 무보수로 일 시키고 책임지우는 직무유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 건축사는 건축주가 있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 하지 말아야 한다. **圖**

제4차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참관기

After Visiting The 4th Korea China Japan Resistered Architects Organizations Meeting

올해로써 한중일 3국이 서로의 등록건축사제도를 이해하고 점진적으로 3국 건축사 상호인증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연례적으로 만난 것이 4번째된다. 올해는 중국등록건축사 국립관리사무소 주최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상해 바셀로 그랜드호텔에서 회의를 가졌다. 중국은 Lin Xuanai 등록건축사 국립관리사무소 소장의 7명이, 일본은 Watanabe Sadao 일본 건축사 및 건물기술자연합회(JFABEA)부회장과 5명,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의구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7명이 참석하였다. 금년회의 참석자중 특기할만한 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건설관련 실무공무원이 참석하였다는 점이다. 중국측에서 제시한 공식일정중 25일의 발표 및 토론주제는 오전에 '각국의 건축사 상호인증과 국제화'에 대해서 오후에는 '건축사의 계속교육과 기술개발 그리고 건축동향'에 대한 것이었고, 26일에는 동제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1급 건축사등록시험중 설계시험의 참관, 세계최대 규모중 하나로 알려진 상해 현대건축설계(집단)유한공사 방문 및 상해 박물관 관람이 있었다.

흥미로운점은 중국은 이미 체제의 이점을 살려 정부의 주도하에 각 선진국의 건축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새로운 교육제도(5년제)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일본과 한국은 연구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건축사관련기관과 상호인증협약이 마무리 과정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다고 관망하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건축사자격제도에서 1급과 2급의 등급을 두어 1급은 국제수준의 건축사자격으로 2급은 국내건축사의 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국제, 국내수준의 등급은 아니지만 1급, 2급 그리고 Mokuzo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은 현 국내 건축사제도와 다른점이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호인증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나 중국은 새로운 제도에 자신감을 갖고 한국, 일본이 중국제도에 맞추기를 바라는 눈치가 엿보인다고 볼 수 있다. 오후의 젊은 건축사의 토론내용에서도 중국과 한국, 일본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했다. 중국은 5000년 역사의 문화유산 등에 비중을 두어 중국건축의 현실이 세계화되고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듯한 뉘앙스를 주려고 노력한 반면, 한국, 일본은 주어진 주제에 충실히 준비한 내용을 피력하고자 했다. 특히, 이필훈위원이 발표한 '90년대의 한국 건축의 흐름'의 내용중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전통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본대표들이 동질성을 느끼고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26일 아침 동제대학에서 치르고 있는 등록건축사자격시험 마지막날 시험과정인 건축설계시험을 참관했다. 중국의 자격시험은 크게 9과목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5년내 9과목을 다 통과해야만 하도록 되어있다. 5년내 다 통과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고, 과락이 있지만 그해 그해 인원충족수에 의해 조금씩 변경된다고 한다. 금년 시험에는 총 3,500명 정도가 시험을 치루고 있고, 한사람이 일년평균 3과목 정도를 본다라고 한다. 특히 당일 치뤄진 설계시험은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동안 치뤄지며, 종합설계시험의 방식으로 보는 한

국의 건축사시험과 다르게 6개부분(평면, 계획설계, 단면설계, 평면배치(가구), 냉방/조명/소방, 구조단면)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시험분위기는 한국과 비슷하였다.

상해 현대 건축설계집단(SMAD)은 동중국 건축설계연구원과 상해건축설계연구원의 두 기관을 합쳐서 현재 2,000명의 중국 최대규모로 설립된 설계회사로 상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이는 100~150명의 소집단으로 나뉘어져 각 분야별 영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해시의 현대고층건축물 및 주요건축물의 대부분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설계집단을 민영화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했다. 이틀간의 협의를 통해서 느낀점은 사회적 구조의 이점을 앞세운 중국이 건축사제도 및 교육제도를 국제화쪽으로 쉽게 발을 내디딜고 있고, 이에 대해 중국 대표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보다는 복잡한 사회적 현실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시장의 거대함을 알고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유리한 상호인증의 조건을 끌어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모색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 3단체와 건설교통부, 교육부 실무책임자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느껴진다. 2001년 3국협회의는 경주에서 치를 예정이고, 이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이 실질적인 상호인증에 접근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토론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각국의 발표된 내용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중국에서의 건축교육인증과 국제상호인증 - Lie Zhucheng / 중국등록원 국립관리사무소 부소장

현재 77개대학이 건축과를 갖고있고, 이중 37개는 5년제이고 40개는 4년제로서 총 20,000명 정도의 학생수를 갖고있다. 건설부는 건축교육향상 및 학교교원, 설계경기 등을 통해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National Steering Committee of Architecture for Universities

(NSCA)와 National Board of Architectural Accreditation(NBAA)의 기구를 두었다. 등록건축사제도 및 인증제도를 위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의 제도에 대해서 8년간 연구한 끝에 1995년 중국제도를 만들었다. 중국의 등록건축사제도는 국제적인 특성과 중국적인 특성을 살려서 이원화된 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1급 건축사는 국제기준에 2급건축사는 중국 국내의 중, 소규모 도시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NBAA 인증을 통과한 학교는 92년부터 청화대학을 비롯해 21개 대학이다.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도모하기위해 선진국 위원회위원이나 교수들의 교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RIBA, NAAB 그리고 홍콩 등의 인증제도를 관찰하고 정보교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인증제도를 보완해오고 그 결과 1999년 12월에 홍콩과 상호인증을 체결하고 미국의 AIA와 NAAB와도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상호인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호인증을 위해서는 첫째, 양자가 인증절차방법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유사성을 가져야 하고 둘째, 양자가 학제요구조건과 실무기준에 대해 대응하여야 하고 그리고 셋째, 인증에 통과한 한나라의 후보자는 상대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외국건축사를 위한 등록절차 - Nishio Shinji / 건설부사무관

일본 건축교육 및 정보센터가 the Kenchikushi법에 의거 건설부에 의해 1984년 1월 30일 시험을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1급과 2급 그리고 Mokuzo Kenchi-kushiro 나뉘어져 있다. 외국에서 Kenchikushi와 동등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건설부나 지방의 단체장이 자격을 인정할 경우 1급 또는 2급 Kenchikushi를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정된 일정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2단계의 시험을 볼 수있게 되어있다. 첫단계는 4개의 주제(건축계획, 건축법규, 구조, 시공)이고, 두번째 단계는 설계와 제도시험으로 되어있다. 제일 한국인 응시자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한국 일부대학의 학제는 일본과 동일하



각국의 건축사상호인증과 국제화, 건축사의 계속 교육과 기술 개발 그리고 건축향상 등에 대한 토론 과정

게 인정하고 있다.

등록건축사의 상호인증 준비상황 - 이관영 / KIRA

UIA의 권장기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WTO의 등록건축사의 상호인증 및 건축용역 자유교육 요구조건에 맞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진행해 오고있다.

협회에 다루어야 할 3가지 이슈

- 현 건축사등록 제도에하여 면허를 받은 국내건축사
- 현 제도하에서 건축사등록시험을 위한 자격을 가진 응시자들
- UIA기준에 맞도록 한국건축교육 프로그램을 유도하는 일

한국은 등록 건축사의 상호인증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의무교육 및 훈련의 성공적 완료를 한 건축사에 인증과 넓게 경험을 쌓은 건축사에게 상호인증을 주는 방법 2가지를 고려중이다. 건축교육의 국제화에 있어서는 일부 학교들이 이미 5년제나 4+2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약 8년정도의 term을 갖고 UIA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등한 교육수준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로젝트수행을 위한 등록건축사의 자격 및 역할 - Watanabe Hidehiko / JFABEA

일본내에서 활약중인 건축사의 개인 프로필 샘플자료를 통한 역할 등을 분석했다. 대체적으로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품질향상 - Tokunaka Koji / JFABEA

등록 건축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의 책임감과 사회적 책임감에 충실해야 한다. 등록 건축사는 용역비와의 금품수수 금해야하고,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이익을 남겨주도록 요구받는다.

- 적합한 계약서 작성, - 건축주에게 정보를 공개의무, - 불법건축사의 처벌, - Kenchikushi법에 의해 계속교육에 대한 의무; 건설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필요시 단기교육을 계획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한국 건축사의 계속 교육과 기술개발 - 신춘규 / KIRA

등록건축사의 자기훈련은 건축사 각자의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실무를 통해 직접적인 방법이나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자기훈련을 하게된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등록건축사의 윤리규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KIRA는 14개 조항으로 된 건축사 윤리규약을 갖고있다. 법적으로 건교부장관이 필요시 계속 교육을 년중 7일이내에 관하여 명할 수 있으나 안 받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크게 구속력은 없는 편이다. 건축사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다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설계기준에 대한 최소 한도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유도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보증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법적 지침으로 심의 제도에 의해 filtering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지난 10년간의 건축동향 - 이팔훈 / KIRA

1990년 초기부터 중반기까지는 '모약의 시기'로 건설붐이 기술발전을 앞지른 시대이며, 1990년 중반 이후, 대형건물 등의 붕괴되는 재난 등으로 건축적위기를 겪었으며, 1990년 후반에는 IMF위기를 지냈다.

설계경향 : 1990년 이전은 한국 전통주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의 시기로 전통 한국 건축의 형태의 재현에만 치우친다. 또한 1990년 초기에는 '국제화'에 따른 전통성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얻었다. 전통의 현대성 및 새로운 표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독특한 주택문화 : 아파트단지 개발이 도시 내외 지역의 가장 일반적인 타입으로 개발되고 있다. 정부에서 분양가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고급주택 고층건물(주상 복합건물)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는 바로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되어 새로운 스타일의 주택이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실험되어 지는 상황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지만 현재의 어려움이 밀레니엄시대의 잠재적 성장과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일궈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새시대의 새건축 상하이 스타디움 - Chen Guoliang

상하이 스타디움은 Xuhui District내 상하이 스포츠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는 총 360,000㎡의 면적을 갖고 있다. 건축물 연면적이 170,000㎡, 건축면적이 50,000㎡에 달하고 105m x 68m의 축구장, 400m 육상 트랙과 7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됐다. 또한 350개의 객실을 갖는 호텔과 18,000㎡의 스포츠클럽, Sea World, 그리고 10,000㎡의 상가와 전시시설이 계획됐다. 1997년 10월 12일에는 제8회 전국체전의 개회식을 가졌다. 상하이의 새로운 도시적 조망을 가질뿐만아니라 정신적문명의 중요한 상징적 장소로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스타디움이라고 한다. (신춘규 / 본협회 국제위원) 圖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9) 참관기(1)

After Visiting The 9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 김지덕 (본협회 국제위원)

제21차 이사회 / 오근석 (본협회 국제위원)

제5회 아카시아 건축상 / 이정근 (본협회 국제위원장)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9)

금년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는 Malaysia Kuala Lumpur에서 2000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16개 ARCASIA 회원국 중 몽고를 제외한 15개국에서 각 건축사협회 회장, 국제관련 건축사, Student Jamboree 관련 건축과 학생 그리고 말레이시아 개업 건축사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며 성대히 개최되었다.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 주관으로 거행된 금년 회의에는

- 1) 명예암원 회의(Fellowship Meeting)
 - 2) 국제기구 회의(UIA 4지구 회의, CAA 회의)
 - 3) ARCASIA 임원회(Office Bearers Meeting)
 - 4) ARCASIA 이사회(Council Meeting)
 - 5) ARCASIA 교육위원회(ACAE)
 - 6) Student Jamboree
 - 7) ACA-9 Session 개막식
 - 8) ACA-9 Session
 - 9) ACA-9 우정의 밤 행사
 - 10)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 창립 80주년 행사
 - 11) ACA-9 폐막식
 - 12) 건축물 견학행사 등
- 다채로운 행사가 거행됐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의구 회장님을 비롯하여 국제위원회 위원장 이정근 이사, 이근창 부위원장 등 각 국제위원회 위원들이 이사회 및 각종 행사·모임에 모두 참석하여 각 나라의 현재 처한 자국의 건축사 위치에 대한 여러 방면의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나라의 문제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고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많은 정보를 얻어 귀국하였다.

각 국가별 「건축 설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 나라 건축사를 대표하여 이필훈 위원의 연구 발표도 많은 찬사를 받았고, Key Note Speaker로 초청된 류춘수 회원의 건축 철학에 관한 초청강연도 좋은 반응으로 참가한 모든 건축사들로부터 칭송이 있었다. 또한 영국의 Michael Hopkins, Malaysia의 Cecilia Oh, 홍콩의 Rocco Yim, 싱가포르의 Tay Kheng Soon, 일본의 Tetsuo Furuich, 호주의 Gabriel Pool 등의 작품도 소개되어 찬사를 받았다. 환경 설계에 대한 각국의 건축사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고, 21세기 건축교육 문제에 대한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각국 건축사 대표들의 관심이 되기도 했다.

WTO 서비스 무역협정 구체적 약속과 ①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②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④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등에 관해서는 초미의 관심으로 각국 대표들이 많은 양허표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경청하였다.

학생들을 인솔하였던 김홍일 위원의 노고가 특히 컸다. 학생 Jamboree 행사에 참가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카시아회원국 학생대표들과의 대화에서 ASIA 국가간 건축이라는 학문의 세계에서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왔으며, 더욱이 좋았던 것은 아카시아 각국의 동료들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에 이인호 국제위원, 조성중 한국건축가협회 국제위원장 등이 교육위원회 Workshop에 참가하여 건축학 교육의 Studio 교육 방식, ARCASIA 건축대학교 문제, CODHASIA (Conference of Deans & Heads of Architecture School on Asia)의 새로운 제안, 학교의 새로운 program의 제안 등 구체적 논의를 제안 받아 계속 연구하기로 하는 등 좋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건축사들의 관심들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

되었다.

항상 국제회의 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외국의 건축사 활동을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런 나라들처럼 건축사가 제구실을 하는 제도적·법적·행정적 뒷받침이 될 것인가가 부러워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많은 건축사들이 참가해서 좋은 경험들을 익히고, 또 체험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발전상에 건축을 전공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탄식하며 이 참관기를 썼다. 세계는 이제 자국의 건축사가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며 모두가 초광속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있다. 이 시점에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는 필자로서 우리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참관기를 썼다. 아울러 이런 행사에 앞으로 더 많은 건축사들의 참관을 바라는 바이다. (김지덕 / 본협회 국제위원)

제21차 이사회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9)는 2000. 9. 3일부터 9.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작년 서울에서 아시아 건축사 포럼을 개최한 우리로서는 지난 대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KIRA)와 대한건축가협회(KIA)가 ad hoc body 단체로 UIA에 회원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 도움을 받은지라 금번 대회에서 많은 할 일이 있었다.

회장님을 비롯한 국제위원장, 국제위원들을 각각 9월 3일과 4일을 전후해서 서울을 출발하여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였다. 우리일행은 말레이시아 항공의 지연출발로 인하여 이사회 당일인 9월5일 새벽 3시에 쿠알라룸푸르 샹그리라 호텔에 도착하였다.

2000년 9월 5일

아카시아 이사회는 Congress 시작전 이틀 동안 정례적으로 열린다. 이들간의 이사회와 이들간의 congress를 갖고 하루는 현지 건축기행(Architectural

tour)시간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같은기간 동안에 학생들은 Jamboree대회를 갖고 있다.

이사회 회의는 9시부터 시작되었다. 각국 대표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총 16개국 중에 몽고 대표단이 불참하여 15개국이 이사회를 진행하였다. 우선 아카시아 회장인 P. Kasi 의장의 인사말과 그 동안 ACA-9을 준비한 임원들의 인사가 있었다. 또 UIA 회장인 스쿠타스 회장의 축전이 FAX로 날아와 대독되어졌다. UIA 회장인 스쿠타스 회장이 지난해 서울 포름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으며, 우리협회가 UIA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였다. 이어 영연방 회원국(CAA)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동남아 몇 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 회원국(CAA)은 아카시아 대회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시작직전에 필리핀 건축사(UAP)협회 회원이고 ARCASIA 창립 멤버였던 고 멘도사회장에 대한 묵념도 가졌다. 비록 얼마전에 작고하였지만 아카시아 대회가 지금까지 오도록 많은 후원과 헌신적인 활동을 하였던 분이라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본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서울 포름 회의록 정리와 ACAE meeting 관련 회의는 바로 옆 회의실에서 금일 오후부터 개최될 것이며, 의제로는 각국에서 건축과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환 학생으로 서로 초청하여 건축학문의 상호교류를 갖자는 의견의 제시되었다.

이사회는 KIRA가 UIA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우리 협회 회장님은 즉석에서 그 동안 KIRA가 UIA에 가입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준 P. CASI 회장과 아카시아 회원국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아카시아 건축 작품상 시상과 관련하여 해당 작품을 List-up을 하였고, Architect Award 보고 내용

이 있었다. 금번에는 우리 나라 김석철 회원께서 수상자로 결정되어 아카시아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아카시아 회계 보고와 각국별로 회비 각출내용 보고도 있었으며 몇 회원국은 회비 감면 결정도 있었다. 오후 이사회에서는 School of Architecture를 연구해온 태국 건축사협회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보고 내용 중에는 각국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태국 우수 건축대학에서 수학하여 아시아 건축가로 키워본다는 것이었으나 기금문제, 회비 각출문제, 위험부담 자격인증 문제, 학위 인증문제등 제반 문제가 야기되어 토론에 토론을 거친 후에 인도 건축사 협회(IIA)와 태국 건축사협회(ASA)가 공동 연구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현역 건축사의 직위관련, 설계 용역비의 합리적 산정, 설계 Service업의 용역범위 및 건축사 직업윤리 등 다수의 문제를 의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ARCASIA 건축상에서는 3년간(주) 한샘에서 Sponsor를 맡아 매년 미화 \$20,000을 아카시아 건축상 기금으로 후원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아카시아 회장직 임기와 관련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후 1년간은 임시 회장으로 현 회장과 같이 실무실습을 거친 후에 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회비 관련 보고에서 차후 아카시아 대회가 열리는 지역 건축사 협회에서 회비를 관리해야 하는가를 토의하였으나 국가별로 외환 관리법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어 현행대로 시행토록 하였다. 첫날 이사회는 오후 6시쯤 마치고 저녁 Welcome Party가 Main Hall에서 있었다. 말레이시아 전통 무용 공연과 ARCASIA 회장의 인사말과 대회 집행위원장이 각국 대표단에게 정중한 환영 인사가 있었다. 식사와 함께 각국 대표들은 담소하며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졌다.



제21차 이사회 광경(우리협회 이모구 회장은 KIRA의 UIA가입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준 아카시아 회원국대표들에게 감사인사와 함께 상호협력을 다짐하였다)

2000년 9월 6일

이사회 둘째날, 아침 9시 반경에 각국 대표
들이 이사회장에 도착하여 회의는 계속되어졌다. 금번에는
아프리카지역 건축사 연맹(African union of Architect)
전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건축활동 소
개와 건축발전상을 이야기했으며 아카시아 활동에 많은 찬
사를 보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26개 건축대학이 있으며
건축의 미래 동향과 지역적 문화교류 및 건축 정보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홍콩 건축사 협회(HKIA)회원
인 Arch. R. Poon의 전날 Fellowship meeting 내용 보
고가 있었는데 많은 Fellowship Member로서 짧은 시간
에 회의를 마쳐야만 하는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사회에서는
각국 건축사 협회 E-mail 주소 확인 및 각국 Delegate들의
E-mail 주소록을 작성하여 회원 소식을 즉시 알려주도록
하였다. 금번 대회를 통하여 아카시아 회원국의 E-mail on
Line화가 열렸다고 생각되었다.

아 카 시 아 각 회 원 국 은 ARCASIA
Magazine을 위하여 좋은 건축물들의 자료제공과 정보제
공을 당부하였으며 보다 발전된 잡지를 만들도록 분발할 것
임을 약속하였다. 이어 아카시아 Web Site 소개와 싱가포르
건축사 협회(SIA)의 제 11차 아카시아 포럼(2001년)
준비상황을 소개하는Slide show가 있었다. SIA에서는 금
번 ACA9 대회를 사전 답사코저 많은 실무진을 파견하고
있었다. PAM에서는 University of Technology MARA
에서 개최되는 Student Jamboree 참여중인 각국 학생들
의 근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아카시아 전 회장이었던 Arch.
Esa Mohamed 氏의 UIA 헌장에 따른 국제 건축가 연맹
의 건축실무 회의 소개도 있었다.

이어서 각국별로 Country Report 보고가
있었다. 인도 건축사 협회(IIA)에서는 국민자를 위한
Housing 국제회의 개최가 금년 11월 17~18일 뭄바이에
서 있다고 보고했다. 필리핀 건축사협회(UAP)에서는
Millenium 행사로 건축학술 발표회 소개가 있었으며,
KIRA 대표단에서도 IMF를 극복하고 경제 상황의 점차 나
아짐에 따라 현대건축 활동 소개와 금년 11월에 건축환경
포럼이 서울의 ASEM 회의장에서 개최된다는 소개도 잊지
않았다. 오후 Session 에서는 차기 아카시아 대회 개최지
를 주최국 별로 확인하여 알렸으며, 그를 알아보면 오는
2001년에는 싱가포르(SIA)에서 포럼을, 2002년에는 인도
(IIA)에서 아카시아 대회를 Student Jamboree와 함께 열

고, 2003년에 Bangladesh(IAB)에서 포럼 개최를, 2004
년에 마카오(AAM)에서 아카시아 대회 및 잼보리 대회를
갖도록 하였다. 하지만 2004년 ACA대회에서는 마카오 내
에 건축대학이 없는 이유에서 학생 잼보리대회는 홍콩협회
(HKIA)에서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절충하여 결정하였다. 이
어 우리 협회에서는 금년 11월에 건축 환경 포럼 개최에 대
한 소개로 Power Point Presentation 시사회를 가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환경운동가, 아카시아 회원국
Member등 유명한 Specaker가 참여하는 본 대회에 많은
아카시아 회원들이 참여 해 주길 당부하였다. 이어 아카시
아 이사회 임원 선출이 있었다. 우리가 속해 있는 Zone-C
지역 부회장 자리에 그 동안 일본 건축사 협회(JIA)의
Prof. 호즈미氏가 맡아왔는데 금년 임기만료로 신임 Zone-
C지역 부회장 선출이 있었다. 곧 부회장 선출 호명에서 대
한 건축사 협회(KIRA)국제 부위원장인 이근창 위원이 호명
되어 만장일치로 Zone-C지역 부회장에 피선되었다.

임원선출을 마치고 새로 선출된 임원들에게
많은 격려의 박수가 있었다. 이어서 아카시아 교육 위원회
에서 그 동안 회의결과에 대한 요약 보고회가 Prof. Dato씨
에게서 있었다. (교육 위원회 보고서 참조)

교육위원회 보고회를 마치고 끝으로 차기
아카시아 회장 선출이 있었다. 처음에 호명자로는 필리핀
건축사협회(UAP) 전 회장이었던 Arch. 올란다, 홍콩 건축
사협회(HKIA) 회장인 Arch. Barry WILL, 파키스탄 건축
사협회(IAP) 대표인 Arch. Zaigham Jaffery씨 등이 입후
보로 등록을 하였다. 등록 후보가 너무 많아 이사회에서는
일단 세 후보를 회의장 밖에 대기하도록 하고 선출 방법을
논의한 결과 표결로 하는것에 동의하였다.

1차 표결 개표중 필리핀 대표 후보인 Arch.
올란다씨가 사퇴의사를 표명하여 2차 투표에서 Hong
Kong 대표인 Arch. Barry Will씨가 7표를 득표했고, 파키
스탄 대표인 Arch. Jaffery씨가 8표를 득하여 차기회장에
Arch. Zaigham Jaffery씨가 당선되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로써 이사회를 마치고 저녁에는 Student Jamboree
가 열리는 UiTM대회장으로 이동하였다. 약 1시간을 버스
로 Highway를 달려 말레이시아 종합기술대학 건축대학에
도착하였다. 많은 외국 학생들과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안내
를 받아 대회장에 들어서니 학생들과 현지 건축과 교수들로
만원이었다.

개회식을 알리는 팽파레가 울리고 이어 卅

지사의 인사말씀과 아카시아 회장 인사가 있었고 이어 앉은 자리에서 각국별로 대표단 소개가 있었다. 여러 나라 건축사들과 건축과 학생들이 서로 모여 앉아 식사와 담소로 저녁시간을 갖었다. 말레이시아의 건축대학 교습방법 중 특이한 것은 건축대학의 학과과정에 음악과 악기 다루는 과목이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었다. 건축과 음악은 한 장르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서 건축과 학생들로 구성된 악기 연주회가 있었고 독창 및 합창으로 대화장 분위기는 최고조로 다다르고 있었다. 젊은 건축학도들의 무대의 장에서 미래의 아시아 건축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창가에 앉아 지난 이틀간의 아카시아 이사회를 돌이켜보니 각 나라 대표들이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는 모습이며, 건축의 미래를 위하여 열변을 토하고 본인의 회생을 내세우려 하지않는 진정한 건축가의 혼이 배어나오는 것을 볼 때 아시아의 건축은 무한히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이번 대회에 참석중인 모든 건축사 여러분께 찬사를 보낸다. (오근석 / 본협회 국제위원)

제 5회 아카시아 건축상

아카시아 건축상은 아시아건축사협회의회의 주요 공식행사중의 하나이다. 우리 협회는 1999년 9월 제 20차 아카시아 이사회와 제 10회 아카시아 포럼을 서울에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다. 이사회는 해마다 열리고 포럼은 아시아건축사대회와 번갈아 가며 격년제로 열리게 된다. 아카시아 건축상의 절차는 작품의 접수와 심사를 포럼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추어 시행하고 시상식은 이듬해 아시아건축사대회에서 거행하도록 되어 있다.

필자는 아카시아 회장으로부터 1999-2000 아카시아 건축상 주관자로 지명되어 제5회 아카시아 건축상의 전 과정을 주관하였다. 1999년 9월 1일까지 16개 회원국 중 11개 회원국으로부터 총 71개 작품이 접수하였고 9월 11일에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원은 P. Kasi(아카시아 회장), 이 정근(건축상 주관자), 임 권택(영화감독), Syed Zaigham Jaffery(건축사, 파키스탄), Nobuo Hozumi(일본 와세다대학교 명예교수), Jean-Francois Blassel(건축사, 불란서) 등 6명이었다. 심사를 진행한 8개 부문 중에서 위탁시설과 특수건축물 부문에서

는 수상자를 내지 못하였다. 대신 단독주택 부문, 공공문화시설과 보존건축 부문에서는 금상 외에 장려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예년에는 부문별 금상만 주어졌었지만 낙선시기에는 너무 아쉬운 작품들이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4개의 작품에 장려상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금상은 홍콩, 일본, 싱가포르, 스리랑카, 한국의 건축사들의 몫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김석철 회원이 제주 영화박물관을 출품하여 공공문화시설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하였고, 청년건축사 민규암 회원이 단독주택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개인의 영광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계의 위상을 다졌다.

특히 아카시아 건축상이 우리에게 의미를 더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상품 종합메이커인 (주)한샘이 이번 건축상 행사를 후원하였고, 앞으로도 추가로 제 7회 아카시아 건축상까지 후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주)한샘 측에서 후원을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협의를 통해 후원관계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국의 회사가 아시아 건축행사를 공식 후원한다는 것은 국제 건축계에 한국의 공헌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건축사들이 음으로 양으로 국제사회에 활동영역을 넓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된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국제 건축계에 연을 맺는 것을 계기로 우리의 건축사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카우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듯 싶다.

작년에는 아카시아 행사기간 동안 9월 13일에서 16일까지 71개의 출품작들을 COEX 전시실에서 전시한 바 있고 이어서 12월 14일에서 2000년 1월 31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갤러리에서 별도로 특별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건축사'지 1999년 10월호에는 입상작 10개의 작품을 특별히 게재하여 한국독자들에게 소개하였다. 금년에는 9월 7일부터 9일에 걸쳐서 제 9회 아시아 건축사대회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는데 행사 마지막날인 9일 폐회식에서 제5회 아카시아 건축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한국측에서는 금메달과 상장을 준비하였고 10개의 수상작 패널을 쿠알라룸푸르에 수송하여 대회장에 마련된 전시실에 전시하도록 하였다. 수상작품과 수장작가들이 제출한 자료는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의 아카시아 아카이브에 영구 보존토록 하였다. 수상식에서는 제 5회 아카시아 건축상의 경과를 본인과 Zaigham Jaffery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시상에 들어가서는 각 수

상자가 동단할 때마다 그의 약력을 알리고 수상작의 슬라이드를 무대 화면에 비추어서 청중들이 수상작에 대한 감상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팔자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작성한 각 작품의 심사평을 낭독하였다.

심사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상작 자료는 건축사 1999. 10월호 참조)

A-1(단독주택)

이 부문에는 15개의 출품작이 있었다. 태국의 프라쫓 왕은 4개의 공간군이 인공호수 주변에 만달라의 구성으로 배치되는 공간조직의 극적인 연출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민규암씨는 한국의 전통주거형식에 내재하는 공간조직의 문법을 현대주택에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공업 산품들이 창의성있게 쓰여지고 주택공간의 구법이 예리하게 재해석되었다. 반면 일본의 건축사 구보씨는 대지의 거시질서에 호응하는 미시세계를 창조하였다. 그의 주택의 모든 요소들은 빠짐없이 우주론적 질서의 관계망속에 짜여지고 있다. 접근로의 방향, 바다를 향한 시선축, 하늘을 향한 상징축, 내부와 외부에 걸친 광선의 유희, 인접한 오렌지 밭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설정 등등. 공간을 구성하는 형상들의 기하학적 조합과 병행하여 재료의 질감들이 섬세하게 선택되었다.

B-1(상업건물)

홍콩에 지어진 빙 관씨의 타워는 어떻게 도심의 작은 대지에 세장한 높은 건물이 복잡한 도시지역을 활기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다. 고도의 효율성을 가지는 서비스면적과 거주면적의 구성은 건물의 요체이다.

B-3(공공건물)

일본의 건축사 아키라 큐류씨는 야마쿠니 시만홀을 설계함에 있어 소도시의 교통망과 기존 건물의 스케일에 조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인접한 자연의 요소인 산자락과 맞닿은 시가지사이에 위치한 대지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여러 기능들은 작은 체적으로 나누어서 분리되고 이들은 다시 커다란 그러나 투명한 유리 박스에 의해 통합된다. 인공 연못은 기존 도시의 건물군과 시민 홀을 이어주는 매개역할을 하며 옛길은 그대로 살려서 새 홀의 중심부를 관통하게 하였다.

한국의 김석철의 제주 영화박물관은 제주도 용암의 퇴적물처럼 보인다. 마치 섬의 지질학적인 처녀성을

그대로 간직한 듯 하다. 이 박물관은 건축 구조물보다는 이 섬의 웅숭음 진 지표의 일 부분으로 느껴진다. 내부공간들의 유기적인 구성은 동굴의 미로를 연상케 한다. 이 건물은 마치 자연과 문명의 경계에 놓인 거석물 같이 사람에게 다가온다. 의도 했던 아니건간에 이 건물은 인간의 건축행위에 깊이 스며있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즉 건축행위에 내재하는 자연과 인공의 관계이다.

C(산업 건축)

스리랑카의 조아사는 그녀가 설계한 BMW 복합건물에서 하이텍이라는 세계적인 경향과 이에 대한 지역적인 수용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소화해 내고 있다. 그녀는 조화시키기 어려운 이 두 개의 주제를 적절히 제어하고 있다.

D(보존 건축)

싱가폴의 리차드 호씨는 전통도시주택을 개축하는데 있어 거리에 면하는 풍부한 전면을 보존하도록 하는 대신에 내부의 생활공간은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다. 그는 내부도 온통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옛 냄새가 배인 창과 마루 등을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 도입된 부분과의 조화를 꾀한다. 새것과 옛것은 연속성의 공통분모 속에서 같이 숨쉬고 있다.

파키스탄의 파베즈 라티프는 식민시기 양식과 숄탄의 양식이 혼합된 19세기 유적을 구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 장교 크럼의 건물을 개축함에 있어 현대의 건축산업의 조건에 호응해서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구조 시스템과 재료를 도입하고 있다. (이정근 / 본협회 국제위원장, 1999-2000 아카시아 건축상 주관자) 圖

(한국측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ARCASIA FORUM10 조직위원회 여러분과,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관계자들, 대한건축사회 국제위원들, 그리고 사무처 관계요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협회소식 / 95

건축계소식 / 98

현상설계경기 / 10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06

회원현황 /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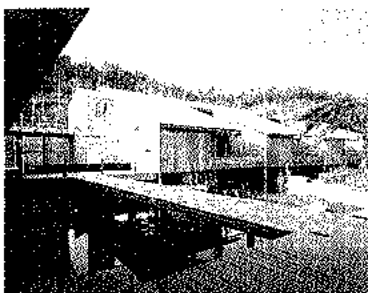
뒷마루 / 109

건축사자격시험합격예정자명단 / 110

협회소식 KIRA news

2000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발표

대상에 솔토건축의 「게스트하우스」



대상 / 게스트하우스(솔토건축)

(주)솔토건축사무소가 설계하고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이 시공한 (주)공문교육연구원 Guest House가 국내 준공건축물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00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Guest House외에 본상 6점, 입선작 19점 등 준공건축물 부문 수상작품 26점과 신인·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 부문 수상작품 13점 등 총 39점이 입상했다.

시상식에서는 Guest House의 설계자인 (주)솔토건축사무소가 대통령상을, 시공자·건축주인 삼성물산(주) 건설부문과 (주)공문교육연구원이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성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등 본상 수상작품 6점의 설계자 및 시공자가 건설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준공건축물부문 본상 수상작품의 건축주, 입선작 설계자 및 시공자, 계획건축물부문 입상자에게는 각각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서울경제신문사장상이 수여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건축·건설관련 5개단체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으며, 심사의 공정성, 정부시상 확대 등 해를 거듭하면서 내용적인 면에서 발전을 보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시상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사회

11회

우리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0년도 제11회 이사회가 지난 10월 10일(화)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부의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입회비 하향조정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입회비를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본협회와 시·도건축사회가 균등 분할하여 사용하되, 입회비 200만원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폐업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결함.)
- 제2호의안 : 본협회 월정회비의 지로수납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본협회에서도 월정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결함.)
- 제3호의안 : 시·도건축사회 보조금 지급의 건
 - 시·도건축사회에 지급하던 보조금은 입회비 분할금으로 대체하고, 2001

년부터 지금까지 않기로 함.

- 제4호의안 : 지역건축사회 설치근거 삭제의 건

- 폐기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시·도건축사회 사무처 조직 지역별 통합운영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시·도건축사회 사무처조직을 지역별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결함.)

- 제6호의안 : 시·도건축사회 직원의 직제, 직급 및 퇴직연령에 대한 건축사회위원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시·도건축사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결함.)

- 제7호의안 : 경조비규정중 퇴직위로금 지급조항 삭제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제34회 정기총회(2000. 2. 24)에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의 건의를 채택하여 경조비규정중 퇴직위로금 지급조항을 삭제키로 함.)

- 제8호의안 : 시·도건축사회 간사수에 대한 건축사회 위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시·도건축사회의 간사수를 해당건축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의결함.)

- 제9호의안 : 기타 특별대책위원회 건의사항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특별대책위원회 건의사항중 ▷근거가 소멸된 건축사의 업무가 건축사법에 명문화되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함. ▷건축사보수가 엔지니어링 대가 수준으로 정해지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함. ▷사전적격심사기준을 평가하는 심의기구 설치 등 PQ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함. ▷현상설계 운영기준을 개선키로 함. ▷보험회 및 시·도건축사회의 조직적 디지털화를 추진키로 함. ▷회비제도 개선, 수익사업 추진, 저작권 보호대책 마련, 회비 미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16개 아카시아(ARCASIA) 회원국 중 몽고를 제외한 15개국에서 각 건축사협회 회장, 국제관련 건축사, 학생잼버리 관련 건축과 학생 그리고 말레이시아 개업건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회원국들간의 건축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열리는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우리협회에서는 매년 참석하고 있으며, 올 해는 이의구회장을 비롯한 국제위원들이 참석해 이사회 및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여 각 나라의 현재 치한 자국의 건축사 위치에 대한 여러 방면의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 주관으로 거행된 올 해 행사는 명예임원회의, 국제기구회의, 아카시아임원회, 아카시아이사회, 아카시아교육위원회, 학생잼버리,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 창립 80주년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다.

각 국가별 「건축설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이필훈 회원의 연구발표도 많은 찬사를 받았고, Key Note Speaker로 초청된 류춘수 회원의 건축철학에 관한 초청강연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또 이번 행사에 이인호 국제위원, 조성중 한국건축가협회 국제위원장 등이 교육위원회 워크샵에 참가하여 건축학 교육의 스튜디오교육 방식, 아카시아 건축대학교 문제, CODHASIA(Conference of Deans & Heads of Architecture School on Asia)의 새로운 제안, 학교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안 등 구체적 논의를 제안 받아 계속 연구하기로 하는 등 좋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건축사들의 관심들이 논의되었다.(88쪽 참조)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

납자 조치, 회원 결속방안 강구 등은 집행부에서 대책을 수립키로 함. ▷UIA 관련사항을 연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99년 9월 운영

완료된 건축사윤리규약 개정(안)을 해당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하는 등 원안대로 채택하여 추진키로 의결함.)

제4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개최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제4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가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 상하이 바셀그랜드호텔 상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등록건축사의 상호인정, 건축교육의 국제화 및 보수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 우리 대표로 이의구회장을 비롯한 8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건축사 상호인정과 국제화」와 「건축사의 계속교육과 기술개발 그리고 건축동향」 등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토론내용은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중국은 5천년 역사의 문화유산 등에 비중을 두어 중국건축의 현실이 세계화를 쫓고 있음을 피력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어진 주제에 충실히 준비한 내용을 피력하였다. 이 행사는 협정단체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및 건축법규, 제도에 대한 의견교환과 시장개방과 건축사자격상호인정에 관한 협의 및 회원국들간의 건축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97년 1월 북경대회를 시작으로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내년 행사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중·일 3국이 실질적인 상호인증에 접근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토론 될 것으로 전망된다. (85쪽 참조)



회의장경(등록건축사의 상호인정 및 건축교육의 국제화 등에 대해 토론)

광주건축사회, 제2기 시민건축대학

10월 5일 수료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제2기 시민건축대학을 열어 지난 9월 20일 제1강좌 '세계건축 문화기행(조희철/광주대교수)' 시작으로 10월 5일 제6강좌 '좋은 집을 지으려면(송건/대호건축소장)'을 끝으로 강좌를 마쳤다. 일반시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설된

이번 강좌는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있었으며, 연인원 424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강좌내용은 다음과 같다.▷세계건축문화기행(고대에서 현대까지)/조희철▷생태건축(살아숨쉬는 집)/김수인▷살기좋은 집(살내장식)/김미희▷전통건축답사/천득영▷리노베이션/서용식▷좋은집을 지으려면(대지구입에서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송 건

회원 E-Mail계정 서비스 개시 및 신청접수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에 한하여 협회 인터넷을 통한 회원의 무료 E-Mail계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은 대략 1,500명정도이며, 사용가능공간은 각 계정당 잠정적으로 5MB입니다.

일정기간까지 접수완료 후 서버의 저장공간을 환산하여 각 계정에 맞는 용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Mail사용 방법 및 범위는 점차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며 많은 회원님들의 가입을 바랍니다. 현재 접수가능하며, 가입신청후 3일 이내에 처리완료하여 신청회원에게 Mail로 가입완료 및 사용가능 사실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KIRA.OR.KR로 접속하신후 첫 번째 접속 화면상의 "E-Mail 계정신청"란을 Click 하신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전산팀(02-581-5711)에 문의바랍니다.

신청방법

- ▷ 먼저 HTTP://WWW.KIRA.OR.KR 로 접속합니다.
- ▷ 첫번째 화면에서 "E-Mail" 계정신청"란을 선택합니다.
- ▷ 회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난 후 검색버튼을 선택합니다
- ▷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귀하의 기본사항이 나타납니다.
- ▷ E-Mail ID 난에 원하시는 ID를 입력하시고 "E-Mail 신청" 버튼을 선택하시면 바로 접수 완료가 됩니다. 만약 지정하신 ID가 이미 사용중일 경우엔 다른 이름으로 다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인적사항 등 기타 위에 나열된 사항들이 실제의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각 시도건축사회에 연락하여 수정토록 협조 바랍니다.
- ▷ 신청을 완료하신후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전산팀(02-581-5711~4)으로 문의 바랍니다.

건축자재정보 회원가입 안내

목적

기존 CATALOG정보 중심의 자재정보를 탈피하여 건축사, 시공자 등 기술자가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CATALOG정보 뿐만 아니라 시방서, 상세도, 물성 등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INTERNET를 통하여 SERVICE 함으로 건축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DB의 특징

- 기술정보 즉 제품의 시방서, 상세도, 물성 등을 데이터화하여 건축관련관계자들이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재업체, 설계자, 시공자간에 개별적인 정보교류에 의존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낙후성을 탈피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함.
- 사업적 소득보다는 정례화를 통한 정보의 집대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참여 업체관리차원의 유지관리비만 부담토록 할 계획임으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함.

비용(자재회사 부담)

- DB구축 : 협회가 전액 부담함으로 가입비용은 무료임.
- 유지보수비용 : 평균 월 1만원 정도(게재된 정보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출용 자료(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됨)

- 회사정보
- 자재일람표
- CATALOG, 시방서, 상세도 등 현재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우선 송부
- * 자료를 검토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협의.

문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담당 / 허훈)
- 전화 : 02) 581-5711~4

2000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10월 17일 합격예정자 917명 발표

2000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지난 9월 3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동시에 실시되어 10월 17일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시험 결과 총응시자 5,034명 중 917명이 합격을 해 18.21%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이중 최고 득점자는 3백점 만점에 2백46점을 얻은 김명섭(33.한양대졸)씨가 차지했다. 또한 최고령합격자는 김평일(56,건국대졸)씨, 최연소 합격자는 박명화(28,한남대졸)씨로 알려졌다. 이번 합격예정자 중 여성합격자는 2백45점을 얻은 유석연(32,서울대졸)씨를 포함 1백51명에 달했다. 이들 합격예정자 명단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 볼 수 있다. 합격예정자에 대한 학력, 경력 등의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합격자를 확정, 관보 및 건축사협회 본부와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합격예정자명단 110쪽 참조)

경남건축사회, 제2기시민건축대학

지난 10월 19일 수료

경남건축사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신세계 백화점 문화센터 6층에서 총 5개 강좌로 건축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도민에게 건축에 대한 기본상식과 정보제공, 건축관련 교양강좌를 개최했다.

건축계소식 archi-net

UIA, 「건축과 물」국제 아이디어 공모전

11월 30일까지 등록마감

UNESCO는 생명의 유지에 절대적인 요소인 「물」의 귀중함을 일깨우고, 이미 시작된 21세기에는 더욱 더 귀중하여질 「물」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 21세기를 위한 물」로 선포하였다. UIA는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물과 건축의 관계를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하기 위하여 「건축과 물」이라는 주제아래 전세계적으로 설계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건축가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번 공모는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나 건축가협회의 웹사이트(<http://www.kia.or.kr>)나 <http://www.arick.or.kr> 또는 원문 <http://www.uia-architectes.org>에 실린 응모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 참가자격: UIA회원국에 의해 인증된 전문자격건축가 및 건축학교 학생
- 등록마감: 2000. 11. 30.
- 제출마감: 2001. 3. 31.
- 접수마감: 2001. 4. 15.

제7회 탈도시 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탈도시주거의 일상성

(주)이상건축에서는 전국의 건축사사무소 직원, 건축관련학과 학생(전문대 및 대학원생 포함, 휴학생도 응모가능),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탈도시주택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탈도시주거의 일상성'으로 1인 1작품에 한한다. 작품제출마감은 2001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다. 코디네이터는 조응수 동아대 건축공학과 교수, 심사위원은 이성관(한울건축), 서혜림(힘마건축)소장이 맡는다. 문의: 02-549-5383, 051-462-4711

제 9 회 건축가미술전개최

11월 28일부터 ~ 12월 4일까지
건축사협회 아키텍트 갤러리에서

제9회 '건축가 미술전'이 건축가미술동호회(회장 유희준, 이하 건미회) 주최로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건축사협회회관내 갤러리에서 열린다. 건미회 회원뿐 아니라 건축에 종사하는 미술동호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11월 27일까지 전시장에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회화(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판화, 건축드로잉으로 출품작은 1인 2점으로 제한된다. 문의: 02)450-3249 김낙중교수/건축대학교

한양대 건축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우리협회 갤러리에서

한양대학교 건축전이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건축전에는 건축공학부 졸업작품전 및 건축디자인대학원 작품전과 함께 건축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의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 특강주제
- 이성관(한울건축) : 작가 상황 주제
- 이상림(공간건축) : RECENT WORKS
-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 2025년의 건축가
- 함인선(인우건축) : Technology & Tectonics

한양대 건축디자인대학원 신입생모집 및 공개크리틱

신입생모집: 11월 22일까지 접수
공개크리틱: 12월 15일

신입생모집

건축가 국제인증에 준한 교과과정 구성으로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준비하는 한양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이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 모집 전공: 건축설계전공 (5학기소요), 역사/이론/비평전공 (4학기소요)
- 전형방법: 서류전형, 영어시험, 작품집, 면접
- 지원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001년 2월 졸업예정자, 건축(공)학과 전공자
- 전형일정
- 원서교부: 2000. 11. 15(수) - 11월 22일(수)

- 원서접수: 2000. 11. 20(월) - 11월 22일(수)
- 전형일시: 2000. 11월 25일(토) 오전 9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사진(최근 2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 반신형 3*4) 3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전학년 성적증명서(평균평점표기-4.5만점기준)
- 작품집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전형료
- 원서대: 6,000원
- 전형료: 7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 건축디자인대학원 교학과(산학기술관 6층) 전화 2290-0258,9

공개크리틱

2000학년도 2학기 건축디자인대학원 설계스튜디오의 공개크리틱이 오는 12월 15일(금) 건축디자인대학원에서 스튜디오별로 있을 예정이다.

- 스튜디오별 주제
- STUDIO I (노승범) : 현상학적 투명성- SCHOOL & GALLERY
- STUDIO II (이성관) : 일상성의 이해- 근린생활시설
- STUDIO III (이상림) : 문화장소 만들기- 인사동
- STUDIO IV (이종호) : 캠퍼스 장소- 건축도시
- STUDIO V (함인선) : Technology & Tectonics

SAKIA 2000년 겨울학기 모집

11월 1일(수)부터 11월 24일까지
가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시접수

(사)한국건축가협회에서 운영하는 건축학교 겨울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각 Studio는 10인의 학생으로 구성되며, 단위 Studio당 1인의 초빙교수와 조교(Teaching Assistant)로 운영된다. 주 3회(월, 수, 금) 각 3시간 이상의 Studio강의와 단계별 평가 및 전시 기간 중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며, 전시 및 출판(건축가 잡지 우수작품 수록, Web site 전시)과 1박 2일의 건축기행이 있을 예정이다.

■ 요강

- 원서접수 : 2000년 11월 24일까지 (11월 1일(수)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시접수)
- 입학전형 : 11월 27일(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 합격자 발표 : 11월 28일(개별통지,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 입학등록 : 12월 4일-12월 9일 (주 택은행 488401-86-102972 예금주: 한국건축가협회 온라인 입금)
- 등록금 : 59만원(한국건축가협회에서 10만원 지원 금액)
- 교육기간 : 2000년 12월 15일-2001년 1월 19일(5주)
- 교육장소 :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 스튜디오 인원 : 7개 스튜디오 70명
- 지원 자격
- 건축설계 관련업무 종사자(설계사무소, 건설회사 등)를 최우선순위로 하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도 지원 가능.
- 건축학부 졸업자, 대학원 재학생. (재학생 (3, 4학년)인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입학여부 결정)

■ 2000-겨울학기 프로그램

- 이론강좌

- ▷ 한국건축사: 이상해(성균관대 교수)
2000. 12. 18(월) 13:00
2000. 12. 20(수) 13:00

- ▷ 서양건축사: 김원식(건축사가)
2000. 12. 22(금) 13:00
2000. 12. 27(수) 13:00
2000. 12. 29(금) 13:00

- ▷ 동양건축사: 한동수(인하대 교수)
2001. 01. 03(수)
2001. 01. 05(금)

- 평가회

- ▷ Final Review
구영민(인하대 교수)
송재호(건축가)
심영섭(호서대 교수)
이성관(건축가)

▷ Final Open Critique

- 곽재환(건축가)
김성우(연세대 교수)
우경국(건축가)
이상현(건국대건축대학원교수)
이은영(한양대 교수)

- 특강(경기대 건축대학원 지하 세미나실)

- ▷ 원정수(한국건축가학교장)- 한국건축 어디로 ...

- 2000. 12. 15(금) 13:00 - 14:20
▷ 우경국(건축가, 총괄교수) - 관계항
2000. 12. 15(금) 13:00

- ▷ 안소연(호암미술관 큐레이터) - 현대미술과 건축
2000. 12. 18(월) 18:00

- ▷ 최인수(조각가) - 볼프강 라이브의 작품세계
2000. 12. 22(금) 18:00

- ▷ 김영민(철학) - Context (주제미정)

- 2000. 12. 27(수) 18:00

- ▷ 이진경(인문과학) - 주거공간과 생활 양식
2001. 01. 05(금)

- 건축실무포럼

- ▷ 류춘수(이공건축 대표)

주제 : 설계 process 및 production
: 2002 서울 월드컵 경기장

- 일시 : 2000 12 28(목) 15:00

- 주관 :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분과위원회

■ 스튜디오 구성 및 운영(매주 월, 수, 금)

- 제1스튜디오 도창환(도창환 스튜디오)
Vernacular architecture-지역성과 풍토성의 재해석 및 규정
- 제2스튜디오 조택연(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Hyper Architecture-컴퓨터 속성을 응용한 공간 및 형태

- 제3스튜디오 김기연(인제대 교수)

Tectonic Architecture-각 재료별 Tectonic, 예술성을 포함한

- 제4스튜디오 전인호(아프리에 테스피스) + 이상현(조각가·영화배우)

Time based Art(Media & Communication architecture)-건축적 영상물

- 제5스튜디오 임지택(경건축)

Urban Architecture-Urban tissue의 재해석

- 제6스튜디오 주대관(엑토건축) + 권문성(아트리에17)

Ecological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생태건축에 대한 접근

- 제7스튜디오 최재희(스튜디오 볼루)

Art & Architecture-예술적 체험을 통한 건축표현

■ 문의

- 홈페이지: <http://www.kia.or.kr> , <http://www.arick.or.kr>

- 전화 : 02-744-8050/ 팩스 : 02-743-5363

제3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11월 10일까지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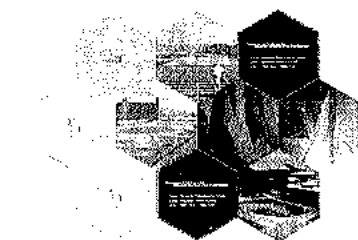
(사)한국건축가협회 울산지회에서는 국내외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와 재학생 및 건축관련 분야 종사자(소속없이 개인명의 가능)를 대상으로 제3회 건축대전 작품을 공모한다. 1인 1작품에 한하며, 11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문의: 052-274-7904,

<http://www.ulsankia.or.kr>

경원대, 제7회 경원실내건축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원대 1동 7층 스튜디오에서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에서는 '대학촌 다시 세우기'라는 주제로 제7회 경원실내건축전을 개최한다.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건축전은 소비문화에 젖은 대학촌을 리디자인하여 진정한 대학문화로 우리들이 가고살아하는 그리고 가야만 하는 대학촌의 모습을 제안한다. 또 진정한 대학촌의 상을 모두가 고민하기 위하여 이번 프로젝트는 4학년, 3학년, 2학년이 학년 개념에서 벗어나 한팀으로 공동작업을 진행하였다.

문의: 031-750-5379,

www.kyungwon.ac.kr/diam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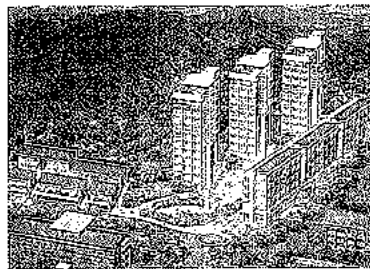
홍익대, 제44회 홍익건축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제44회 홍익건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4학년 학생들의 졸업작품과 Net-Walk City라는 주제의 3학년 공동작품을 위주로 1,2학년 과제전도 함께 열린다.

군산대학교 기숙사 설계경기

당선 / (주)모람건축(손두호, 김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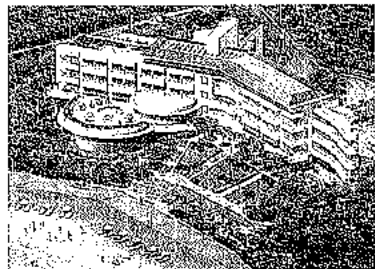


당선안(모람건축)

군산대학교는 연면적 8,595㎡규모의 기숙사 신축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9월 6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8개팀이 응모한 이번 설계경기에서 (주)모람건축(손두호, 김홍수)의 안을 당선작으로, (주)단목건축+(주)가아건축(노태희)과 (주)전인건축(신영식)의 안을 각각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당선작은 타워형의 경우 굴절배치하여 북서측 자연환경과의 연계모색 및 조망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총 공사비 82억이 책정된 이번 사업은 2001년 착공하여 2003년 완공될 예정이다.

신안군 청소년수련관 설계경기

당선 / 류가람건축(류연창)



당선안(류가람건축)

신안군 청소년수련관 설계경기가 지난 9월2일 총 6개팀이 최종안을 제출한 결과, 류가람건축(류연창)의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시명종합건축(안희상) + 진경돈(백제예술대) 교수의 공동안을 우수작으로, 한국엔케이엔지니어링건축(조성재)의 안을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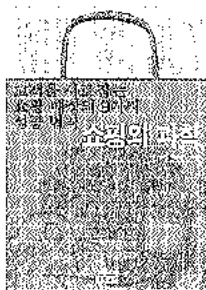
계획대지는 해송숲으로 둘러싸인 경사지로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내에 위치한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국민관광단지로서 발주처인 신안군은 청소년수련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반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연수, 세미나 등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변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강풍과 염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했다.

신안군 청소년수련관은 해변가와 바로 연결된 보행자도로, 바다를 볼 수 있는 해수사우나, 루프테라스로 해변과 연결된 식당 등 대지 앞에 펼쳐진 해변가를 적극 끌어들이는 배치로 계획된 당선안을 바탕으로 2002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간안내

쇼핑의 과학
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 건축
건축미학산책

▷쇼핑의 과학



고객을 사로잡는 쇼핑 매장의 9가지 성공 법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은 행동 과학주의적 입장에서 쓰여진 책으로 경영 분야의 도서로 분류되어 있으나, 건축가의 입장에서 이 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고객들의 행동 심리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소비자의 행태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기술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행태를 섬체할 정도의 세부적이며 끈질긴 현상에서의 관찰을 통하여 만들어진 9가지 법칙들을 기술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쇼핑에서의 심리, 노년층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조건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배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에 관하여 상세히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고객 동선 계획에 대한 유의 사항과 고객과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광고의 위치 등 여지껏 피상적으로 이해하였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성공적인 쇼핑 시설물을 설계하기 위하여는 마케팅의 개념뿐만 아니라 머천다이즈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마케팅 개념을 수용하는 건물 형태에 대한 계획이 현재 건축 분야에서 주된 업무

의 영역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장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매장의 세부적인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윤기병 교수 추천)

파코 언더힐 지음/신현승 옮김/1만2천원

▷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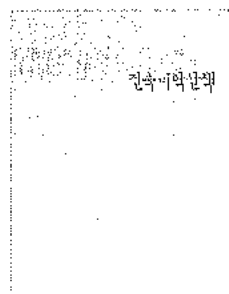


이 책은 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 시설에 대한 건축 프로그래밍을 정리한 것이다. 어떤 한 프로젝트를 위한 그 프로젝트의 고유의 사업 여건에 집중된 그런 특수한 프로그래밍은 아니다. 이 책은 컨벤션센터 무역전시관이라는 넓은 의미의 한 시설 유형을 계획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프로그래밍에 속한다. 이 책은 해외의 우수한 컨벤션센터 무역전시관 시설 사례를 개별적으로 또 상호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완성되었다. 선진국에 어떠한 시설이 있으며, 그 시설들이 어떤 계획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또 그 시설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계획적 패턴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파악하였다. 여기에 시설관리의 관계자들과 접촉함으로써 각 시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시설의 기본적 성격에서부터 시설계획의 목표, 입지와 배치계획적 특성, 공간 및 기능계획, 건물 및 공간의 구성계획, 동선계획 등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덧붙여 전시장, 회의장, 일부 주요시설

에 대해서는 해당 계획 자료를 별도로 모아 개개 공간을 개별적으로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컨벤션센터 무역전시관 시설의 건축 프로그래밍을 완성해 나가는 장기적 작업의 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해성·민병호 지음/2만5천원/도서출판 구미서관 펴냄(02-738-9229)

▷건축미학산책



여러분야의 예술처럼 건축 또한 예술 텍스트의 수신 발전과정과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건축창작이나 감상분야에서 많은 필요성을 제기함에 비해 관계서적은 빈곤하다. 그리고 건축미학은 창작과 감상의 기초분야로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분야로 취급되어 온 것도 현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바탕에서 기획, 제작되었다. 건축에서 미학의 필요성과 올바른 감상 및 나아가 건축가치를 평가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건축미학의 길을 산책하듯 안내한다. 이 책은 건축의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전반에 두고 있다. 건축고전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미학적 개념과 입장들을 동서고금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초반에는 건축을 읽는 방법과 관점들을 소개하고, 후반에는 미학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들을 통해 동양 삼국의 미술과 건축사례를 통해 비교, 서술하고 있다.

김경수 지음/1만6천원/도서출판 발언 펴냄(02-929-3546)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전주 이중 문화의 집

Ajung Culture House in Jeonju

▶ 당선작 / (주)길건축사사무소 (이길환)

전주시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전주 이중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현상설계를 실시한 결과 최종 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길건축사사무소(이길환)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지난 8월

30일 발표했다. 우수작에는 (주)세림 건축사사무소 안이 선정되었다.

이번 설계경기는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문화시설은 물론 동사무소기능까지 포함되어 21세기 지방자치의 표본으로 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시설계는 오는 12월 완료하고 연말안에 착공, 2001년말 완공 될 예정이다.

대지위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86-6 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문화의 집)
대지면적	1,402.0m ²
건축면적	665.8m ²
연면적	2,087.4m ²
	지하1층 : 414.00m ²
	지상1층 : 607.80m ²
	지상2층 : 625.80m ²
	지상3층 : 439.80m ²
건폐율	47.48%
용적률	119.33%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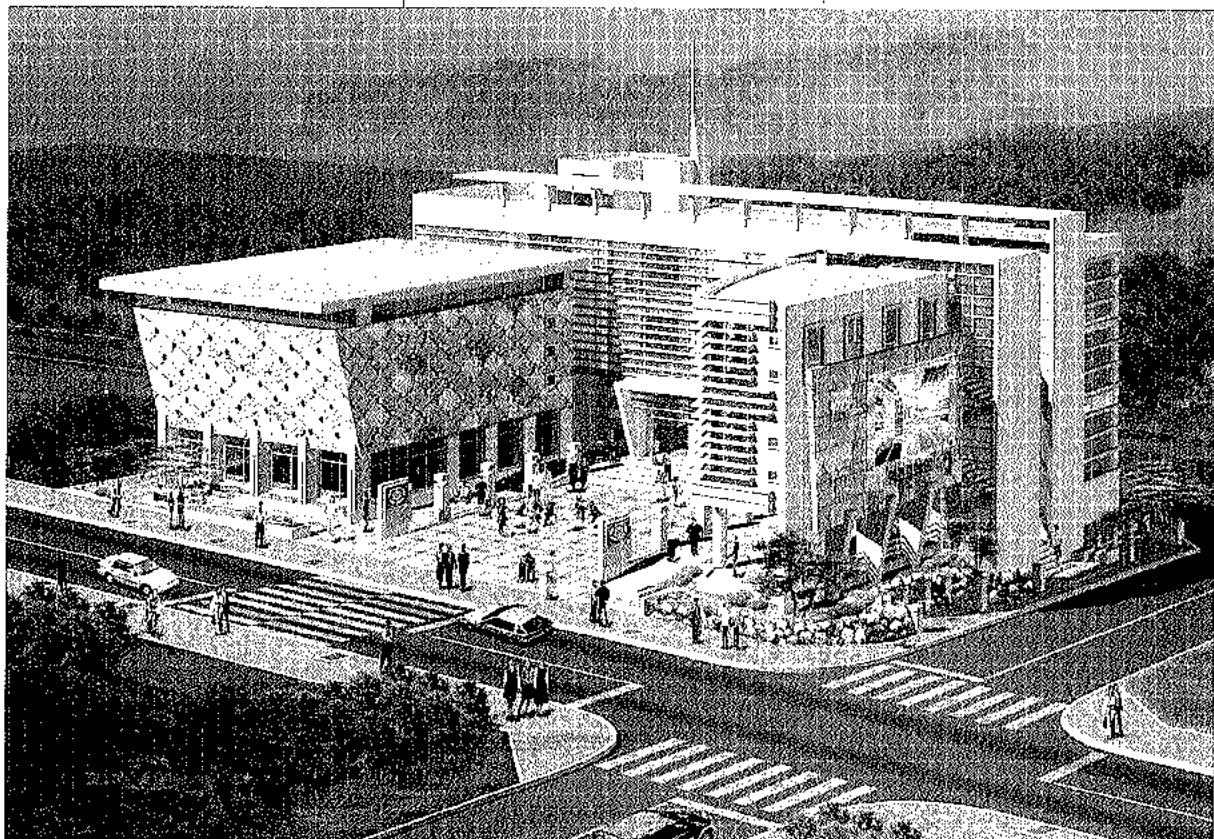
외부마감	화강석 바너구이, 컬러복층유리
주차대수	7 대
구조	RC조 + 철골조

계획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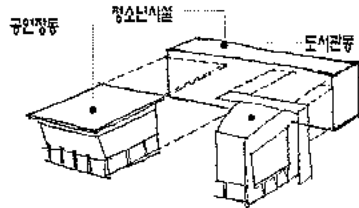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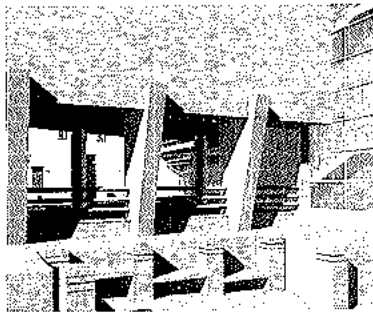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전주의 전통 문화를 재현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함에 있다. 단위 공간과 공공 공간의 유기적인 공간 구성을 통한 프라이버시와 공동체의식이 고양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주시의 전통성과 미래지향적인 상징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평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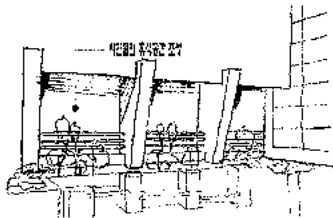
충별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유틸리티의 적절한 배치로 인한 공연장을 확보하였으며, 주출입구에 로비 및 홀을 배치하여 전시 공간 및 홍보 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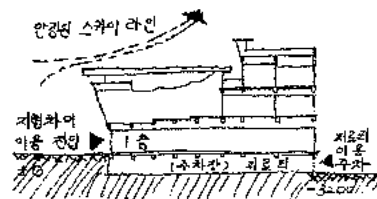
조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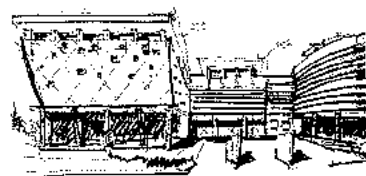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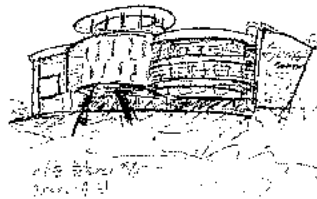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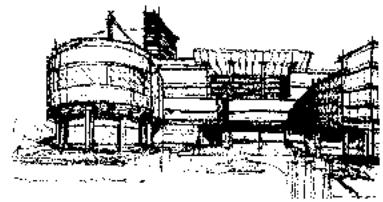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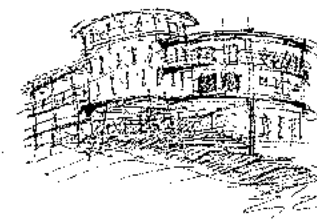
테스케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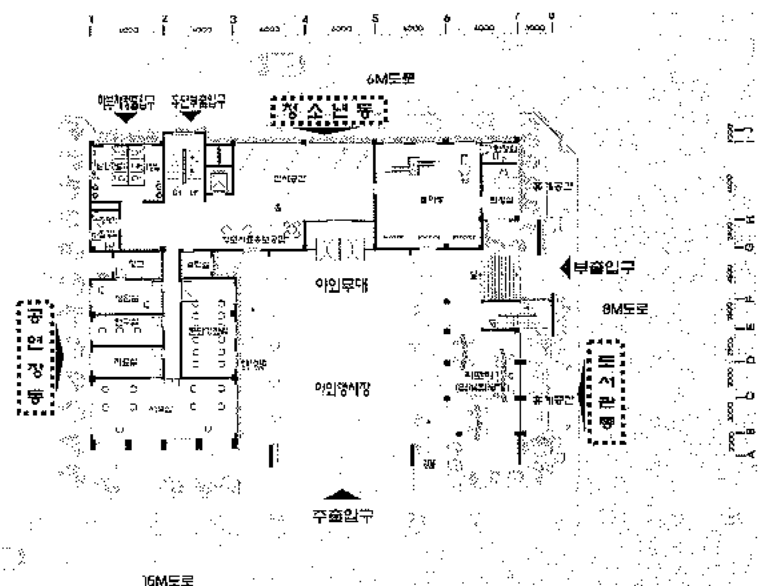
외부공간조성 개념도



단면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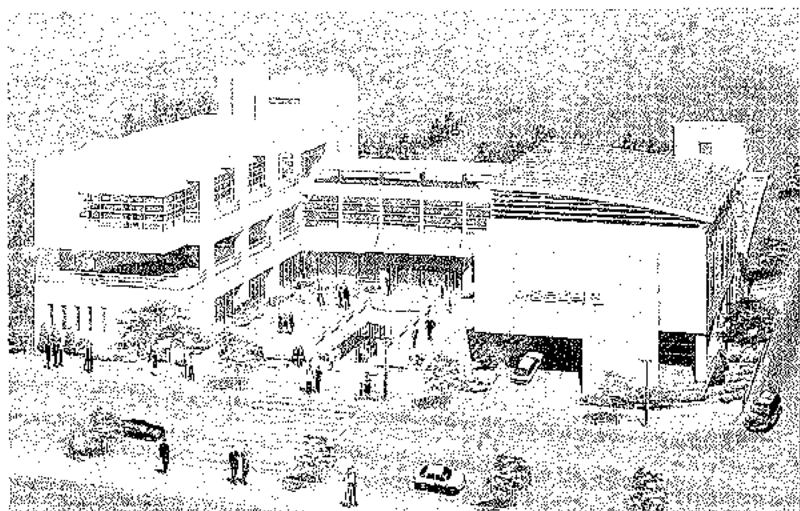
스케치



배치도

▶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이상돈+박종윤
+송경규)

대지면적	1,402.0m ²
건축면적	805.99m ²
연면적	2,428.11m ²
건폐율	57.48%
용적률	107.12%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마감	화강석, 노출콘크리트조
설계담당	장성호



배치 및 동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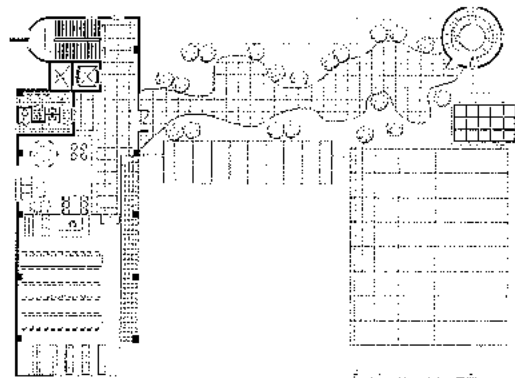
- 건물에서의 조명성 확보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배치계획으로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런 연계,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북측도로에서 지하층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 도로에 적응을 고려하였다.

입면 및 단면계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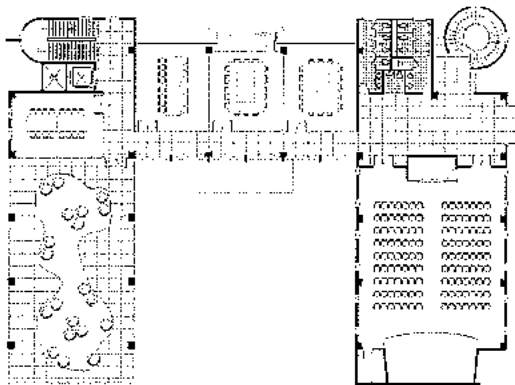
- 주위 자연 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시각적 조화를 위하여 화강석 버너판과 녹색 저반사 유리사용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건물이 되도록 하였다.
- 비교적 실면적이 큰 대강당,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을 수직선으로 동일한 위치에 배치하여 구조의 합리성을 극대화하였다.
- 대지의 고저차에 의해 필요한 공간에 채광을 도입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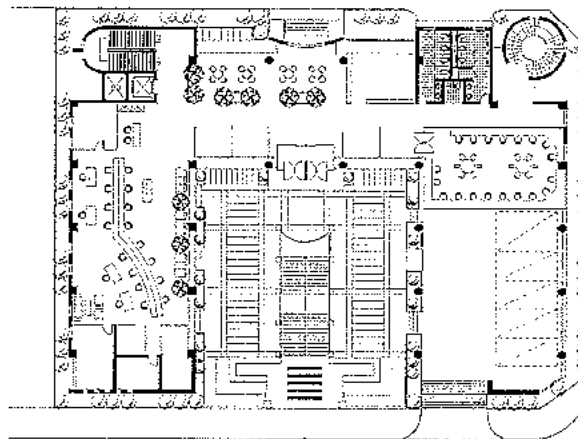
- 지하층까지의 채광을 도입하여 밝은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내부 수직공간인 계단과 장애인전용 ELEV를 설치하여 장애인시설을 고려하였다.
- 지하층에는 어린이수영장과 헬스장을 계획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동선의 명쾌감을 고려하였다.
- 지상1층에는 주민의 이용이 많은 것을 예상하여 동사무소와 인터넷방을 계획하고 두 공간의 연계지점에 어린이놀이방, 민담의 공간, 문화전시 공간을 계획하였다.
- 지상2층에는 강당과 취미활동실, 문화사랑방을 배치하였으며, 지상3층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독서실과 청소년휴게실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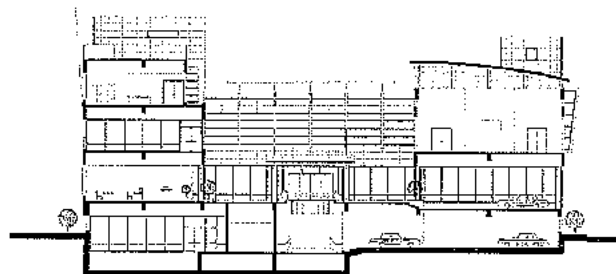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

설계도서신고현황

2000년도 8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8월분(99.8) 5백4십9만4백12㎡ 보다 16.3%(8십9만3천5) 감소한 4백5십9만7천4백7㎡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8월 누계 3천8백3십7만9천4㎡ 보다 17.1%(6백5십6만3천3백45) 증가한 4천4백9십4만2천3백49㎡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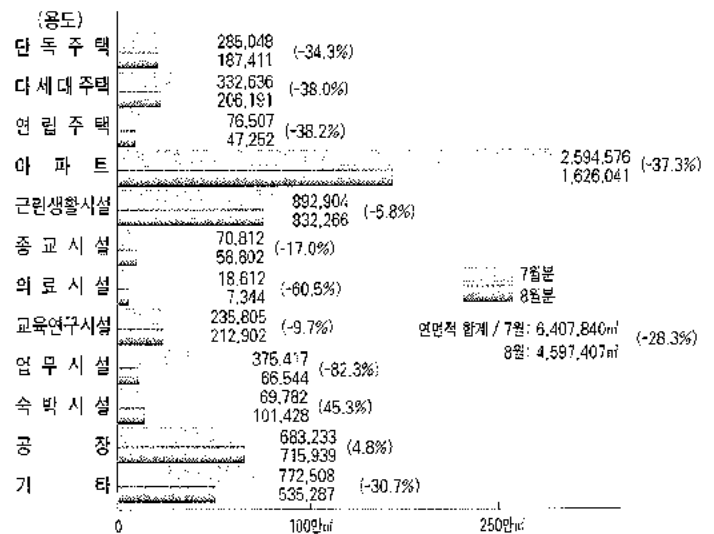
전월 7월분(2000.7) 6백4십만7천8백40㎡ 보다 28.3% (1백8십1만4백33) 감소한 4백5십9만7천4백7㎡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대 구	176,450	206,351	29,901	16.9
인 천	103,791	324,366	220,575	212.5
대 전	35,364	160,428	125,064	353.6
충 남	76,614	100,855	24,241	31.6
전 북	49,044	59,916	10,872	22.2
전 남	55,491	72,645	17,154	30.9
경 북	117,764	240,676	122,912	104.4
경 남	335,824	539,205	203,381	60.6
제 주	21,503	49,125	27,622	128.5
감소지역				
서 울	2,960,881	1,745,588	(1,215,293)	-41.0
부 산	200,188	164,525	(35,663)	-17.8
광 주	170,399	48,971	(121,428)	-71.3
울 산	38,055	10,764	(27,291)	-71.7
경 기	970,304	716,854	(253,450)	-26.1
강 원	77,845	64,828	(13,017)	-16.7
충 북	100,895	92,310	(8,585)	-8.5
합 계	5,490,412	4,597,407	(893,005)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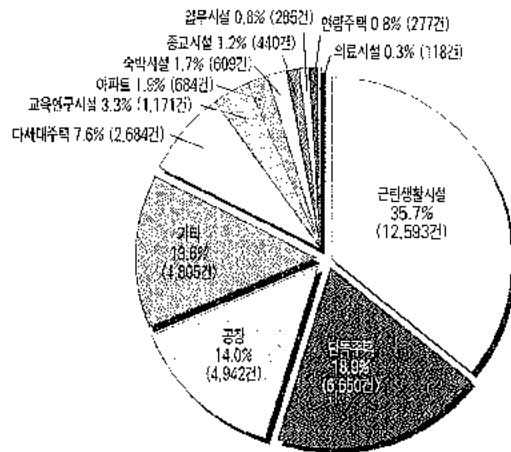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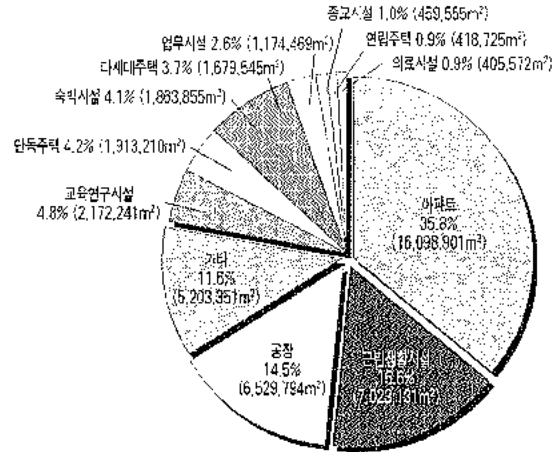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도 8월분)

구 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614	664	158,157	647	679	187,411	33	15	29,254	18.5	
다 세 대 주 택	94	100	55,969	340	345	206,191	246	245	150,222	268.4	
연 립 주 택	26	31	45,321	33	46	47,252	7	15	1,931	4.3	
아 파 트	48	119	3,047,668	72	89	1,626,041	24	(30)	(1,421,627)	-46.6	
근린생활시설	1,339	1,412	530,857	1,407	1,450	832,266	68	38	301,409	56.8	
종 교 시 설	61	67	47,613	43	46	58,802	(18)	(21)	11,189	23.5	
의 료 시 설	13	13	46,903	11	12	7,344	(2)	(1)	(39,559)	-84.3	
교육연구시설	126	139	255,067	143	149	212,902	17	10	(42,165)	-16.5	
업 무 시 설	36	36	49,912	27	27	66,544	(9)	(9)	16,632	33.3	
숙 박 시 설	60	71	44,816	71	71	101,428	11	0	56,612	126.3	
공 장	485	671	573,179	478	606	715,939	(7)	(65)	142,760	24.9	
기 타	454	549	634,950	501	583	535,287	47	34	(99,663)	-15.7	
합 계	3,356	3,872	5,490,412	3,773	4,103	4,597,407	417	231	(893,005)	-16.3	()=미이너스

용도별 구성비 (2000년 8월 누계분)



건수 (총 35,258건)



연면적 (총 44,942,349m²)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 8월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414	424	2,960,881	425	425	1,745,588	11	1	(1,215,293)	-41.0	
부산	188	317	200,188	102	117	164,525	(86)	(200)	(35,663)	-17.8	
대구	166	186	176,450	291	291	206,351	125	125	29,901	16.9	
인천	93	93	103,791	302	302	324,366	209	209	220,575	212.5	
광주	176	213	170,399	63	77	48,971	(113)	(136)	(121,428)	-71.3	
대전	68	68	35,364	207	207	160,428	139	139	125,064	353.6	
울산	69	69	38,055	17	17	10,764	(52)	(52)	(27,291)	-71.7	
경기	764	951	970,304	834	921	716,854	70	(30)	(253,450)	-26.1	
강원	217	225	77,845	130	141	64,828	(87)	(84)	(13,017)	-16.7	
충북	221	246	100,895	189	217	92,310	(32)	(29)	(8,585)	-8.5	
충남	149	149	76,614	211	211	100,855	62	62	24,241	31.6	
전북	103	103	49,044	105	105	59,916	2	2	10,872	22.2	
전남	99	102	55,491	119	122	72,645	20	20	17,154	30.9	
경북	204	240	117,764	353	458	240,676	149	218	122,912	104.4	
경남	350	421	335,824	340	395	539,205	(10)	(26)	203,381	60.6	
제주	75	85	21,503	85	97	49,125	10	12	27,622	128.5	
합계	3,356	3,872	5,490,412	3,773	4,103	4,597,407	417	231	(893,005)	-16.3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 (2000년 8월 누계분)

구분	1999년			2000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2,968	2,984	20,712,580	4,334	4,378	17,649,064	1,366	1,394	(3,063,516)	-14.8	
부산	1,297	1,849	1,186,181	1,157	1,634	1,683,429	(140)	(215)	497,248	41.9	
대구	1,236	1,236	1,012,879	1,511	1,511	1,567,950	275	275	555,071	54.8	
인천	889	926	2,013,329	2,140	2,140	2,298,625	1,251	1,214	258,296	14.2	
광주	1,011	1,199	779,300	806	999	650,001	(205)	(200)	(129,299)	-15.6	
대전	674	674	385,907	1,288	1,287	1,034,792	614	613	648,885	168.1	
울산	766	779	493,821	795	795	540,132	29	16	46,311	9.4	
경기	5,747	7,032	5,530,252	9,891	11,852	10,332,645	4,144	4,820	4,802,393	86.8	
강원	1,418	1,542	538,893	1,361	1,472	652,805	(57)	(70)	113,912	21.1	
충북	1,702	1,956	1,039,331	2,115	2,416	1,384,844	413	460	345,513	33.2	
충남	1,424	1,424	777,360	1,631	1,631	918,605	207	207	141,245	18.2	
전북	997	1,016	556,397	1,233	1,237	891,097	236	221	334,700	60.2	
전남	1,378	1,429	678,472	1,419	1,458	901,077	41	29	222,605	32.8	
경북	1,541	1,783	1,044,943	1,973	2,472	1,422,401	432	689	377,458	36.1	
경남	2,115	2,451	1,386,576	2,721	3,287	2,515,143	606	836	1,128,567	81.4	
제주	651	736	242,783	883	990	499,739	232	254	256,956	105.8	
합계	25,814	29,016	38,379,004	35,258	39,559	44,942,349	9,444	10,543	6,563,345	17.1	()=마이너스

회원현황 members

회원년동사항(8월)

(2000. 8. 31. 현재)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7,699	2,988	717	552	237	257	278	156	918	185	208	181	216	117	266	339	84
금 별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2월
회 원 수	7,682	2,984	716	552	237	257	277	156	915	185	207	177	215	116	266	339	84
입 회	21	8	2	2					5		2				1	1	
재 입 회	2	1							1								
전 입	11	5							4				1			1	
전 출	-12	-2	-1	-1	-1				-6		-1					-1	
사 패	-19	-5		-5	-2	-1	-1		-2	-1			-1			-1	
사 망	-1								-1								
등록취소	0	0															
금월말 회원수	7,665	2,981	717	547	236	256	276	156	917	183	209	176	215	116	267	339	84
계	7,701	2,995	718	547	236	256	277	156	920	183	210	180	216	117	267	339	8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건축사회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축사	7,665	2,981	717	547	236	256	276	156	917	183	209	176	215	116	267	339	84
2급	16	4	1	0	0	0	1	0	3	0	1	4	1	1	0	0	0
회 원	7,701	2,995	718	547	236	256	277	156	920	183	210	180	216	117	267	339	84
비율(%)	100.0	38.9	9.3	7.1	3.1	3.3	3.6	2.0	11.9	2.4	2.7	2.3	2.8	1.5	3.5	4.4	1.1
준 회 원	15	5	7	0	0	0	0	0	0	0	1	0	0	0	2	0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형태별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유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원수	5,223	2,461	17	7,701	
비율(%)	67.8	32.0	0.2	100.0	
사무소수	4,719	1,598	15	6,332	
비율(%)	74.5	25.2	0.2	100.0	

“건축사의 역할 알리기”

흔히들 얘기하는 대표적인 전문가 직종인 의사, 변호사, 건축사 중에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건축사라는 우리들 직업이 가장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직업이라고 평소에 생각해 왔었다. 왜냐하면 일을 맡기려오는 의뢰인들이, 의사경우에는 병에 써들은 환자들이고, 변호사는 죄지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반면에,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기려오는 사람들은 인생의 전성기에서 여러모로 능력과 여유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 건축주로부터 해외의 최신 건축정보를 오히려 듣기도 하고, 인생경험이 많은 그들로 부터 인생살이의 여러면들을 배울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나이로나 사회경험으로나 우리보다 앞선 건축주들을 상대하는 것이 상당히 버겁기도 하지만, 건축사라는 직업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몇개월째 계속되는 의사들의 파업사태를 보면서, 겉으로는 비난을 하면서도 그들의 집단행동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의사라는 직업자체의 영향력이 부럽기도 한게 솔직한 심정이다. 의사들 처럼 긴급하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고 여유로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업무의 긴박감이 없기 때문인지, 한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생존이 문제가 되는 요즘 상황에서는 오히려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건축학과의 학제가 바뀌고 건축사보의 실무 경력까지 합치면 건축사가 되기위한 연한이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기간과 비슷해질텐데, 건축사 자격증을 따면 의사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만약 건축사들이 의사들처럼 집단 행동을 한다면 대표적인 집단이기주의로 몰려 건교부에서 건축사 면허증을 회수해 복덕방 아저씨나 욕수들에게 면허증을 나눠줄거라는 우스개소리로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한탄과 자조적인 얘기를 농담삼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건축사 집단은 건축사의 역할과 위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일관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생각의 틀을 바꾸어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우리 업무를 알릴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설계검리한 건축물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고, 중요한 일간지의 비중있는 난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우리 입장을 시기적절하게 실을수 있어야 하고, TV, 라디오등 방송매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축사라는 직업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일반인들에게 건축사들과는 여러가지를 의논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성실한 직업정신과 지혜로운 홍보를 통하여 우리의 대 사회적인 발언과 영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의사들처럼 일반인들에게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영향력을 주는게 아니고, 건축사라는 직업을 통하여 기술도 살아나고 문화수준도 고양되고 사는 재미도 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 본다. 

(조현균/ 본지편찬위원)